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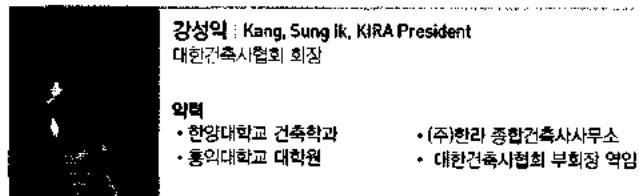
KIRA 2011 03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취임사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 하는 협회 만들자!
시 론 출판도시가 스물두 해 전에 던졌던 '부탁의 말'
2011한국건축문화大賞계획건축물부문 작품공모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하는 협회 만들터!

Crisis as an opportunity. To make KIRA leap again!



여느덧 겨울이 가고 생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 건축계는 건축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 사무소 양극화, 업역축소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과 제도 역시, 건축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건축설계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시장개방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건축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건축사법 전면 개정안도 현재 국회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건축계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회원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성원해주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럴만한 역량과 지혜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격려를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협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와 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회장, 약속드린 것을 꼭 지키고 실천하는 회장, 언제나 회원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와 건축계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서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천직으로 삼고 정열과 흔을 쏟아왔던 건축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건축사협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바꿀 것은 바꾸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건축사회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유지관리법의 제정과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의 제정, 건축사의 복지제도 강화 등 제가 공약했던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께서 공약하신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과제들은 협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건축사와 글로벌 건축사 모두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데 협회가 앞장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건축계 대내외적인 변동성에 대해 협회내 위기관리 체제를 상시화하고, 우리 협회가 어느 전문가단체보다 힘 있는 단체로 거듭나서 회원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 할 때는 질책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와 집행부는 생각보다는 실천을, 온전보다는 투자를 앞세우고 함께 뛰고, 비장한 각오로 이 어려운 건축계를 해쳐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위기의식, 유연성과 빈첩함을 갖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원여러분들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믿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축사의 위상과 미래!

건축계를 선도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건축사협회!

반드시 이룩됩니다.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최동규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1947년 12월 청주 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1년)

지금 하는 일에 정신없이 열중하라!

최동규 서인건축 대표는 1947년 충북 청주 생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1971)했다. 그는 포섭과 기록의 리더십으로 30년이 넘는 건축인생을 성공적으로 지켜왔다.

갓 30세의 나이에 소망교회의 설계로 스타덤에 올라선 이래 한순간도 교회건축전문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은 바 없는 성실함이 그의 존재감을 달리 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자기경영 능력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동규 식 건축인생론을 들여다보자.

글 | 전진삼(본지 편찬위원, <와이드AR>발행인)

1978년 8월 29일, 최동규 대표는 을지로 서울운동장 바로 건너편에 김석철이 설계한 상우빌딩 감독관을 하고 있던 중 현장에서 옆 땅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에 그 땅의 건축주를 소개받아 계약금 150만원을 받고 계획안을 그려주게 된다. 그 돈이 밀천이 되어 창성동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뒤로부터 그가 걸어온 건축인생도 어느덧 만 33년을 넘어가고 있다.

서인건축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나?

고교 선배인 이관영 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인건축이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 사무실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름을 새로 짓지 않은 이유는 그 이름이 좋아서였고 만들어진 지 이미 삼년이 지난 사무실이란 이점도 생각했지요.

서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정작 이름을 지운 당사자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흥대출신들이 만든 사무실이라 서쪽에 있는 학교를 지칭하는 것 아니었나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제 나름 '서인' 하면 서민 즉 평범한 사람, 또는 상서롭다는 뜻을 생각하여 귀한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새기고 있습니다.

»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축사사무소 서인건축 최동규 대표와 1시간 30분여에 걸쳐 그가 살아온 건축인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근황부터 물기로 했다. 이 책이 발간되는 시점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그는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상태였다.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에 출마한 배경은 무엇인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건축계에 아직도 봉사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서 떠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축단체와 문화예술계에서 공적인 지위를 맡은 경력은 있나?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에서 각 단체의 기관지 만드는 편찬위원 및 편찬위원장을 주로 맡아 일해 왔습니다. 건축가협회에서는 명예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위원을 12년째 맡고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은 법원에서 건축적 사안의 조정 역할을 담당해주는 것으로 그를 통해 범리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 건축계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건축사의 전문직능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건축전문가로서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것이 최 대표의 단출하지만 눈에 띠는 이력이었다.

좀처럼 단체장으로서 드러나지 않던 분이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을 출마를 하였는데 본인이 보기애 건축사를 모임에서 어떤 갈등을

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나?

〈건축사〉지에 2년간 '이 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라는 꼬리를 담당하면서 말비에 그들에게 전축사로 살아가면서 건축계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같은지 다른지를 놀 비교해보고자 해시이지요.

대개 건축계의 문제로 양극화를 듭니다. 그런데 양극화라는 말에 단기진 생각이 건축사사무소의 생활수준차이로 귀결되는 것 같아 들판에 안 좋아합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건축인들이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어떤 일이든지 응모해서 계획안을 내고 당선되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규모의 일들은 소형사무실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대형조직만 크고 좋은 일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을 건축사들이 속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최 대표는 서울시건축사회장에 당선된 이후의 모습에 대하여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무소 운영에 따른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임셰어링(time sharing)과 시간 관리를 스마트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건축사들의 현안은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 그가 생각하는 건축사들의 위기탈출 묘책이 궁금했다.

건축사들의 사회적 포지셔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도는 있나?

현재는 건축설계 할 수 있는 인 자체만 있어도 좋은 때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소망은 설계를 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없어지는 이유는 건축사들이 건축설계작업을 퍼스트하게 봇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말이지요.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주관하는 연예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을 보면 전 세계에서 재주 있는 가수들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으로 멘토링을 채택하고 있는데 무명의 신인이 스타덤에 오르기까지 단계별로 도와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우리 건축계에서도 여력 있고 능력 있는 선배 건축인들이 새능 있는 건축가를 발굴, 지원하는 등 조건식 협력하면 설계의 질도 올라가고, 나아가 그 같은 사회관위기를 타고 긴축선계 위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축가 지망생에게 멘토링은 그의 건축관을 형성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대가의 사무소에서 직접 사사했던지, 홀로 선망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독습했던지 젊은 날의 건축공부는 독립 후 건축가의 초기작업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로 이후 자신의 건축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지렛대역할을 하기 나름이다.

건축을 해오면서 멘토가 있었나?

대학졸업 후 첫 사무실인 전아건축을 거쳐 김수근 선생의 공간연구소에 있었을 때는 엔도가 김수근 선생이었고, 공간에서 나온 후에는 알바알토를 멘토라고 생각했습니다. 알토는 1976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독립하였을 때는 그분이 남겨놓은 작품을 대상으로 스스로 연구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는 저보다 유명한 동료 및 후배 건축가들의 나은 점을 본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김수근에게서 영향 받은 것은?

당시는 국내에서 김수근 선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라니!

생각했기에 공간에 입사했지만 막상 저의 건축에 대한 생각과는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건축계처럼 선택폭이 넓었다면 루이스 칸이나 필립존슨을 택했을지도 모르지요.

루이스 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책을 통해 그의 평면을 확대해서 일배문지 일로 그려보기도 했는데 책에서 보면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스케일로 확대해보니 공간이 너무 커서 이런 아나나 생각했고, 반대로 알바알토의 작품들은 확대를 해도 우리나라 건물스케일과 비슷했고, 그가 즐겨 사용하는 재료도 벽돌, 콘크리트, 목재 등이어서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한 재료인 점도 그를 스승으로 모신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거의 15년 이상을 그에게 빠져 지냈지만 알바알토 이상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알토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였다?

78년에 처음 소망교회를 운 좋게 낳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수근 선생에게 받은 기량으로 교회를 설계하면 10년 후면 블립없이 사람들이 삶중내고 사라질 것 같아서 알바알토가 설계한 교회를 모티파이(modify)하여 적용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십여 년 전에 건축잡지 〈poar〉에 알바알토의 작품을 모작했다고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서 속상하기도 했지만…내가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모티파이 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둘째 아들 방에 갔을 때 책꽂이에 끌려있는 위인전을 읽어보면서입니다. 밀레, 헨델 등이 루벤스나 바하 등 스승의 것을 그대로 보사하며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겁 없이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선 결과적으로 표절논란에 휩싸인 것이 있진 맞다고도 생각하지요. 재ken 독도 되고 악도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이후 거의 백 개에 육박하는 교회를 설계하게 된 첫 프로젝트였으니까요.

» 소망교회는 최동규의 대표작이며 최동규 대표를 건축가의 반열로 급성장시킨 출세작이기도 하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 것에서도 그의 자부심은 대단하게 다가왔다. 그의 본격적인 건축계 데뷔작이기도 한 소망교회 설계의 발단 등에 대하여 물었다.

어떻게 소망교회설계를 맡게 되었나?

오래 전, 제가 서울 성인커플즈라는 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K사장을 만났고, 그분이 소망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인 소망교회에 무기명 서액의 현금을 해오년 차에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한 교회 측이 그에게 교회를 지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가 저를 교회에 설계자로 추천한 것입니다. 저에게 평생의 은인이지요. 그 이후 소망교회 관련 프로젝트를 부려 열한 개나 하게 되었으니까요.

현재와 같은 교회의 형태는 광선회 복사와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어요.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음향전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재의 모양을 손바닥으로 예시하여 주었고 마침 알토가 설계한 교회 중 그와 같은 비슷한 모양의 교회를 찾아내어 모티파이 한 것이지요.

소망교회 이후에 교회건축에서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동안 교회프로젝트를 몇 개나 했나?

90여개 정도입니다. 1년에 3개 정도 한 채가 되나요. 예수소망교회(교회 같지 않은 교회), 모세골 성시 연구소(콘셉추얼한 교회), 소망

수양관, 렉스타워, 서울장신대종합관, 신촌성결교회, 약수교회 등이 특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그는 교회 건축의 너자인에 있어서 콘셉트를 앞세우기보다 세련된 외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외관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미지를 중시한다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말하는 이미지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건축을 말합니다. 프랭크 게리, 스티븐 홍 등은 확실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작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석유가 묻혀있는 곳을 정확하게 뚫으면 석유가 솟구쳐 나오듯이, 생각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그리면 되고, 아니면 다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이미지를 찾는 편인데 고요한 시간에 정적을 뚫고 솟구치는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에 글도 쓰고, 많은 드로잉을 하다보면 거짓말 같이 떼순간 터져 나옵니다. 생활습관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12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 반이나 6시 정도엔 언제나 일어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거의 그렇게 일어나고 평상시엔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운동도 계울리 하지 않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에 오르면서 나무를 알게 되고, 그 좋은 숲을 도심에 있는 건물에 어떻게 인용할까도 생각하며 가볍게 걷기를 즐깁니다.

외관 디자인 우위의 설계전략은 어떤 이유예선가?

제가 대학 졸업하던 당시에는 기능을 먼저 해결한 후에 형태가 뒤따라가는 시대였는데 최근에는 역전된 양상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니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천만금을 주어도 그와 바꾸지 않겠다'는 아이브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는 첨단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진보다 디자인의 우위를 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가 먼저 디자인을 내놓으면 개발진이 그 틀에 맞춰 부품을 집어 넣었다.'라고 말이지요. 이 말이 시사 하는 바가 건축의 작업과정에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는 경쟁자이기도 한 국내 건축가에 대하여 호불호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다. 그가 꼽는 좋아하는 건축가로는 김승희, 김종규, 유걸 등이다. 김승희에게서는 프로젝트를 다루는 치밀함과 김종규에게서는 미술의 경지에 닿아 있는 점과 유걸에게서는 세련되었다기보다는 구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점이 배울 점이라고 말한다. 선배와 후배 건축가들의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기건축의 한계를 반추해보고, 나아가 끊임없는 공부의 배경으로 삼고 있음이다.

평소 사무소 내에서 활용하는 설계방법론은?

제 생각에 다른 직원들이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나 모형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외인을 먼저 테스트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교회 계획한 것이 마치 형태가 비둘기 보양 같은데 외부재료를 같은 색으로 통일하지 않고 조

금씩 다르게 했는데, 직원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비둘기 목덜미를 자세히 보고 상상해라." 흰털과 회색털이 섞여 있는 것을 표현해 보라고 했는데 썩 잘 되었습니다. 이미지 연상법을 통하여 직원 손으로 해결한 경우지요.

» 최 대표는 독특한 자기경영법을 지니고 있다. 신문이나 책에서 아주 좋은 말이 있으면 즉시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개인 라이브러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언어에서도 영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만의 무기로 쓰인다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사무소 안팎에서 드러나는 최동규 식 건축리더십은 남다른 데가 있다.

회의를 주재할 때 자신의 주장은 거의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끌고 가는 데 어떤 이유예선가?

저 자신이 누가 너무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 때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 생각이 물론 있어도 의견을 들어보면 분명 도움이 되는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저의 초기생각이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편이지요.

서인건축에 근무하는 스태프들은 다른 사무소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나?

계획과 실무를 다 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있는 교회건축 설계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스케치만 해서 넘겨짚을 뿐, 후속 작업은 직원들이 다하고 있고, 저는 가끔 자국만 주는 편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손대는 것보다 조직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완성도를 더 높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나?

포트폴리오의 작품들을 봅니다. 사실 생각이 많이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반면 자기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같은 성향의 친구가 있었지요. 유능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이 있었고, 그런 불안정성은 사무소 전체 분위기 차원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스스로 떠났지만 전혀 아쉬움은 없습니다.

» 그도 어느덧 후계구도를 생각할 연배에 들어섰다. 가깝게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사무소 내부에서 성장한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그가 꾸려온 서인건축의 미래를 맡아갈 인재에 대한 바람이 없을 리 없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세를 입고 있던 건축가들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서도 그들의 퍼텐셜(potential)을 탐문해오며 끊임없이 향후 10년, 20년을 대비해온 몇 안 되는 건축가이다.

계속 운영한다면 팔계는 10년, 길계는 20년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로 65세를 1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그 정도가 정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유절 선생이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 주변에 관우, 장비, 조운이 있는 셈이지요. 종국엔 매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 건축시장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내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우설계처럼 A급 직원들을 쓰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파트너도 떄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들이 거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들이 그동안 부동산개발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 건축적인 작업으로 승부를 보려는 생각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타 사무소를 탐방하면서 후계구도라는 점에서 결론을 얻은 것이 있나?

거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계획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동년배 건축가들 중에는 2세가 건축설계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세대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불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에 비교해보면 일도 많았던 것 같고, 지금같이 분화되어 큰일은 큰 곳에서만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래서 2세에게 건축을 시켰던 것 아닌가 해요.

»» 저는 소위 교회건축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 또한 교회 설계 위주로 프로젝트가 수주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비술관이나 다른 용도의 건축에서 흔번을 치지 않으면, 교회건축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솔직히 바뀌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생계형 건축목록에서 신나는 건축목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건축의 명품도 생산될 터이기에.

앞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싶은 분야는?

예전에 시어진 긴장을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라고 별링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양평 복지교회를 진행했을 때 전혀 다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건축에서 명품이라 함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건축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건축주, 퍼펙트(perfect)한 연주를 해줄 시공자, 그것이 이루어 질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 등의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는 국내외 건축사재 선사장을 꾸준하게 찾아다니며 새로운 재료의 가능성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시키는 데에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건축가는 늘상 새로운 이뤄로 무장해야한다는 그의 행동철학이 묻어 있는 내목이다.

건물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독특하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한번은 원행에서 자재 전시회에 참석했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국내 전시장도 자주 찾습니다. 건축가가 재료에 대한 가

능성을 많이 아는 것은 마치 소설가가 단어의 어휘력이 풍부해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열리는 자재 전시회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 서인건축의 전년도 설계비 총매출은 8~9억 원 정도라고 한다. 전체 12인의 구성원 대비하여 여유를 부릴 수 없는 빠듯한 실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성적표도 아니다. 그는 또한 수년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출강하며 건축설계실무를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설계비 계산법과 받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주변을 돌아보면 기성 건축가들조차 여직 설계비 계산에 서툴고 그로인해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즘 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로부터 받는 인상은?

전반적으로 풋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극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제가 정리한 어록 중 일본여자가 쓴 말 중에 '불경기 때 당신이 해야해야 할 12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금 하는 일에 정신없이 열중하라'는 말이 있지요. 일을 하는 동안은 다른 것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없으면 최선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 지금의 서인건축 사옥을 짓기 위하여 땅을 계약하고 골조를 다 옮긴 후 창틀도 안 달았을 채로 3층에 달빛이 들어왔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무척 감사했고 즐거웠다고 말하는 그는 그것이 전축적 감동이기에 앞서 서울 요지에 자신의 건물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기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건축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라. 지금 하는 일에 정신없이 열중하라."

사정이 어려워도 이 두 가지 말을 불잡고 살아간다면 성공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사무소로 개업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손해 보지 말 것을 주문하는 그는 지금과 같이 불경기일 때에는 자존심을 버리고 대신 유연성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했다. 남이 따온 일의 계획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하고, 남을 앞세우고 뒤에서 자기가 따라 갈 수도 있다는 정황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한 것이 강한 것보다 오래간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최동구 대표는 포럼의 리더십으로 건축 일을 해왔고, 주변을 아울러왔다. 그의 모든 쪽적은 그가 매순간 기록하는 노트에 담겨진다. 오늘 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는 대화자인 나에 대한 성향을 조목조목 기록해놓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기록의 리더십을 즐기고 있다. 그가 별도로 구축해놓았다는 명사들의 어록과 성공한 기업인들의 행동수칙 등은 그의 대내외 활동을 스스로 제어하고 반영하는 만화경으로 작동한다.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주도면밀하게 유통할 줄 아는 매니저로서 그는 깨어 있는 건축리더 중 한 사람임에 분명해 보인다. ■



UN평화기념관

United & Nations Peace Memorial

당선작 _ 고성룡 정희원 (주)디에스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
+ 오철호 정희원 (주)상지이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자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 20-2번지 일원(당곡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 기타문화시설(내·외문화특구), 상대정학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75,465.00m ²
건축면적	2,392.00m ²
연면적	6,848.47m ²
건폐율	3.17%
용적률	9.0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설계담당	정진균, 윤태현, 김경민, 김수미, 노영미, 최병준

계획대지는 당곡공원 내에 위치하여 가파른 경사지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도심 속의 침울한 자연녹지공간이다. 또한 계획대지가 위치한 당곡공원은 유엔특구내 도시원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본 계획안은 당곡공원내 녹지의 흐름을 이어주고 주변에 들어설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원형을 재구성하고, 기존 경사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을 계획하였다.

경사지 보존하기 위해 스텝식으로 계획된 건축물은 걸으므로 드러나진 않지만, 원형그대로 보존 된 푸른 숲이 자연스럽게 기념관의 입면이 되어 나타나고 통과동선이 곧 산책로가 되어 자연과 어우러진 기념관으로 자리매김 된다.

입면계획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마크를 기본으로 디자인된 패턴모듈로 전시공간과 외부공간사이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다. 또한 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사이에 개입된 요소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과거와 현재는 투명한 유리처럼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지금의 평화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투명한 그리고 투명한 패턴을 반복해서 디자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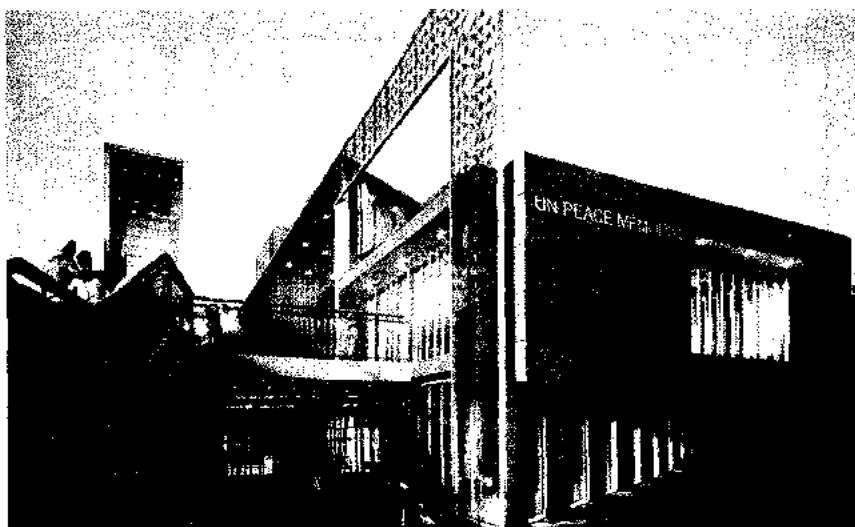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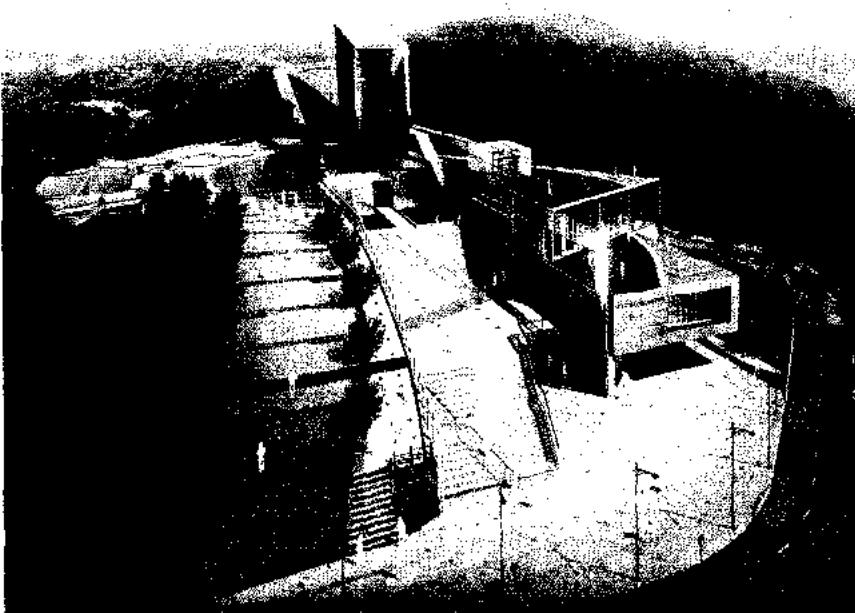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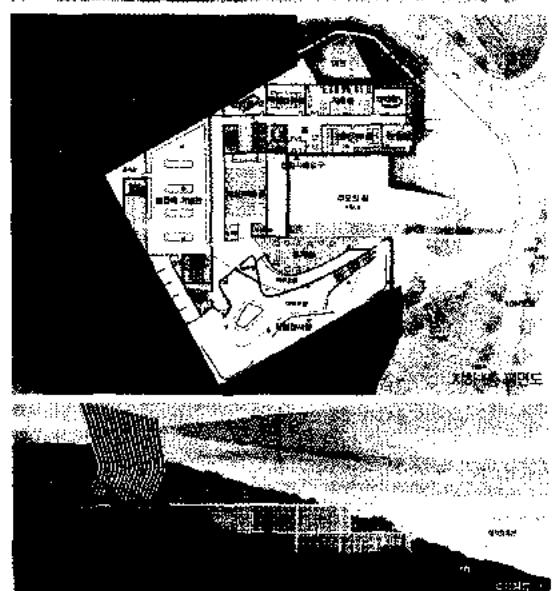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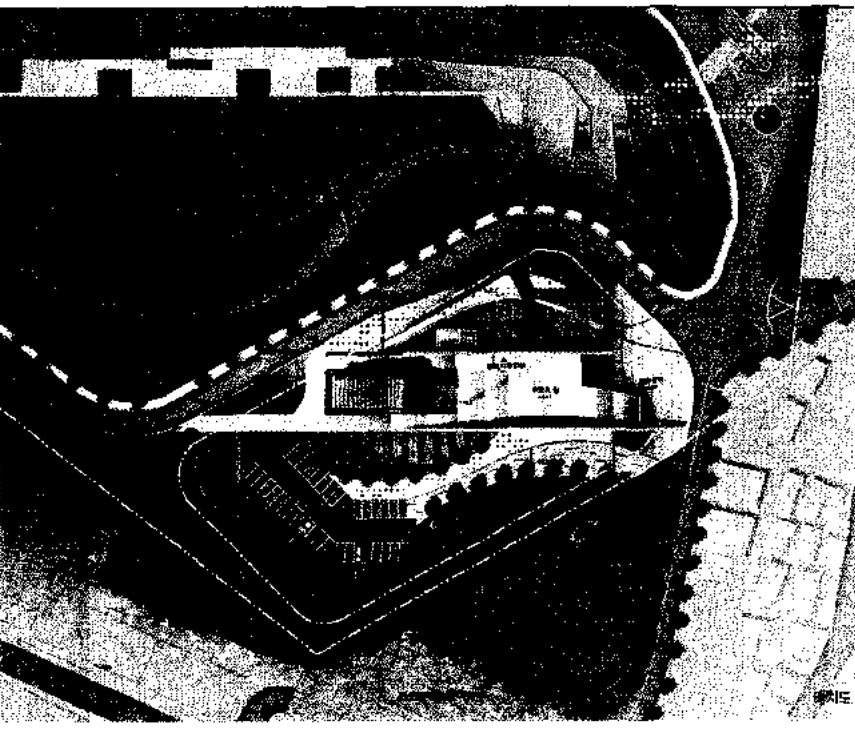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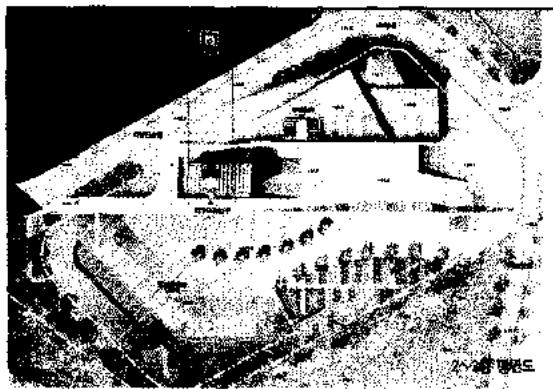
이 패턴은 반전과 평화를 나타내며, 이 패턴을 통하여 건물의内外부는 의도된 필터에 의해 걸려져 보이게 되며, 이러한 흐름은 건물의 주경과 아경,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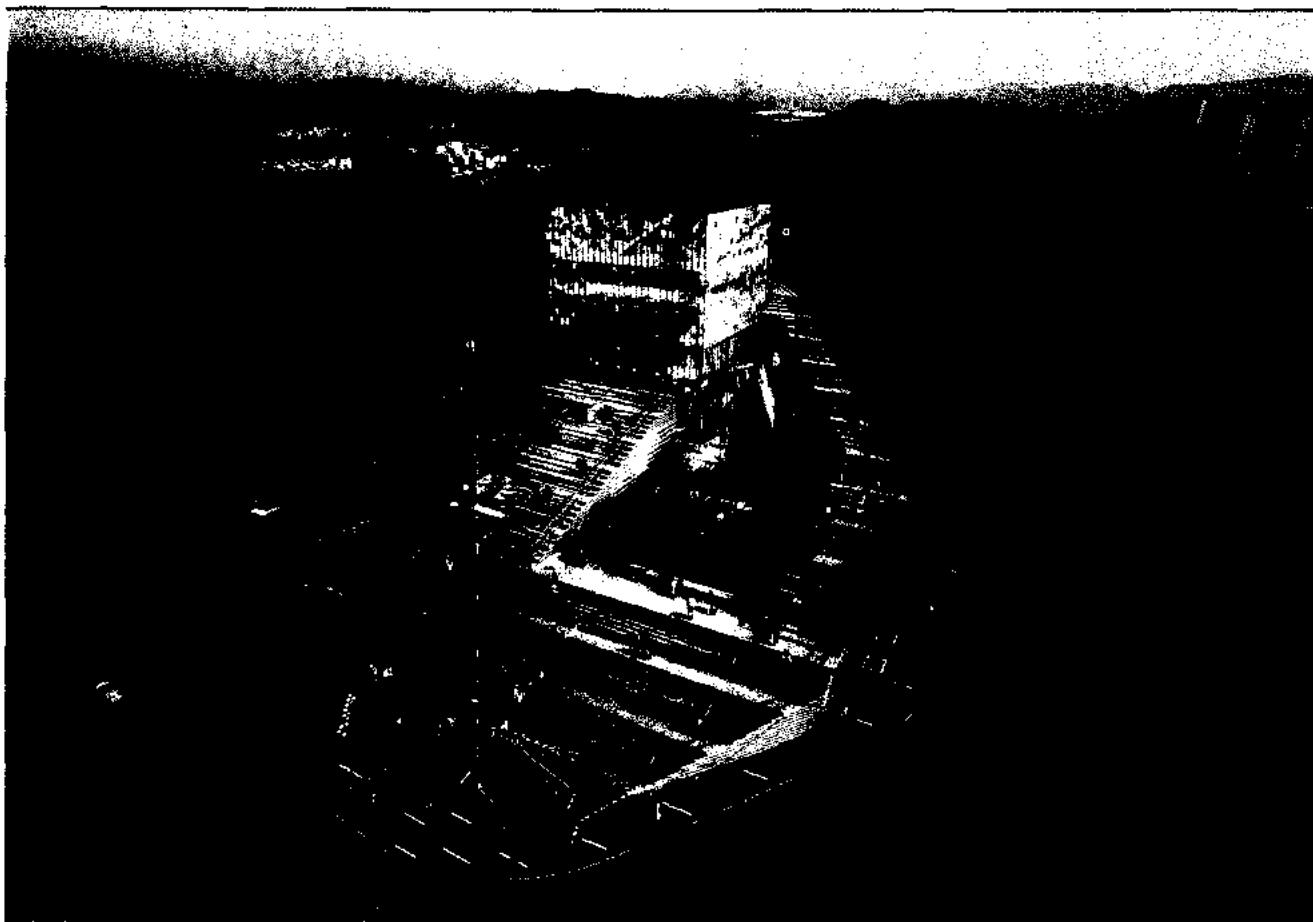
단면계획

건물은 주출입구와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사축에 전시 및 주모 조닝으로 동축은 관리조닝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조닝의 구분은 관방객 동선과 관리자 동선을 분리하여 명쾌한 동선체계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전입광장과 중앙광장은 각각 커피숍과 휴게실 등과 연계하여 광장과의 상호 연계성을 높였으며 수장고는 전시조닝 최상층에 위치하여 화물 이동 등을 최소화 하였다.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토지이용성이 떨어지는 대지 북서측에 스텝식 주차장을 계획하여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절토 및 성토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스텝식으로 계획되었기에 자연환기와 차광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계획되었다.





UN평화기념관

United & Nations Peace Memorial

우수작 _ 운동신 경희원 (주)이가 종합건축사사무소
+ 황용길 경희원 디아이 건축사사무소(주)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대연동 산210-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공원, 기타문화시설(UN평화문화특구),
지역 지구 상대정화구역
주요 용도 문화 및 접회시설
대지 면적 75,465.00m²
건축 면적 2,376.00m²
연면적 6,932.19m²
건폐율 3.15%
용적률 4.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설계 담당 이대천, 정희원, 김정삼, 부희석, 엄상혜, 주현정,
김진희, 송기은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UN평화기념관은 주모와 장소임과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 주어진 대지는 UN기념공원과 동떨어져 있어 둘 간의 관계맺음이 주요한 과제였다. 또한 고층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급격한 경사지형(20m 레벨차)에 위치하여, 자연지형 및 주변과의 관계 또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했다.

CONCEPT

'Light on Strata(지층)'

복합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공공을 위한 주모와 평화의 장소(場所)를 제안하였다. 이 장소는 누구나를 위한 공간이며, 어디서나 UN기념공원을 마주할 수 있는 평화의 미당이다. 하부공간은 전쟁의 상처가 쌓여 만들어진 기억의 대지(Strata)를, 상부의 유리 오보재는 빛(Light)의 입자를 통해 수많은 전시자의 회생과 희망을 상징한다.

배치 및 매스계획[Design Process]

- 주모와 공공을 위한 '판'의 형성
- UN기념공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형에 맞춰 기울여진 판
- 컨테스트에 반응하여 정리됨
- 유입을 위해 낮춰진 판
- UN공원에 마주해 놓인 상부 매스
- 주변(인접아파트)에 대한 배려

평면 및 사면스케치

외부공간에서 시작된 체험이 전시실에서 희전하며 상승하며 전망대로 이어지고, 다시 외부공간으로 나와 UN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연속적인 시퀀스계획

입면계획

SKIN_1 상부 : 'Light Cube'

수많은 전시자의 회생과 희망 상징 → 빛나는 입지를 가진 입면(유리속 폴리카보네이트)

SKIN_2 하부 : 'Accumulated Memory'

전쟁의 상처가 쌓여 만들어진 대지 → 적층된 형태로 수평판을 쌓은 형태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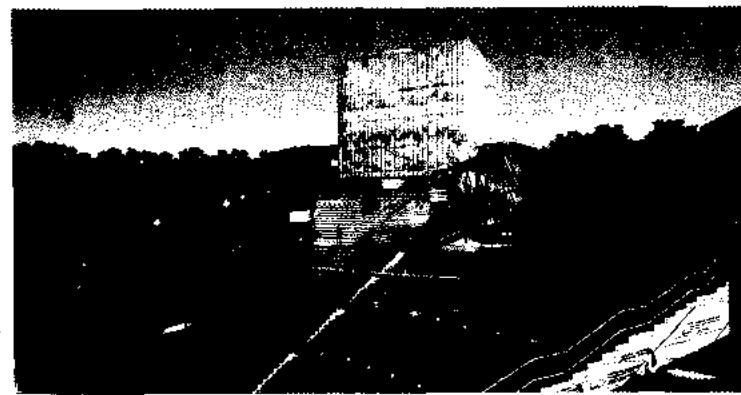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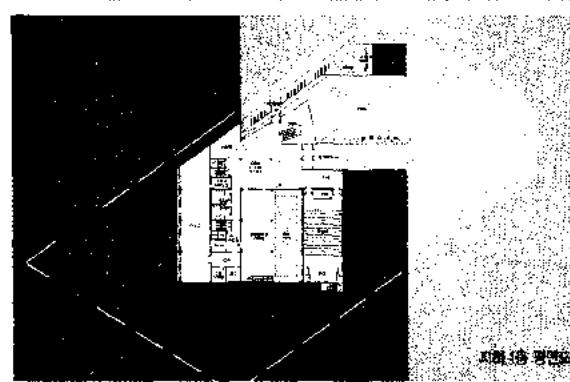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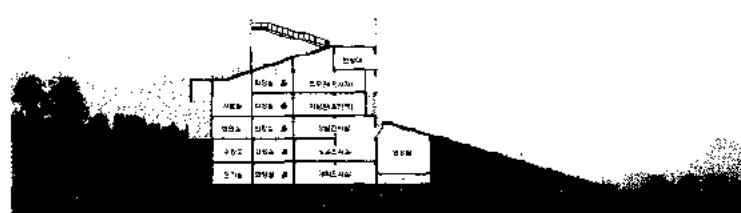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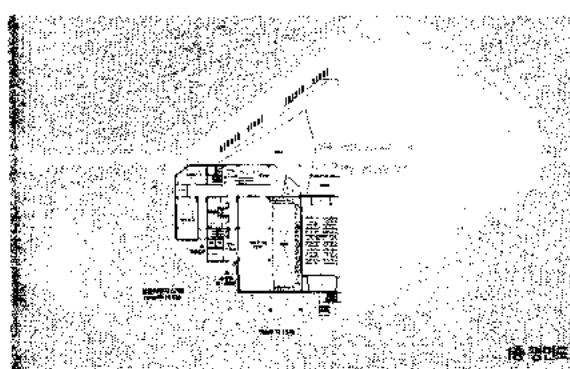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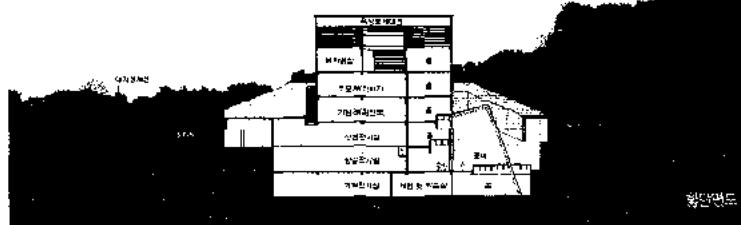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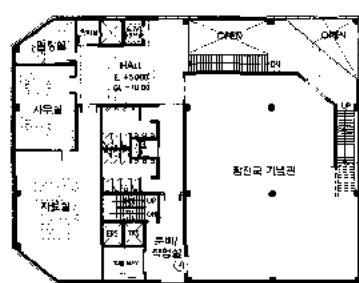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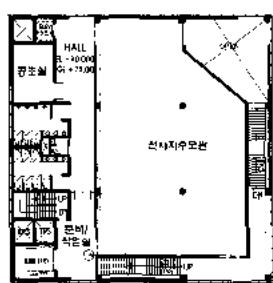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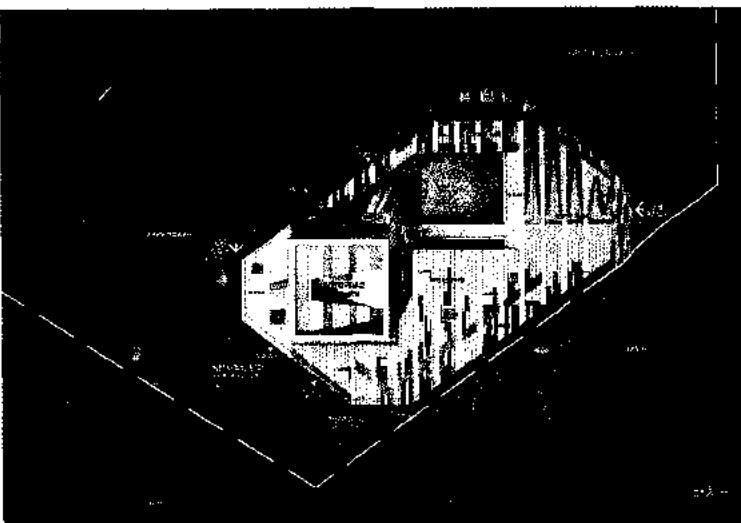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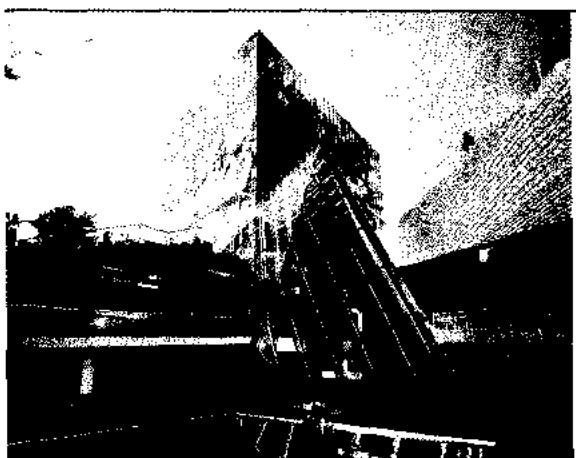
전면부를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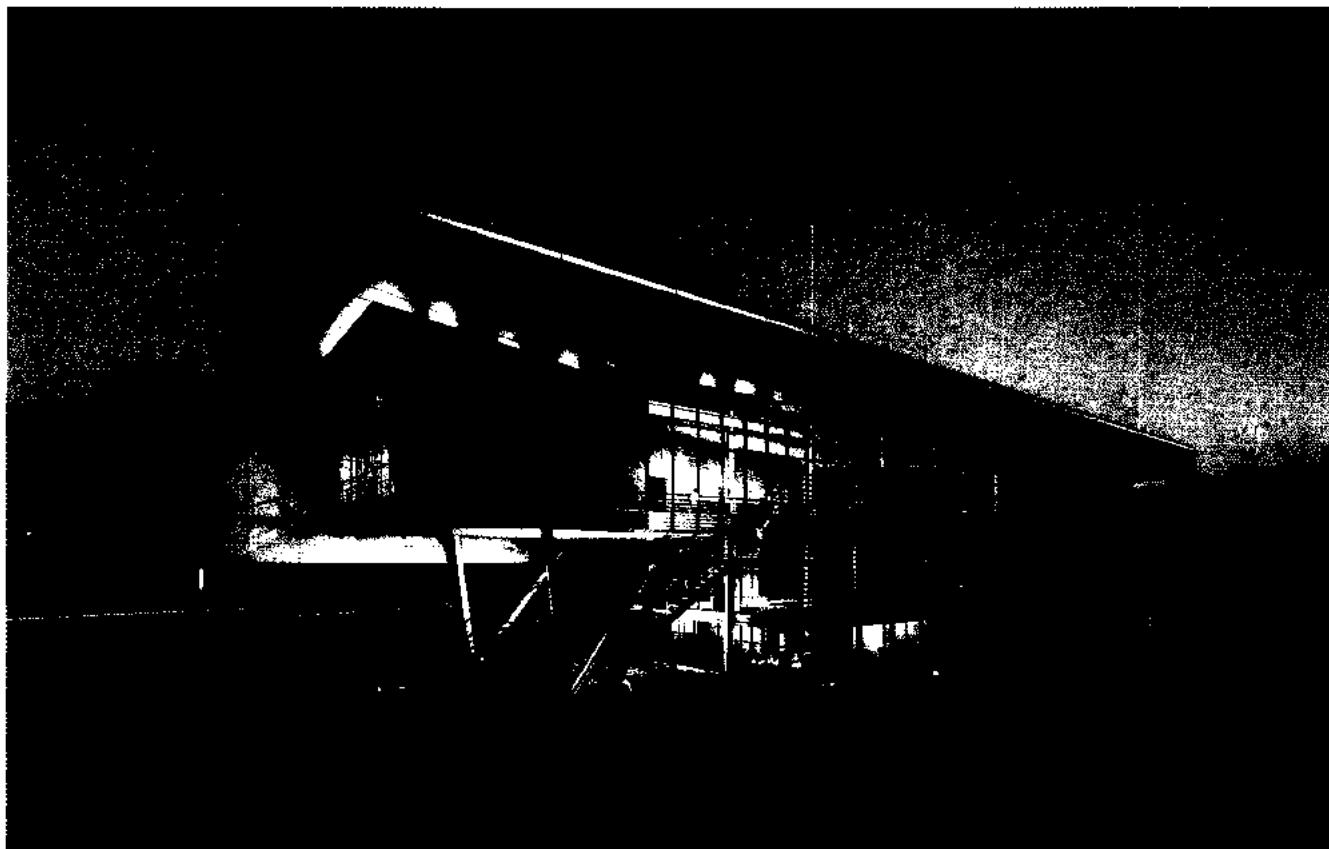
기념관 공간 잡의, 경사지형 이용으로 성절토랑 최소화

친환경/에너지절약 계획

막힌 전시실 주위를 계단과 유리가 감싸고 있는 구조 → 차광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남축유리면에 BIPV 설치, 지열이용 → 친환경 우수등급계획





관저동 문예회관

Gwanjeo-dong Center Cultural Center

당선작_김재범 정희원 쿠파 건축사사무소

+박종성 목원대학교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90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객시설, 주차장

대지면적 2,023.5m²

건축면적 1,713.79m²

연면적 4,693.32m²

건폐율 84.69%

용적률 143.25%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설계담당 김세순, 원종재, 정종태, 송영규, 오진식, 이서진

Urban + Pedestrian + Public Open Space (그림 1)

건축 + 도시라는 명체의 해법으로 주어진 대지조건에서 다양성 있는 도시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오픈스페이스 제공 보행자의 접근면의를 위해 남측보도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

Short-term Auto Ramp System +Parking Efficiency (그림 2)

최대의 주차대수 확보 및 효율적 기능을 고려하여 'Short Term Ramp System'을 제안 주차 및 출차시간의 기능성을 위해 지하 2개층 지상 2개층(4개층)을 주차장으로 제안.

Sound + Wall + Noise Barrier + Image Icon (그림 3)

대지 북측 50m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이 3층의 공연장과 다목적실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방음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의 75m에 이르는 북측벽은 건축물의 기능 및 성격을 외부로 전달하는 조형적인으로 해석 되어 대로변을 향해 건축물의 이미지 아이콘으로 표출.

Integrity + Identity + Image Icon (그림 4)

기능별, 층별로 제안되어 분할된 각 기능의 이미지를 대지형상을 따르는 지붕의 제안을 통한 통합이미지로 승화. 남측면에 개방된 각 실의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차양의 기능과 더불어 사용자 및 방문자들에게 건축물의 전체적 이미지로 기억하게 하는 장치.

Minimum + Vertical Function+ Efficiency (그림 5)

최소의 면적으로 최대의 효율적 코어 배치를 통해 건축법규의 충족은 물론 각층 및 각실의 효율적 동선이 극대화 되도록 고려계획 및 위치 선정.

주차장 및 문화시설이 시간대별, 행사별로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가 용이 하도록 실내, 실외 코어로 계획.

Free-Ceiling Height + Program Integration (그림 6)

문화시설(공연장+다목적실)을 최상층에 배치함으로서 4m~8m 이상의 높은 천정고를 확보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쾌적성 및 기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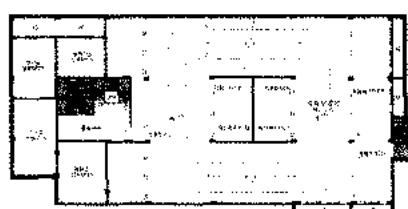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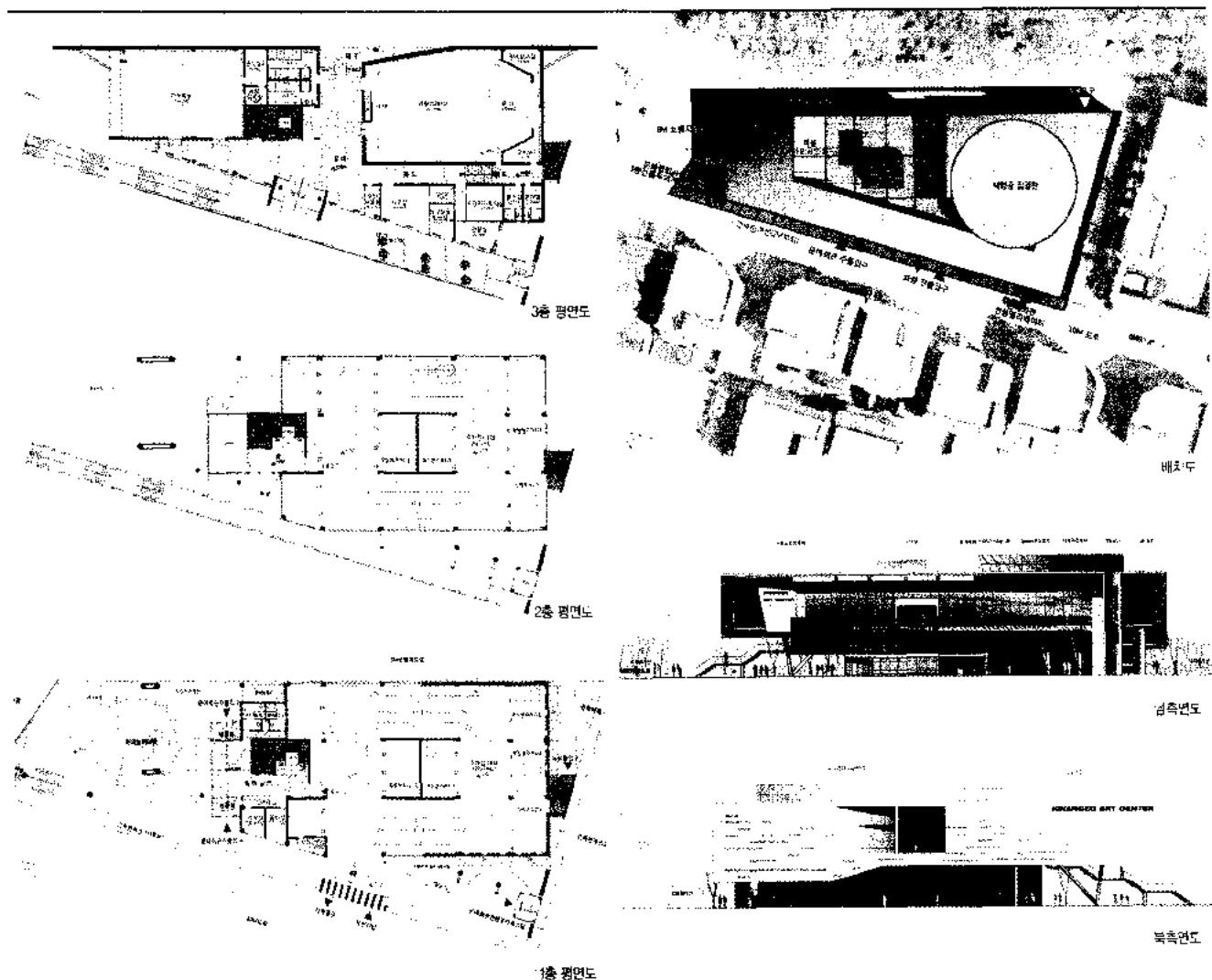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층별 분리배치를 지양하고 3층(최상층)에 집중 배치하여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을 확보함은 물론, 유사기능을 1개층에 집중 배치하여 기능의 시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안.

Outdoor Stair & Elevator +Acces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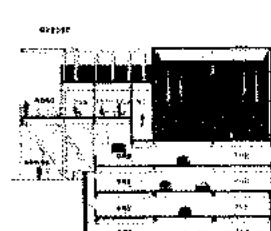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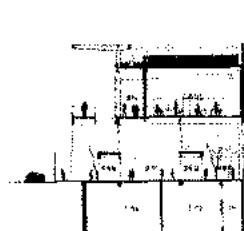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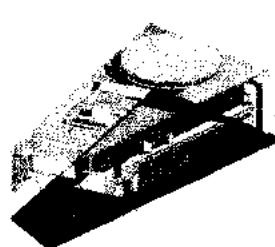
3층에 집중배치된 문화시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는 외부에 계획된 계단 및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여, 행사 후 차량이용자와 보행이용자의 로비 및 코어사용의 혼잡을 분산할 수 있도록 계획.

Urban + Culture + Platform

대지가 위치한 서구 관저동 도시주변 일대의 문화적 아이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 문화 프로그램 제안.



단면도-1



단면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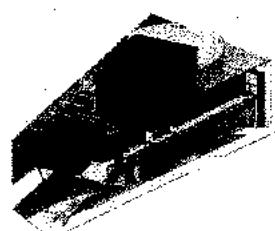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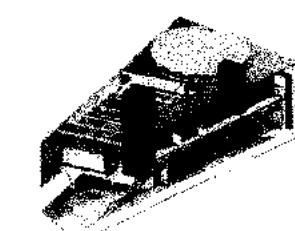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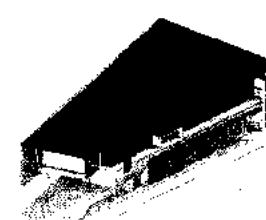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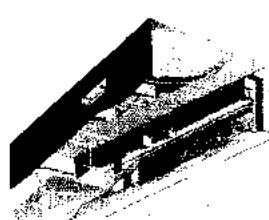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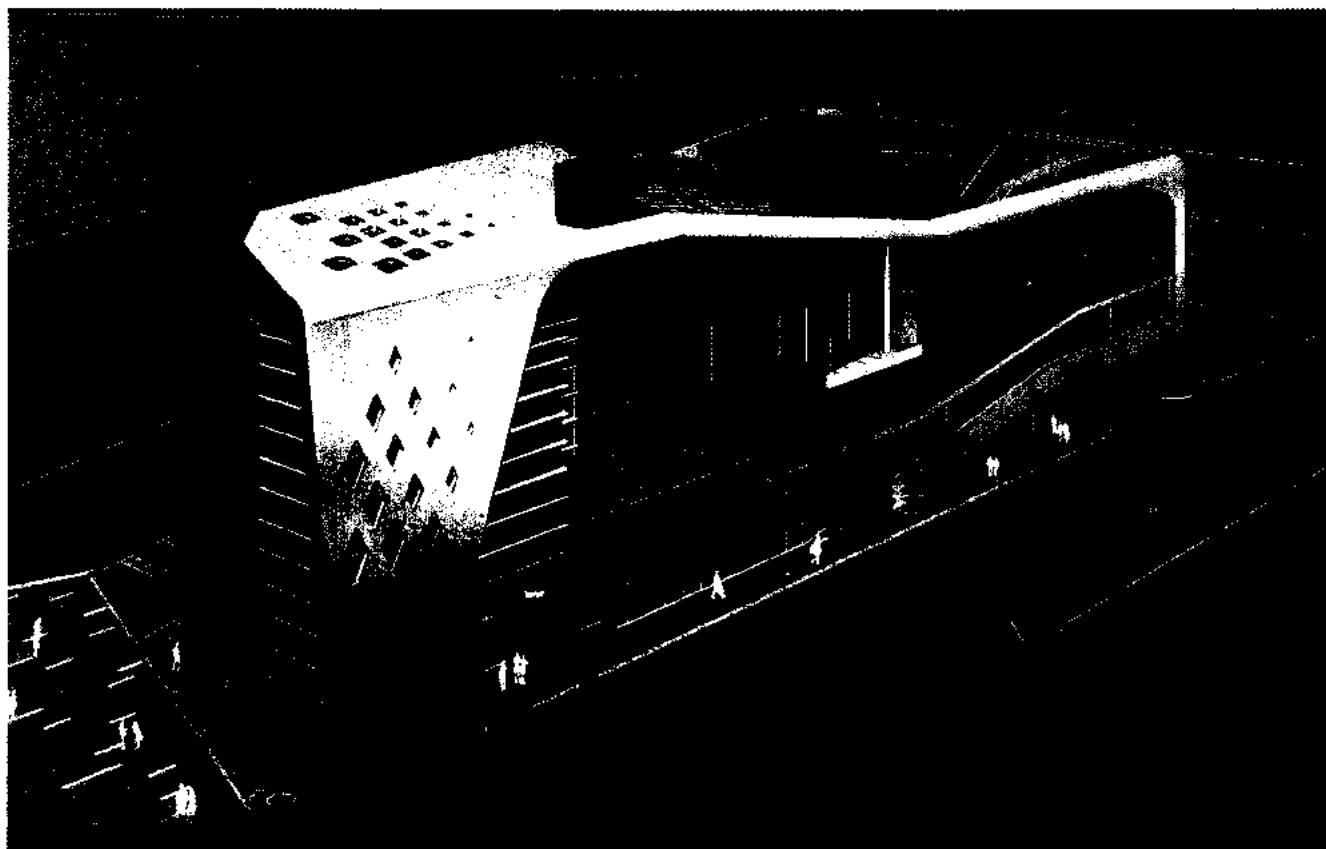


그림 6



관저동 문예회관

Gwanjeo-dong Center Cultural Center

우수작_ 고두열 경기원

(주)에스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9번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대지면적	2,023.5m ²
건축면적	1,410.70m ²
연면적	4,808.96m ²
건폐율	69.72%
용적률	223.6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권명상, 김현수, 박종선, 전용운, 유지연

기본계획자침

-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저지구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예술거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 문예회관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수용하고 지역, 문화예술성을 살리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다.

개념

- 대지의 상황과 주변 컨테스트에서 추출한 디자인들을 엮어 새로운 상징이 되는 문예회관을 제안한다.
- 편의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개방적 동선계획
- 상징성: 관저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이고 독창적 형태계획
- 친환경성: 에너지절약설계
- 다양성: 다양한 참여자를 고려한 공간계획

평면계획

사무실계획: 문예회관 진입층에 위치하여 관리효율을 높임.
안내데스크, 대기실, 사무실의 효율적 배치

공연장계획: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 가능

분장실, 준비실, 무대창고, 조정실의 효율적인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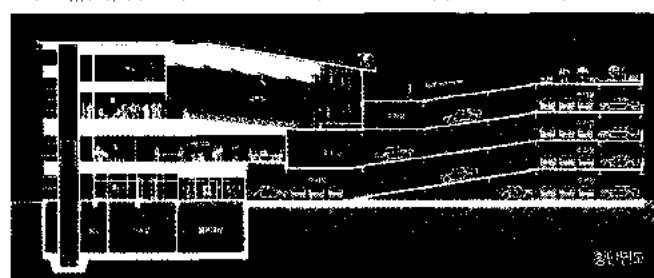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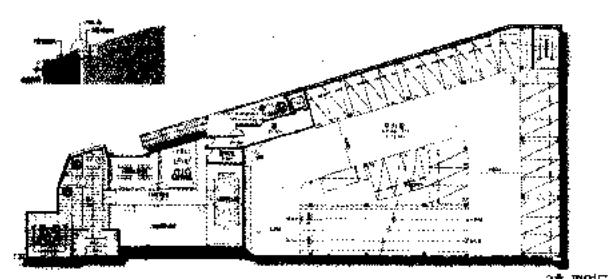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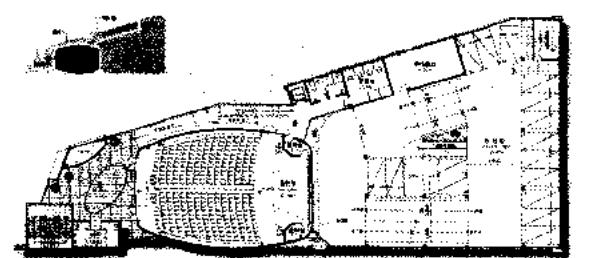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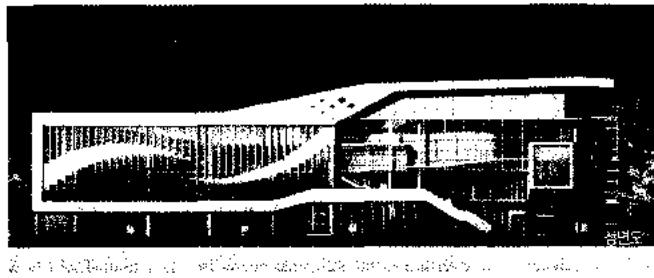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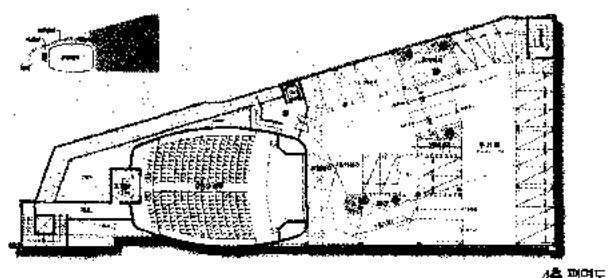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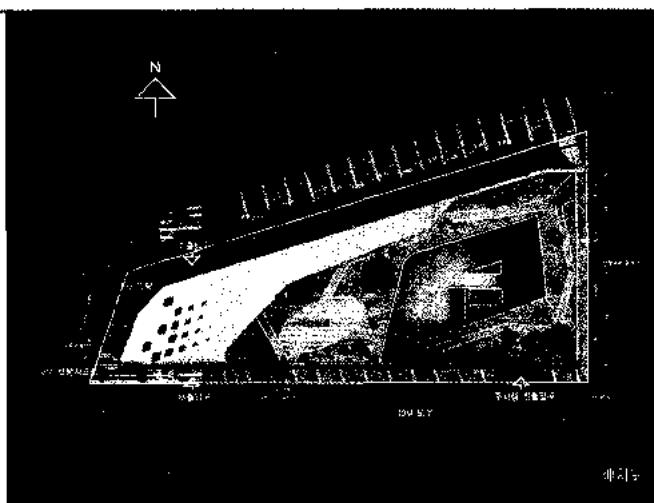
내외부공간 연결계획: 주차장에서 바로 공연장으로 진입 가능
중앙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용자 및 무대설치 용이

입면계획

자연의 자유로운 흐름을 입면에 반영하여 형태의 역동성을 담아내고,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단면계획

- 수평적으로 내부동선을 계획하여 충간 소통을 극대화
- 기능별 조닝을 통한 독립성 확보 및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직 및 수평 조닝.





관저동 문예회관

Gwanjeo-dong Center Cultural Center

가작_오덕세 정희원

(주)건축사사무소 한빛건축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99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객시설, 주차장
대지면적	2,023.5㎡
건축면적	1,572.00㎡
연면적	4,801.00㎡
건폐율	77.69%
용적률	237.26%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오명숙, 류미령, 박건도, 최성윤

작품설명

대지는 변화한 식당가의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식당가를 중심으로 북, 동, 서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주거단지의 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설계는 식당가의 유동적인 움직임과 주거단지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서, 유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공간에 커뮤니케이션의장을 만들어 사람들의 교류를 형성한다.

배치계획

대지가 중심으로 열린공간을 형성하여 도심축과 녹지축의 연결성을 극대화 시키며, 이 열린공간은 문화공간 진입 시의 전이공간 및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된다.

마스계획

대지가 갖는 기하학적인 형상을 그대로 건축에 반영하여 문예공간이란 공간에 동적인 이미지 부여.

입면계획

틀 : 도시인의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힐력을 불어넣는 요소

면 : 소통의 형상화, 리듬과 반복을 더해 협력적인 면의 완성

낮은 건물의 입면이 조형적 요소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겁게 한다.

빔은 건물의 입면이 경관조명으로 번해 밤거리의 힐력을 불어 넣는다.

동선계획

종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저층에 문화공간 및 화합의장을 마련,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상부층에 주차공간을 두어 보행자의 동선과 별도 분리하여 안전 및 상호간의 효율성 증대.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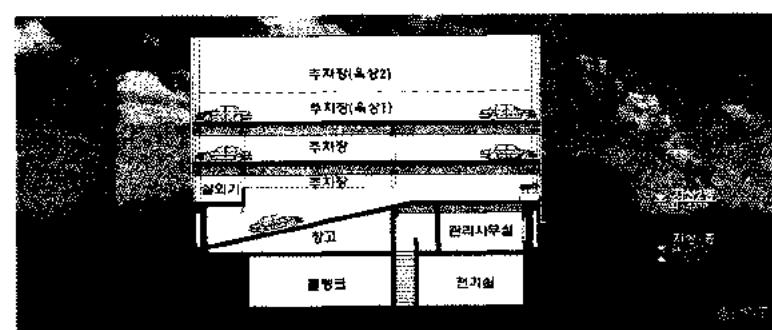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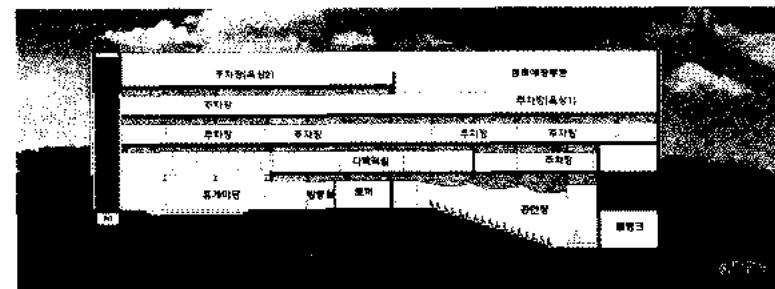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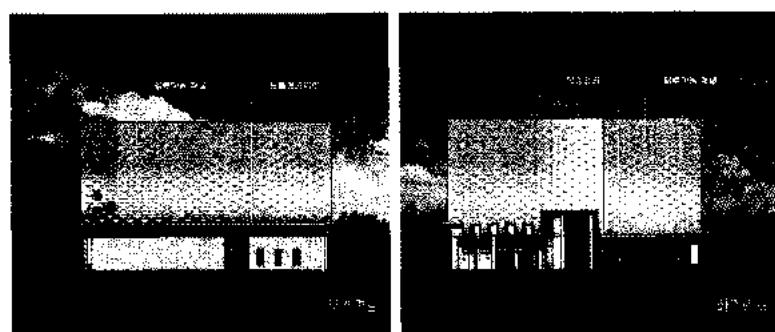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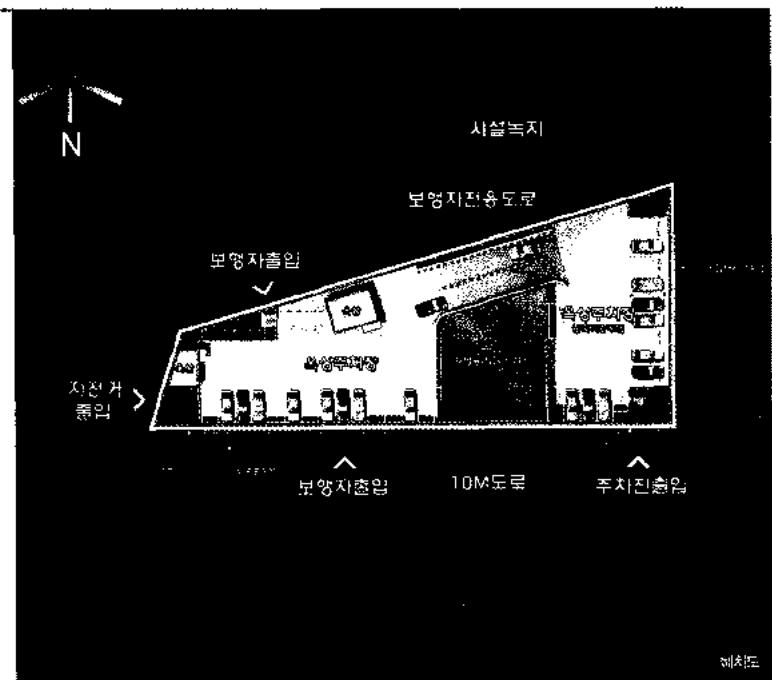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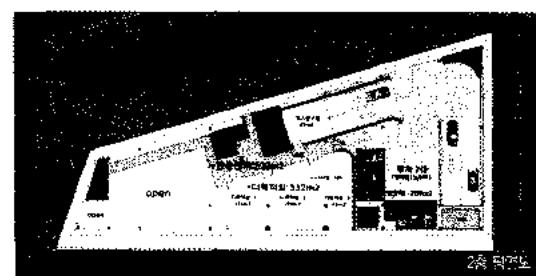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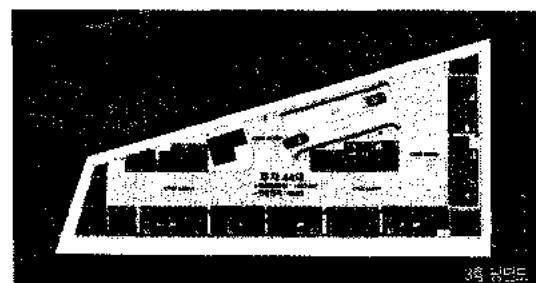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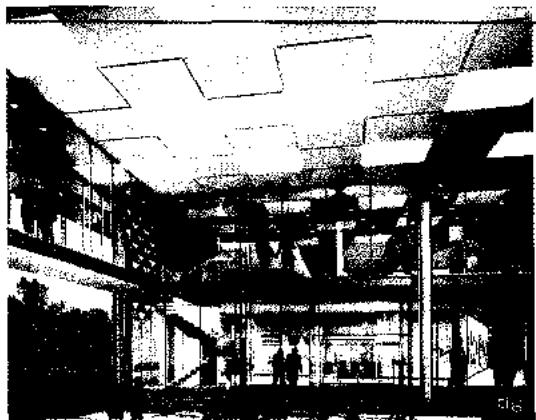
주차장 상부층에 식재계획을 통해 주차장 내부의 실내공기 정화와 삭막한 주차장 내부 경관향상, 폐적하고 친환경적 실내환경 제공.

친환경계획

주차장공간의 입면의 많은 오픈된구간은 빛의 유입과 환기를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며, 차양으로 빛을 차단을 막아 주차장의 친환경적 유지관리,

태양광 집열판의 설치로 전기에너지 생성하여 주차장의 전력활용에 사용.

구간별로 오픈된 상부층의 식재계획은 공기를 정화하고 친환경적 주차장 분위기 조성.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지상강좌

Sustainable Architecture Academy paper lecture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지구의 온난화와 에너지원의 고갈 등은 인류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몇 번의 오일쇼크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환경의 변화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관심사가 이제야 친환경으로 모이자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나. 건축계에서도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건축이란 명제가 화두가 될지도 몇 해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막연한 개념과 건축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점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에 「건축사」자에서는 우리협회의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건축강좌」의 내용의 일부를 선정하여 요약, 연재함으로써 친환경건축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1.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필자 :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Lee, Seungil



1983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도시계획학을 공부했으며, 1998년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활동적인 학제적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신도시자문위원으로 광교신도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종합계획기로 활동했으며, 다수 신도

시 개발을 위한 자문가의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자문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청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서울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등에서 도시계획 관련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저탄소녹색도시, 녹색교통 및 대중교통지향형 도시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중점연구소인 융합도시연구센터(IURC)의 공동책임자로서 저탄소녹색도시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목 차

1.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	김광현	서울대학교
2. 친환경건축의 개념과 이해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친환경건축정책 및 친환경인증제	김민철	국토해양부
3.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이아영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4. 패시브건축설계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조 한	홍익대학교
엑티브시스템 건축계획과 서비스시스템	이용직	세명대학교
5. 고성능 파사드 및 외벽설계	박기우	비정형연구소
친환경재료 및 재자적용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6. 건축의 재활용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유지관리	이해욱	우송대학교

3-2.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필자 : 이아영,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Ah-young



1987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아키플랜 종합건축 등에서 10여년의 실무경험을 쌓은 후 2004년 어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태학적 주거단지계획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 후 과정 중에 건축디자인과 환경, 조경의 통합설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8년 회림건축에 친환경설계팀을 설립하면서 실무 디자인경험과 연구경험을 결합한 친환경 통합설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아시아경기 대회 주경기장, 전력거래소신청사, 한전전력기술신청사, 아부다비 CNIA청사, 법무연수원 등 국내외 현상설계 프로젝트에서 독특한 친환경 아이디어를 디자인과 접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친환경설계아카데미, 대한건축학회 등에서 친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이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이사, 빌딩스마트협회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3-1.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1. Sustainable Urban Design and Site Planning

들어가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은 녹지를 조성하고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저탄소녹색도시 개념의 도입과 함께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한 교통혼잡, 과도한 화석에너지의 소비, 자구온난화 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소음 등 생활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위하여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속가능한 교통정책은 기존의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다. 시속가능한 교통으로의 전환은 교통정책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교통은 토지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거시적으로는 도시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정책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미시적으로는 도시설계 내지는 단지계획에 의하여 좌우된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봉을 배치하고 난지의 동선을 계획하며 보행 및 자전거의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면 이용자들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개발 나아가 저탄소·녹색성장 등 지금까지 도시·건축·조경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패러다임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추구하였던 바의 본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의 기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시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에 발맞추어 나라별로 주어진 도시문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지속가능 도시개발 이론에 따라 기계주의, 표준화, 고증화, 기능주의, 대규모 도로건설, 대규모 계획도시 등을 내세우는 극대 도시계획 개념은 Smart Growth, New Urbanism, Compact City, Creative and Cultural City,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등 대안적 도시계획 개념 즉,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Smart Growth는 2차대전 후 도시확산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에서 태동하였다. 이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한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성장을 수용하는 개발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New Urbanism은 무분별한 확산에 의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되었다. 이 개념을 통하여 교외화 현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인간적인 친근도로 지난 글에서 주구

가 중심인 도시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Compact City는 주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집중하여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도심이나 역세권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의 복합된 시설물을 집중 고밀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전체의 밀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 개발방식이므로 내부개발로 인해 외곽지역에는 풍부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 도시의 내부도 고층, 고밀화의 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거와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내부의 자연과 기준 경관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85년 그리스 문화부장관 Melina Mericuri가 문화도시를 발의하였고, 2002년 조지메이슨 대학교수 Richard Florida가 창조도시를 제안하였다. 문화도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적용되었고, 창조도시는 하이테크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다. 최근 두 유형의 도시가 통합되어 창조문화도시 형태로 발전되었다. 창조문화도시는 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도시의 고유성을 담아 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TOD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TOD는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기점을 중심으로 국자적으로 고밀도개발을 추구하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통행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인프라에 대한 부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방법이다.

서구에서 발전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도시에서의 생활환경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저탄소·녹색성장의 개념을 통해 확실해진다.

저탄소·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며, 녹색기술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페러다임으로서 2005년 UN ESCAP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개념이 추구하는 바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을 통해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 인식이 강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거부감이 큰 편이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녹색성장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은 다양한데, 그 중 '탄소중립도시'란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탄소를 숲 등의 흡수매체로 흡수하여 궁극적으로 발생량을 'zero'로 만드는 '무배출도시'(ZEC: Zero Emission City)를 의미한다. '저탄소도시'(Low Carbon City)나 '탄소저감도시'는 탄소의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의미를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에서 교통은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부문별 온실가스의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4.3%로 월등히 높고, 그 중에서 수송부문은 16.8%로서 산업(40.0%)과 가정 및 상업(25.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석유소비의 증가추세에서 수송부문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에너지 저감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저탄소 녹색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있어서 토지이용분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통의 발생은 토지이용이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활동의 분포로 인하여 교통의 발생, 수단의 선택, 통행시간, 거리, 비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교통은 이를 위한 토지이용의 분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Newman과 Kenworthy(1990)에 의해 수행된 고밀집중 토지이용분포와 낮은 교통에너지 소비의 실증적 연구는 Compact City 이론에 힘을 실었고, 단핵집중형 공간구조를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한 공간구조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저밀분산 공간구조와 고밀집중 공간구조 사이에는 밀도뿐 아니라 분포의 패턴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며, 유사한 밀도와 분포패턴에서도 교통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구조를 토지이용의 분포와 함께 평균교통거리를 비교하여야 한다. 같은 공간구조에서도 평균교통거리를 줄이는 방안은 교통정책과 함께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녹색교통을 위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공간구조는 교통뿐 아니라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거시적 및 미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요소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도시에 대하여 예외 없이 농밀한 형태로 제시될 수 없다. 도시별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원활한 도시활동을 위하여 도시교통이 필수불가결하다면 교통 자체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승용차를 대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TOD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OD의 기본 모델에 따르면 역 반경 600m 이내의 보행이 편리하고 페적하도록 생활권을 형성하되, 역세권의 중심에 공공시설, 광장,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을 입지하도록 하여 역의 이용을 편리하도록 하고, 역인접을 고밀복합으로 개발하여 잠재적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역세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자동차와 교차되지 않도록 가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세권 공간은 역연접부, 역세력권, 역보행권, 역생활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역연접부에는 주거를 포함하여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광장과 환승시설을 설치한다. 역세력권은 상업중심으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역보행권은 고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도록 하고, 역생활권은 배후지역으로서 단독주택, 균란공원, 학교 등을 설치한다.

TOD를 위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은 3D 요소(Density, Diversity, Design)에서 시작한다. 각 요소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고밀도(Density)의 원칙으로서 대중교통의 역세권을 고밀도로 할 경우 해당 역 또는 정류장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는 잠재적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밀도를 무작위로 높이지 않고 대중교통의 역세권에 있어서의 밀도를 높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복합용도(Diversity)의 원칙으로서 대중교통 역세권을 토지 이용 용도를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은 역세권을 목적지로 삼는 통행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역세권에 다양한 기능이 제공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는 한 번의 통행을 통해 여러 통행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통행을 절약할 수 있고, 대중교통 운영자로서는 비침투 시 대중교통 통행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복합용도를 통하여 역세권의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일정 임대로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 개발이 용이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녹색교통(Design)의 원칙으로서 대중교통의 역과 정류장에 인접한 권역을 고밀·복합으로 개발하게 되면 혼잡과 고밀에 대한 시각적 거부감으로 사람들이 기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인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장소마케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고밀·집적된 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열섬효과를 고려하여 오픈스페이스와 수직적 녹지 조성을 통하여 도시미기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까지 보행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연계성뿐 아니라 지형, 날씨, 기온 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시간을 줄이고 페적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주차장을 제한하여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의 이용조건이 더 유리하게 해야 한다.



TOD 단지설계의 좋은 사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건물과 일체되어 편리한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 사례(나고야)를 볼 수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지하철 이용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설계기법이다. [그림1]

다마 신도시의 미나미오자와 역에 설치된 보행자 친화적인 캐노피 시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우천과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지하



[그림 2]



[그림 3]



[그림 4]

철 이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시설이다. [그림 2]

역시 다마신도시의 미나미오자와 역 주변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사례이다. 역까지 도달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만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행시간을 절약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3]

동경 시나가와 재개발지구에서 볼 수 있는 Skyway의 사례이다. 역 사에서부터 개별 건물까지 같은 레벨로 연결하여 건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설계기법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 이용자는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 4]

일본의 사례를 최근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시설과 열핏 비교한다면 매우 유사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시설설치의 목적이 대중교통의 이용률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세권의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을 간과한 결과, 대중교통 역세권의 개발은 사업성의 관점에서 단편적이고, 추상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지금까지 개발된 역세권을 살펴보면 철도이용 편의증진시설의 제공에 국한하여 역세권이 개발되었거나,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에 치우쳤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역세권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을 수단으로 삼아 최종 통행 복직지인 건축물까지 노달하는데 있어서 대중교통과 보행을 이용한 통행이 승용차를 이용한 통행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며, 페스티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중교통의 이용률 제고 목적의 역세권의 개발을 위하여 행정지원의 질차를 강구함으로써 복잡한 역세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절차를 도시계획 관련 법에 의제하거나 개발 연혁가 과정에서의 지자체의 과도한 공공시설 설치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연계 교통체계의 구축과 개발사업의 촉진을 도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3-2.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3-2. Sustainable Land Use and Site Planning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을 지나왔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삼한사온이라는 겨울철 기후특성은 이미 멀어진 것 같다. 실제로 중년을 넘기는 사람들은 어린 때 기억 속의 한반도 기후와 현재의 기후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NASA에서 촬영한 북극빙하는 채 30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설란 가까이 녹아내렸다. 올 겨울의 한파도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 찬 제트기류가 남하하는 현상이라는 학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겨울철 한파도 시구온난화 때문이라니… 매년 여름에 홍수가 날 때마다 이번 홍수는 인재다. 하천복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와 우리의 환경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런 환경의 변화나 재앙이 모두 인간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산업의 발달, 인구와 교통의 증가 등 인류가 초래한 문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근대 이후의 인간중심적인 가치관과 기능주의의

석 건축방법에 대해 반성하고 자연으로부터 의미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생태학적 디자인의 핵심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시작인 것이다. 라일(John Tillman Lyle)은 산업 혁명 이후 금전적 부와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술시대를 "고대기술시대(paleotechnic era)"로 지칭한다. 그는 이제 이러한 조악한 기술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자원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sustainable system)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실천적인 "적절한 기술력(appropriate technology)"을 사용하는 "신기술시대(neotechnic age)"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황폐화된 환경을 "재생하는 디자인(regenerative desig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이 화석원료를 사용하기 전 대부분의 자원을 지역에서 획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던 전통적인 삶의 실천방법들에 주목하면서 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정주환경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도시, 단지, 건축 등 다양한 수준의 디자인 단계에서 자연의 원리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인간편의와 금전적 경제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익숙한 현재의 디자인 방법과 기술이 아닌 기후와 생태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인 디자인 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환경들이 작동하는 원리, 상호작용과 영향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외부공간을 바라볼 때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은 미기후를 조절하는 방법,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량의 축소, 그리고 녹지와 수공간의 연계에 의한 자연적인 순환과정의 복원까지 폭넓고 종합적인 스펙트럼을 가진다. 여기에 더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제로에너지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한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기후(Microclimate)



Stuttgart, Germany (바람길)

변동, 건물 주위의 오염물질 변화, 열전도율의 변화, 도시기온 상승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 전원지역에 비해 온도가 1~2°C 정도 높다고 한다. 이는 건물, 교통, 산업부문에서 열을 발산하고 건물들이 바람을 차단하며, 도로나 건물의 표면마감재가 열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다.

지형, 지물, 지표면, 건물이나 벽, 나무 등과 같은 3차원의 물체들이 모두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잘 디자인함으로써 미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풍향 및 풍속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일광을 조절하여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튜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도시열섬화 및 대기오염 문제를 바람길을 통해 해결하였다. 도시 남서쪽 산림지역 계곡에서 도시 내부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도시 중심부로 끌어들임으로서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도시 밖으로 배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이다. 기류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 바람통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광장이나 녹지를 조성하였다. 주변건축물을 고도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정원을 매입하여 녹지를 확대하고 공공건물의 육상에는 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 중앙부에 150m 폭의 녹지대를 조성하였다. 또한 도시 내 폐공장부지, 폐경지, 짜투리 땅 등을 찾아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 내 녹지 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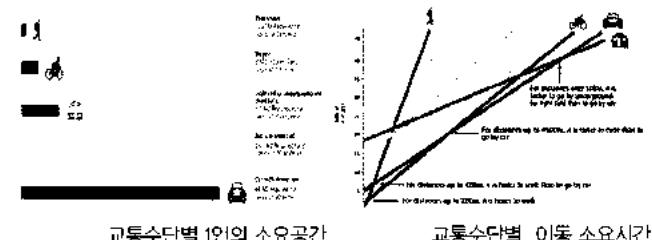
교통(Transportation)

교통부문은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많은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도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차량이

증가하고 도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생물이 서식하는 숨 쉬는 땅은 축소되고 대기오염이 가중되어 에너지 요구도 증대된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일 때는 오히려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차량보다 빠르다고 한다. 따라



Millwood, Canada 트램



교통수단별 1인의 소요공간

교통수단별 이동 소요시간

서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디자인의 배려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밀우드는 도심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도심으로 연결되는 아주 폐쇄적 트램을 건설하였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무인자전거대여시스템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녹지공간

숲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숲은 단순한 레저와 경관요소만이 아니라 자연의 소중한 자원인 물과 땅을 보호하고 온도를 낮추거나 습도를 조절하는 등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기나 땅 속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다른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도로변에서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늘을 드리워주고 산사태도 막아준다. 녹지가 태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잔디·일색의 단일화된 녹지가 아니라 초화류, 관목, 교목이 다층적 구조를 이루는 녹지공간이 선호된다.

또한 건물 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녹지를 형성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에서 건물벽을 타고 올라가 지붕까지 연결되는 수직그린네트워크(vertical green network)가 대안적인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배출된 CO₂를 스스로 흡수하는 유일한 존재는 녹색생물 뿐이다.

수공간과 수순환

수공간은 토지이용의 경계를 이루는 경관요소이자 우수와 생활하수의 자연정화지이며, 중발에 의한 냉각효과와 습도조절효과로 미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환경요소

인 수공간을 이루는 수자원의 보호와 자연적 순환과정의 문제는 생태학적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생태적 환경관리론자들은 우수, 하수, 변기세정수를 분리하여 인공습지 등으로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비용을 60~9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수는 자연 침투시키거나 재이용하고 하수는 갈대밭 등으로 대지내에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간에서도 가능하면 우수를 재이용하고 불투수면적을 축소하여 자연 침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모색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통독 이후 포츠담 광장을 개발하면서 인근건물들의 지붕우수를 공동집수하여 연못용수로 활용하고, 연못의 수생식물로 정화하여 도시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광범위한 수순환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시는 도시 전역을 흐르는 열린 수로를 통해 도시환경을 조절하고 자연형 수순환을 유지하여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다.



Freiburg, Germany 수로

에너지 생산

외부공간의 녹지, 수공간 등을 대지 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건축기준 강화 추이는 단순히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려는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 대지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문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에너지 요구량 저감 노력에 기반하여 대지 내에서의 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적 에너지생산 시스템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유형, 대지의 위치, 지역의 미기후적 특성, 유릴리티 요금, 세금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은 인접 지형, 지물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 충분한 일사시간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풍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연평균 풍속이 4m/s가 확보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자연에너지가 과연 효율성이 확보되는 지에 관한 충분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대지 계획 (Integrated Site Planning)

위와 같은 외부환경디자인의 주요 이슈들이 대지계획에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적용될 때 최적의 계획안이 제안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계획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해당지역의 토지현황 및 기후에 관한 분석과 이해이다. 분석요소로는 대지의 크기, 지형, 경사도, 토양, 배수, 계절별 주풍향, 온습도,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조와 음영, 풍향과 풍속, 강수량, 연간 일사량, 현재의 식생, 보존 가치가 있는 종의 분포 등 다양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한다면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는 있다. 최근에는 기후정보들을 모아 기후적인 특성과 환경조절 전략을 가이드해 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빛, 바람, 에너지 풍 날로 복합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프로젝트로 인해 경험적인 판단만으로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환경 성능을 예측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제는 건축가가 직관에 의지해서 디자인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환경 등 여러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외부공간의 현황과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외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융화된,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물내부 거주공간의 건강과 쾌적함, 에너지 저감의 목표까지 달성하는 통합설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축가는 어느 때보다 더 여러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복합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갈 협명함도 가져야 한다. 건축가는 인간의 정주환경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계획가로서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와 철학을 구현해내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소식 NEWS

협회소식

우리협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29대 강성익 회장으로부터 재직기념패를 전달받는 제28대 최영집 회장

우리협회는 지난 3월 7일(월)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내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대한건축학회 이연구 회장, 학교건축가협회 이광만 수석부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광현, 류춘수 위원과 유병권 기획부단장 등 내외 구빈, 협회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취임식은 제28대 최영진 회장의 이임사로 시작하여 제29대 강성익 회장의 취임사로 이어졌는데, 최영집 회장은 이임사에서 “2년 동안 전국 1만여 건축사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축사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열어갈 수 있으며, 내한건축사협회가 어떻게 하면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였다”며, “앞으로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루시 곳한 모든 일들이 발전적으로 질 원수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28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직을 마감할까 한다. 이 자리 떠나 드 언제나 협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제29대 회장 강성익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느 주문가인

체보다 힘 있는 단체로 기능나서 회원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잘못할 때는 질책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는 용기를 주를 바란다. 생각보다는 실천을, 운건보다는 투자를 앞세우고 함께 뛰고, 비장한 각오로 이 어려운 건축계를 혼자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임기를 마친 전임 위원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했고, 신임 위원들의 스개가 이루어졌으며, 전임 최영집 회장과 신임 강성익 회장은 협회 기 전달이 진행됐다.

한편, 대한건축학회 이연구 회장은 “세가 학회 회장 취임 후 1년 동안 회회장님과 만난 횟수를 생각해보니 족히 30번은 되는 것 같다. 한국건축단체연합과 건축계 전반에 대해 열성을 쓴은 회회장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취임하는 강회장님은 외우내강의 카리스마를 갖고 계시다고 말을 들었다. 앞으로 2년간 협회발전과 손소개 발전을 위해 일로 대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식후 만찬에서는 이취임을 축하하는 송기역 고문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식을 마쳤다.



지난 2년간 협회를 위해 노력해 많았던 응원들과
앞으로 협회를 이끌어 갈 신임원들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제45회 정기총회

제29대 회장에 강성익 회원, 감사에 이영호 회원 당선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5일 경주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446명 중 431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을 비롯한 5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오전 10시 15분 최종집 회장의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국은의례 및 애국가 제청, 순국선열 및 유명을 달리한 회원에 대한 묵념과 이재문 아시아건축시협의회 회장, 쿠렐바나르 에디네사 이칸 몽골건축사협회 회장, 빗자 빙쿠약 몽골건축사협회 직전 회장, 리잔드로 드라 가르사 빌라레알 엑시고건축시협회 직전 회장 등이 소개됐다. 이어 우리협회 최영습 회장은 개회사에서 "본인이 취임 이후 지난 2년은 쉼 없이 걸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정부, 국회, 언론매체에 건축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칭찬해주는 건축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전도사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며, "오늘 총회에서 협회가 미래지향적으로 활동적으로 운영되어 발전해나갈 여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건축사와 협회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고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내외빈의 축사가 있었으며, 멕시고건축시협회 리잔드로 느라 가르사 빌라레알 직전 회장과 몽골건축사협회 쿠렐바나르 에디네사 이칸 회장 및 밤자 빙쿠약 직전 회장, 아시아건축시협의회 조지 쿠니히르 회장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였고, 감사패 및 공로대, 단체표창, 표창장 및 장학증서 등이 수여됐으며, 특히 공제조합 설립 이후 첫번째 보증서 발행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뜻깊은 지리를 마련했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4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한 다음 주대회원에 대한 추대 보고, 주요안무 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두의안건 상정에서 총 5개의 인건이 심정됐는데, 특히 제1호의안인 '정관 개정의 건'이 쟁점으로 대의원들은 열띤 논의 끝에 축소승인됐다. 최대관심사였던 제5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한명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의장직을 맡아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고, 강성익(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이 제29대 회장으로 선출 됐으며, 감사선출에서는 이영호(주·새롬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어 10인의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됐다.

제45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3조 : 원안 승인
- 제5조 : 일부 수정 승인
- 나머지 조항 : 부결됨

* 제6조(시업) 수정 승인사항

③ 제2항의 '다한건축시협회 건축시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협회의

지도·감독의 범위는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④~⑥ 현행 제3항 너지 제5항과 같음.

■ 제2호의안 : 201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협회발전기본계획 3차년도 실천계획수립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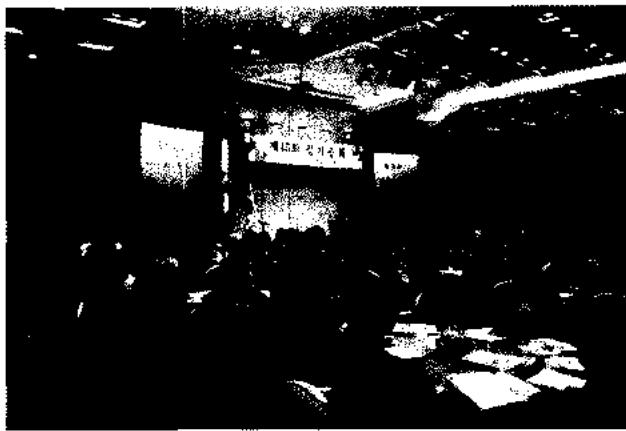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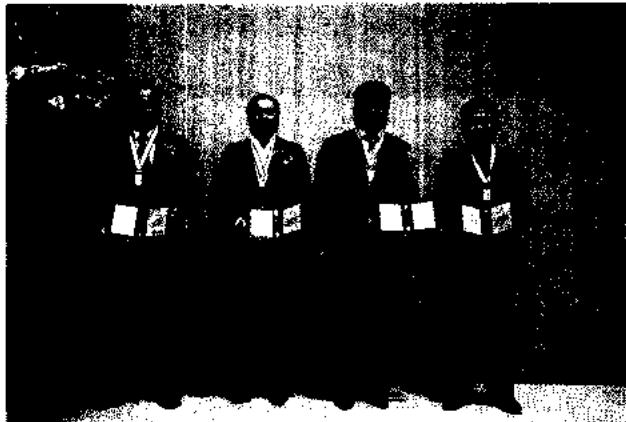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강성익 회원
- 감사(1인) : 이영호 회원
- 이사(10인) : 신임 회장에게 위임함



제45회 정기총회 전경



명예회원증 수여(좌로부터 리잔드로 느라, 빙쿠약, 쿠렐바나르, 조지 쿠니히르 회장)



제29대 강성익 회장

선임 임원

이사 김윤
 (수)아이밸 송합건축사사무소
 홍익대 건축학과
 현대건설 종합설계실 근무
 전 BUL승사위원 및 정부총
 견토위원회 위원



이사 김형년
 (주)예창 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수)서울건축 협회
 전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이사



이사 신춘규(중임)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RICHARD TROTT &
 PARTNERS ARCHITECTS, INC.
 현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이사 이각표(중임)
 (주)엄앤디 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김사
 전 성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이사 정익현
 예전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진 충청북도건축사회 이사
 전 충청북도 건축심의위원



이사 정태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일산설계 대표이사 역임
 현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사 조충기
 건축사사무소 긴양
 흥교대학교 대학원
 (주)창의정 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법제위원장)



이사 조성원(중임)
 (주)대우 건축사사무소
 경원대학교 대학원
 전 강기도건축사회 회장
 현 건축사자격 심의위원
 (국토부)



이사 최광식
 우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을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우성건설 설계부 근무
 선 을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사 황정복
 예문 건축사사무소
 간국내학교 내학위 건축공학과
 한 수원시건축사회 회장
 한 김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우리협회는 지난 3월 16일(수)에 개최된 2011년도 제3회 이사회에서 부의안건 중 <제2호의안 :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한 바 비상근부회장으로 이각표, 조성원 이사를 선임하고,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서울건축사회 정기총회(3월 24일)에서 선출된 회장당선자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감사

(주)새롬종합 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현 한국도시·설공단
 응지매수대책위원회 위원

감사

이무열

감사 이영호(신임)

현임 임원

상근부회장 이용락

비상근부회장 이창율

상근 이사 전영철

이사 권연하

이사 김의중

이사 신동출

이사 심우석

이사 안택영

이사 정부교

이사회

제2회 이사회

2011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인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의 노래) 선정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제도 도입의 건,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폐지의 건,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시 읽고로 등의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보수규정 개정의 건, 201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협회발진기 분계 획 3차년도 실전계획 수립의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5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정기총회 포침 수여의 건, 2011 건설의 날 프상후보자 추천의 건, 시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및 직권폐업자와 미납회비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의 노래) 선정의 건
 - 「건축사의 노래」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협의와 공모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차기 집행부에 의임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정관개정(안)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함.
- > 제5조(사업) 제2항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에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 협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로 수정
- > 제16조(정회원투표)
 - 정회원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정회원 과반수 참여'를 '정회원 3분의 1 이상 참여'로 수정
- > 제53조(추대회원)
 - 추대회원의 자격을 '정회원 자격을 30년 이상 유지한 만 70세 이상인 자'를 '성회원 자격을 35년 이상 유지한 자 또는 정회원 자격을 30년 이상 유지한 만 70세 이상인 자'로 수정
- 제2호의안 :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제도 도입의 건
 -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운영규정을 원안대로 제정하고, 이에 따른 특별상(현암건축상)을 신설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폐지의 건
 - 안건의 제목을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의 건'으로 변경하고 제24조의 '총회'를 '이사회'로 개정하기로 함.
 - 상기 '프레스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시지 원고로 등의 지급에 관한 세칙 개정의 건
 - 제8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 제8조(광고비 등)

‘편집위원장의」 → ‘편집국장(편집위원장)을 거쳐 발행인의」

- 제5호의안 :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용어변경 : 연회비 → 경력관리비
- 제6호의안 : 보수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직원퇴직급여 : 연단위 지급 → 연단위 또는 월할 자급
- 제7호의안 : 201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서45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8호의안 : 협회발전기본계획 3차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 원안대로 제45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9호의안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건축시지 및 건축문화신문은 현행대로 발간 및 배송하고, 이에 따른 예산 세수조정은 회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제45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10호의안 : 제45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1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제45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12호의안 :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 회장단(회장 입후보자 제외)에 위임함.
- 제13호의안 : 2011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단(회장 입후보자 제외)에 위임함.
- 제14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및 직권폐업자의 미납회비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

일자	건축사회	시간	장소
3/4(금)	광주	10:00	신양파크호텔
3/3(수)	충북	10:00	청주 선프리자 분관
3/10(목)	충남	10:30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
3/16(수)	전남	11:30	광양시 플레모호텔
3/17(목)	전북	10:00	전주 코아 리 베라호텔 1층 빅제홀
3/18(금)	대전	10:00	대전 오페라웨딩 4층 칸·밸션홀
	대구	16:00	가창 스파밸리 1층
3/22(화)	경남	10:30	창원로팀 목련홀 3층
	강원	10:00	춘천 베어스 관광호텔 2층 소암홀
3/23(수)	제주	16:00	제주 칼 호텔 2층 회의실
	부산	10:00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24(목)	서울	14:00	본협회 1층 대강당
	인천	10:00	인천 보일호텔 본관 그랜드볼룸
	경기	10:00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
	경북	10:30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3/25(금)	울산	16:00	울산 MBC 컨벤션 아모레홀

위원회 개최 사항

■ 제1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제1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계획(안)의 건

– 일 시 : 2011. 5. 20(금) ~ 21(토) (1박 2일)

– 장 소 : 광주광역시

– 인원 : 약 80명 (예정)

■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1회 상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장학생 심의·결정의 건

– 원안대로 장학생을 결정키로 함.

▷ 장학생 명단

- 김재현(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 유재현(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
- 우성준(복旦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 구형모(삼육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

■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권리의 건

– 제29회 화상선거 및 2011년 감사선거의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 선기인명부 작성

▷ 투표용지 확인

▷ 참관인 신고

▷ 무표·유호투표 유권해석 마련

▷ 흐보자 연설순서

▷ 특표방법

■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종료의 건

– 선거일로부터 3일이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음에 따라 선거사무를 종료하고, 투표용지는 폐기처리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함.

- 제2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의의 건

– 임원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도록 한

■ 제1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1회 세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성부인 예산안변경 및 기금운용계획안 식성시정,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안)에 관한 건

–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2011년도 자침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기존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미반영된 내용이 2012년도 자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기관소사설계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 내에 기획입부 및 설계공모운영비 내용을 신설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는 예산 편성방법 제시

▷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업무시 비용산정 신설 실시설계면 분리하여 별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토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업무비율을 25.35:50에서 25.35:70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2011년도 자침의 체계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하나면 제3법제위원회가 기자부 담당부서 동행하기로 함.

■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소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제3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 실사 계획 및 수여식 개최의 건

– 제3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 실사 기간은 '11.3.22(화) ~ 3.31(목)'으로 협의함.

▷ 실사위원 : 이근창, 임재용, 황우진, 한종률 및 소인숙(간사 선임 예정)

– 수여식 개최 일자는 2011년도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에서 '11.5.31(화)'로 정해진바, 수여식 일정에 포함될 계속 교육 관련사항은 간사가 현재까지 개최되었던 수여식의 계속 교육 관련 사료를 검토 후 테마 및 연사를 추천할 예정.

- 제2호 :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신임간사 선임의 건

– 신임간사로 조인숙 건축사가 추천되었음.

▷ 세2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될 예정이며, 협회장께 보고 후 간사를 위촉하기로 함.

- 제3호 : 2011년도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운영계획의 건
2011년도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11.1.11(화))에서 상한대로, 실사위원 및 일차를 김지덕 위원장이 정하였음.

■ 제2회 국제위원회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국제교류 사업계획의 건

– 2011년도 국제교류 일정과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이되. 중국건축학

회 방문 및 협약체결은 지난 UIA 베이루트 이사회에서 중국 측 이사로부터 4월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는 UIA 임원회의(4.11~12) 시기 예 및 추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받은 바 있으므로(심재호 UIA 이사) 추진 여부를 회장과 협의하기로 함.

- 유럽건축사회협의회(AOE)와의 교류 추진은 한-EU FIA 협상체결과 관련 한국에서의 Working Group 실무회의 개최 추진을 논의하다가 중단된 바 있으나, 유럽과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은 위해서는 ACE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다시 고려하기를 제안함.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협약(MOU) 체결은 현재 체결 중인 단체의 경우에는 향후 구체적인 교류 추진 방안을 국제위원회에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회원들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들도 추가로 성리하여 향후 국제교류 추진이 일정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국제위원회의 의견을 건의하기로 함.
-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위원회 국제교류 사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정리하여 차기 국제위원회에서 정보공유, 신입위원 교육, 업무분장 등에 활용할 있도록 메뉴얼을 작성하기로 함.
- 국제 교류사업의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 국제위원회 활동 개선방안 및 2010년도 감사 결과의 건
- 국제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제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치계획을 제안함.

협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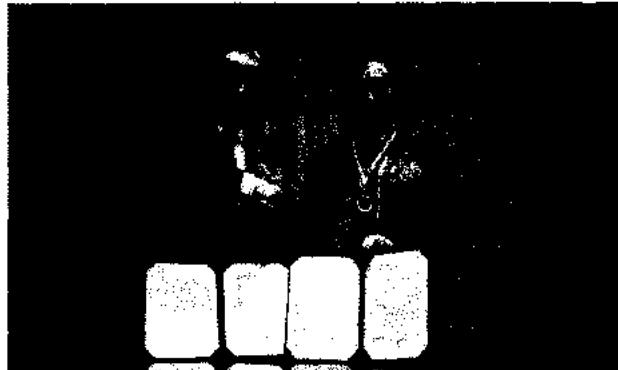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 일본 JIA와 JFABEA에 지진 피해 안부 서신 전달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은 최근 일본의 강진 및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 지난 3월 11일 일본건축가협회(JIA)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에 안부 서신을 보냈다. 강성익 회장은 JIA 탓로 아시하라 회장과 JFABEA 마사야 후지모토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저와 본 협회 모든 회원들은 이번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 및 쓰나미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모든 JA 회원 및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JA 회원과 모든 일본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성익 회장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JA, JFABEA 건축사들과 일본국민들을 돋기 위해 노력을 할 것과 협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멕시코건축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 MOU 체결

지난 2월 24일 우리협회는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잔드로 드라 가르자 벌라레알 직전 회장과 건축단체 간 업무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양 단체



간 건축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MOU를 체결했다. 특히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잔드로 드라 가르자 벌라레알 직전 회장은 중남미 국가 건축인으로서 최초로 협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우리협회는 몽골과 멕시코 두 단체 회장과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 회장에게 2월 25일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에서 명예회원증 및 프레지덴셜 메달을 수여했다.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 특별전형시험이 오는 5월 15일(일)에 시행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오는 4월 20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인터넷(www.kira.or.kr)으로만 접수된다.

합격 예정자는 5월 27일(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내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건축계소식

제8회 도쿄모보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도쿄모보코리아는 여덟 번째 공모 주제를 ‘캠프 하야리아의 미래는’으로 정하고 부산진구 범전동, 연지동 일원의 부지에 캠프 하야리아의 반값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 100여년 동안 비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미군부대가 우리 공간으로 돌아옴을 알리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굴곡진 근현대사와 그 안에 녹아있는 삶의 진지한 고민을 기저다줄 이번 공모전은 그 동안 잊고 지낸 것들에 대한 가치와 그 가능성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캠프
하야리아의
미래는

회 방문 및 협약체결은 지난 UIA 베이루트 이사회에서 중국 측 이사로부터 4월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는 UIA 임원회의(4.11~12) 시기 예 맞추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받은 바 있으므로(심재호 UIA 이사) 추진 여부를 회장과 협의하기로 함.

- 유럽건축사회협의회(AOE)와의 교류 추진은 한-EU FIA 협상체결과 관련 한국에서의 Working Group 실무회의 개최 추진을 논의하다가 중단된 바 있으나, 유럽과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은 위해서는 ACE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다시 고려하기를 제안함.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협약(MOU) 체결은 현재 체결 중인 단체의 경우에는 향후 구체적인 교류 추진 방안을 국제위원회에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회원들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들도 추가로 성리하여 향후 국제교류 추진이 일정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국제위원회의 의견을 건의하기로 함.
-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위원회 국제교류 사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정리하여 차기 국제위원회에서 정보공유, 신입위원 교육, 업무분장 등에 활용할 있도록 메뉴얼을 작성하기로 함.
- 국제 교류사업의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 국제위원회 활동 개선방안 및 2010년도 감사 결과의 건
- 국제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제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치계획을 제안함.

협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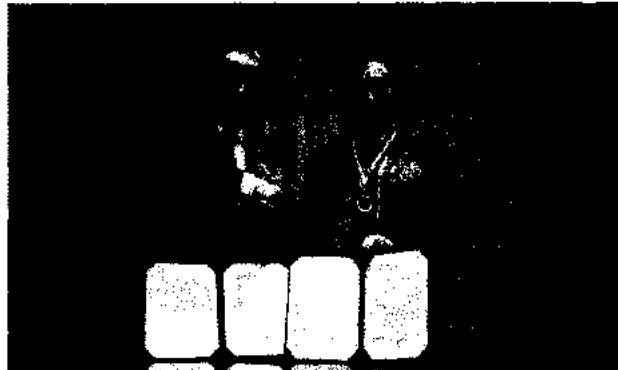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 일본 JIA와 JFABEA에 지진 피해 안부 서신 전달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은 최근 일본의 강진 및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 지난 3월 11일 일본건축가협회(JIA)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에 안부 서신을 보냈다. 강성익 회장은 JIA 탓로 아시하라 회장과 JFABEA 마사야 후지모토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저와 본 협회 모든 회원들은 이번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 및 쓰나미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모든 JA 회원 및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JA 회원과 모든 일본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성익 회장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JA, JFABEA 건축사들과 일본국민들을 돋기 위해 노력을 할 것과 협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멕시코건축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 MOU 체결

지난 2월 24일 우리협회는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잔드로 드라 가르자 벌라레알 직전 회장과 건축단체 간 업무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양 단체



간 건축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MOU를 체결했다. 특히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잔드로 드라 가르자 벌라레알 직전 회장은 중남미 국가 건축인으로서는 최초로 협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우리협회는 몽골과 멕시코 두 단체 회장과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 회장에게 2월 25일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에서 명예회원증 및 프레지덴셜 메달을 수여했다.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 특별전형시험이 오는 5월 15일(일)에 시행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오는 4월 20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인터넷(www.kira.or.kr)으로만 접수된다.

합격 예정자는 5월 27일(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내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건축계소식

제8회 도쿄모보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도쿄모보코리아는 여덟 번째 공모 주제를 ‘캠프 하야리아의 미래는’으로 정하고 부산진구 범전동, 연지동 일원의 부지에 캠프 하야리아의 반값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 100여년 동안 비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미군부대가 우리 공간으로 돌아옴을 알리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굴곡진 근현대사와 그 안에 녹아있는 삶의 진지한 고민을 기저다음 이번 공모전은 그 동안 잊고 지낸 것들에 대한 가치와 그 가능성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캠프
하야리아의
미래는

가 되리라 본다.

- 등록기간 : 2월 21일 ~ 4월 15일
- 작품접수 : 5월 26일(경성대학교 체육관)
- 심사발표 : 5월 31일
- 문의 : 070-8224-0502 / www.docomomo-korea.org

주한프랑스대사관, 2011 장프루베-김중업 장학생 선발 공고

2004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표적 건축사 김중업의 이름을 딴 프랑스 정부의 '김중업 장학생' 선발이 올해부터는 '장프루베-김중업'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프랑스 현지 건축사사무소와 3개 월간 협력 작업을 시행했던 '김중업 장학생'은 올해 1명을 더해 총 2명을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실내건축 분야이며, 모집대상은 35세 미만의 실무종사자 또는 건축대학 5학년 이상 또는 대학원 재학생(2011년 4월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불어 혹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프랑스 현지 관련 사무소에서 올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습 및 체류비(1인당 총 4,000유로)를 현지에서 지급한다.

1차 심사는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2차는 면접,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온라인 사전접수는 4월 6일까지, 서류제출은 4월 8일까지이다.

• 문의 : <http://cafe.naver.com/frarchi>

KCC 창호,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KCC 창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해 제품 생산·수송·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인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고,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탄소성적표지는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정수 획득에도 기여하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CC창호의 이번 탄소성적표지는 창호업계 최초 획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KCC 창호는 기밀, 수밀, 단열, 방음, 내풍압성의 5대 성능이 우수하다. 우수한 기밀재와 다양한 두께의 복층유리 사용, 특수 하드웨어의 우수한 밀폐성능으로 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양한 개폐기능의 과학적이고 정밀한 특수 하드웨어의 사용으로 손쉽게 열고 부드럽게 닫을 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에너지 절감이 절실한 시대에 단열성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는 창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므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련되고 차별화된 디자인, 끊임없는 기술개발, 품질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창호로 거듭나고 있는 KCC창호는 한층 업그레이드한 친환경으로 우수한 에너지 절감 기능을 더해왔으며, 2009년 창호부문 사용품질지수 1위에 이어, 2010년에도 사용품질지수 1위를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KCC 창호 이외에 현재 4개의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고 및 고객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KCC는 창호의 탄소성적표지에 이어 석고보드(2월 말), 라미필름(3월), PVC비단재 및 마루재 제품(4월)의 탄소성적표지인증도 추가 획득할 예정이다.

KOC 석스 시그마 BB(Black Belt) 인증자격자 배출



KOC는 용인 중앙연구소에서 시행된 '품질경영본부 전략운영 워크숍'에서 KCC의 선진 품질 경영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에 대한 자격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CC 선진 품질 경영 체제 재정립의 일환으로 노입된 6시그마 자격 인증제는 활동의 수준에 따라 GB(Green Bell), BB(Black Bell), MBB (Master Black Bell)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에 맞는 역할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KCC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KCC는 경영목표로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선진적 품질 경영 체제의 재정립과 이를 통한 글로벌 징밀화학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온 바 있다. '품질'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제품에 국한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품 개개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내의 모든 부문 임직원들이 동참해야만 품질 경영은 완성된다는 것이다.

KCC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품질 역량의 확보에 달려있다는 명제 하에, 전사적 차원의 포괄적 시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보공유를 통한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당 부분 초석을 이뤄냈다고 평가 받고 있다.

KCC는 수준 높은 교육과 사업장 별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개선한 인원에 대해 엄정한 인증 심사를 거쳐 2010년도에 61명의 GB와 2명의 BB를 최종 배출하였다. KCC 관계자는 "탁월한 과제 수행 능력과 우수한 성적으로 BB 심사에서 천안사업장 윤석현 과장과 대죽사업장 김택진 과장이 합격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1월 말

구 분	기타 사무소										건축사사무소										합계
	회원수	사무소수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전체	5,375	5,375	99	198	9	27	5,483	5,600	1,674	1,674	242	484	62	188	24	96	26	167	2,028	2,607	7,511 8,207
서울	901	901	27	54	2	6	930	961	893	893	141	282	42	126	10	40	16	93	1,102	1,434	2,032 2,935
부산	472	472	16	32	2	6	490	510	97	97	18	36	3	9	0	0	3	22	121	164	611 674
대구	426	426	18	36	4	12	448	474	67	67	17	34	3	9	3	12	2	10	92	132	540 606
인천	267	267	2	4	0	0	269	271	66	66	6	12	0	0	1	4	0	0	73	82	342 353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40	40	7	14	3	9	2	8	0	0	52	71	254 274
대전	244	244	4	8	1	3	249	255	36	36	8	16	3	9	1	4	1	5	49	80	298 335
울산	177	177	5	10	0	0	182	187	17	17	2	7	1	3	0	0	0	0	20	24	202 211
경기	740	740	2	4	0	0	742	744	239	239	18	36	3	9	2	8	1	5	263	297	1,005 1,041
강원	175	175	2	4	0	0	177	179	26	26	2	4	0	0	1	4	0	0	29	34	206 213
충북	212	212	4	8	0	0	216	220	31	31	6	12	0	0	1	4	2	15	40	62	256 282
충남	243	243	1	2	0	0	244	245	46	46	5	10	2	6	2	8	0	0	55	70	299 315
전북	242	242	4	8	0	0	246	250	22	22	2	4	2	6	0	0	0	0	26	32	272 282
전남	195	195	1	2	0	0	196	197	19	19	1	2	0	0	0	0	1	7	21	28	217 225
경북	360	360	5	10	0	0	365	370	37	37	4	8	0	0	1	4	0	0	42	49	407 419
경남	404	404	7	14	0	0	411	418	29	29	3	6	0	0	0	0	0	0	32	35	443 453
제주	116	116	0	0	0	0	116	116	9	9	2	4	0	0	0	0	0	0	11	13	127 129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원수	사무소수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합 계	8,207	10	8,217	—	100%	23															
서 울	2,386	3	2,398	—	33.9%	10															
부 산	674	1	675	—	7.9%	9															
대 구	606	0	606	—	7.7%	0															
인 천	353	0	353	—	3.8%	0															
광 주	274	0	274	—	3.7%	0															
대 전	335	1	336	—	3.7%	0															
울 산	211	0	211	—	2.6%	0															
경 기	1,041	2	1,043	—	12.2%	2															
강 원	213	0	213	—	2.6%	0															
충 북	282	0	282	—	3.0%	0															
충 남	315	3	318	—	3.1%	0															
전 룹	282	0	282	—	3.0%	0															
전 남	225	0	225	—	1.9%	0															
경 북	419	0	419	—	4.6%	1															
경 남	453	0	453	—	5.0%	1															
제 주	129	0	129	—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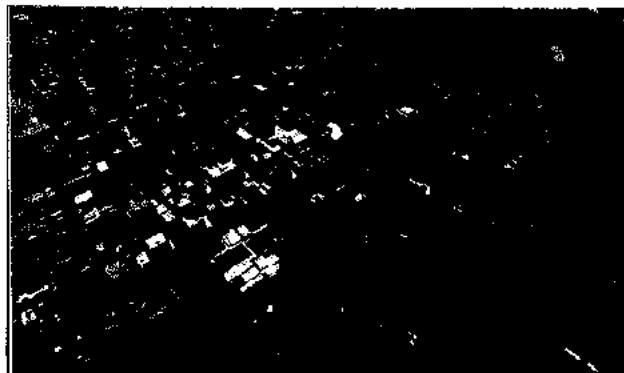
구 分	회원수	사무소수	면적																		
회원수	5,600	2,607	—	—	—	—	—	—	—	—	—	—	—	—	—	—	—	—	—	—	—
비율	68.23%	31.77%	—	—	—	—	—	—	—	—	—	—	—	—	—	—	—	—	—	—	—
사무소수	5,483	2,028	—	—	—	—	—	—	—	—	—	—	—	—	—	—	—	—	—	—	—
비율	72.99%	27.01%	—	—	—	—	—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설계과 조교수 | Kim, Eunmee

스마트-그리드 시티

시카고는 마천루를 개발했다. 이 마천루가
최고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위한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시카고의 난소배출 분석. 건물의 탄소배출 정도에 따라 가장 짙게 배출하는 빌딩을 녹색 그 다음은 노랑, 오렌지 그리고 붉은색 순으로 구분되었다. (Courtesy Adrien Smith + Gordon Gill Architecture)

시카고의 역사적은 스카이라인은 항상 도시 거주민의 자랑이 되어왔다. 그리고 몇몇의 새로운 빌딩들이 최근에 새로 지어지고 있고, 빌딩의 주인들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그들의 빌딩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도시의 특별한 스카이라인 이루고 있는 고층빌딩을 개량하고 현재의 전기 시스템을 최신의 인공지능통신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가상의 녹색 에너지 발전소"로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역 대학의 연구원들은 최신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개발해 오고 있다. 일리노이 기술대학(ILL)의 전기혁신 센터 책임자인 안드류 바르보 씨는 "우리는 시카고를 스마트-그리드 기술 생산과 운용의 허브로 만들길 원합니다. 에너지 생산, 전송 그리고 관리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고, 우리는 시카고가 그것의 핵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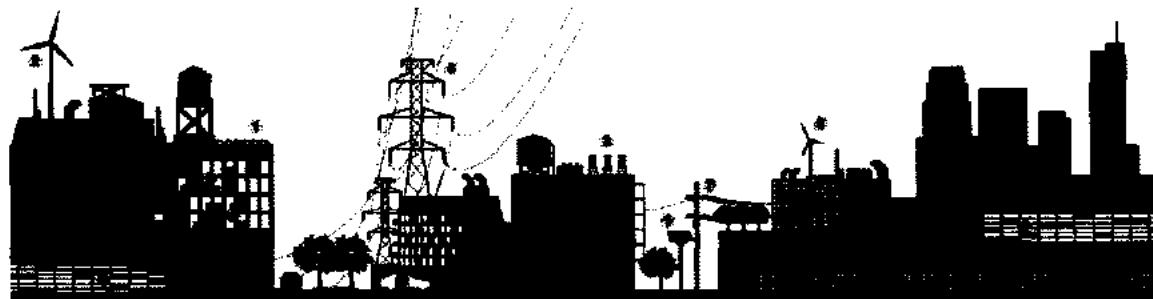
그는 이에 대해 시카고는 미 서부 지역 도시들이 소프트웨어나 IT관련 산업에 힘을 쏟을 동안, 혁신적인 전력시설과 발전 산업 부문에 리더가 되어왔다며 "시카고는 지금까지 전력관련 부문에 강점을 지켜왔고,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실상 시카고는 역사상 가장 큰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발생한 곳이다.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빌딩 주인들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입주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공공부문의 지원과 지역 전력회사로부터의 협조 또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정착하기 적절한 조건이 되었다. 2008년 라처드 달리 시장이 발표한 '시카고 기후변화대책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까지 50%의 산업·상업 건물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맞게 개량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 두바이와 같은 도시들이 인구와 건설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하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새로운 빌딩에 당연한 조건이 됨에 반하여, 시카고는 이미 그 인구의 최고점을 1960년대에 찍었다. 그래서 시카고는 새로운 녹색빌딩 건설에 의존할 수 없다. 시카고는 이미 존재하는 건물들의 개량에 눈을 돌려야 한다.

시카고의 300여 상업빌딩을 대표하는 BOMA(시카고 건물주/관리자 연합)는 ISTC(Illinois Science and Technology Coalition)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 또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BOMA로부터의 한 리서치에 따르면 시카고 시내의 빌딩들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200메가와트에 달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 수치는 한 화력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량과 맞먹는다. '역 탄소화 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포지티브에너지사의 시장 로저 브래쳇 씨는 "더 광역화된 그리드 시스템 하에서 각각의 빌딩들은 하나의 발전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빌딩들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언젠가는 이 빌딩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역 탄소화 계획'은 또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안에 탄소방출을 10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큰 스케일에서 보면 이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좀 더 믿을 만한 에너지를 생산해 낼 것이다. IBM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정전으로 보는 손실은 일조달러에 이른다. 만약 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한다면, 주변의 스마트-그리드는 즉시 여분의 에너지를 그 쪽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수백만불이 들어가는 이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위한 투자유치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7월에, 시카고 건물주들은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ISTC와 CUB(Citizens Utility Board) 그리고 BOMA는 대한민국과 수백만불에 달하는 연구개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당시 LG와 KT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공/사기업들은 시카고와 파트너십을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 이 계약은 비즈니스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위한 일대의 기회인 것 같았다. 그러나 현재 BOMA의 마이클 코나셀리 부회장은 더 이상 한국의 이 프로젝트에 개발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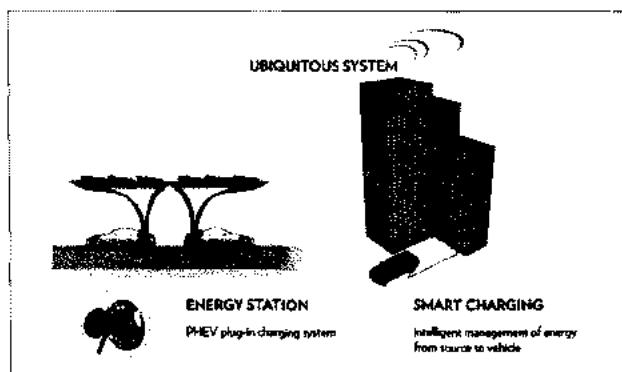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요소 1. 태양광 패널 2. 풍력 터빈 3. 스마트 기기 4. 불필요 기기들을 위한 리모트 컨트롤 5.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 6. 구소 지역 발전기 7. 전력 회사와 사용자 간의 무선 통신 8. 사용량 조회를 위한 웹/모바일 장치 9. 선별보관소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연구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실제로 그 연구개발을 통해 자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너술했다.

AON 밀링을 포함한 초기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실험 프로젝트들이 공/사 단체들에게 경매가 될 예정인데, 코너셀리 씨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이 다시 이 경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한다. 반면에 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와 UIUC(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 Champaign)의 연구원들은 아직 KESR를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7월에 이 대학은 대한민국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연구를 위한 지원과 관련인력개발 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IT는 오랫동안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연구를 이끌었으며, 캠퍼스 내에 1억2천만불의 운용비가 드는 '퍼펙트 플랜트'라 불리우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바르부 씨는 “우리는 솔 더 효율적인 빌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창문에 태양광 패널을 달고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나 집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진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거주자들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산 가격으로 그들의 자가용을 충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가전 기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붕의 태양광 패널과 뒤뜰의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남는 전기를 팔아 수입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운용에 문제점 또한 제기고 있다. 몇몇 소비자들은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개방기기의 라이선스 주파수와 긴장을 해칠 역학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TURN(캘리포니아 기반의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은 PG&E사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시키는 부정확한 스마트 계량기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TURN은 스마트계량기의 사용은 구식 계량기를 혼동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없애 버릴 것이며, 또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포지티브 어너지사의 프레쳇 씨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널씨 몇몇 요소들은 준비가 잘되어있는 반면, 몇몇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다. 시카고에서 UIC 연구자들은 TURN의 재기하고 있는 이슈인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들은 TURN의 재기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통한 일자리의 감소가 그 시스템에 의해 새로 생기게 될 친환경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Clean Energy Trust와 IT는 파트너쉽을 맺고 규모가 작은 기업 혁신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 중인데, 그들은 백만 달러 가량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의 녹색에너지 산업을 위한 충자동으로 제공했다.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개발은 자신의 전기사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생산에서부터 남은 에너지를 팔 수 있는 아이폰 앱에 이르기까지 여러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위한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플리쳇 씨는 “우리는 아직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의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기능을 가진 벽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며, 창과 지붕의 단열재 그리고 빌딩 스킨은 밀노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것들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건축 디자인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이용될 수 있는 디자인이 필리게 될 것이다. 기술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기주자들은 그들의 건물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잘 작동 되는지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객들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때, 단지 에너지를 설악할 수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팔아 이윤을 낸길 수 있는 건물디자인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ISTC의 학생인 매튜 서머 씨는 “사람들은 이미 에너지 효율이 좋은 빌딩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쓰고 남은 에너지로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헌 빌딩에서 생산되고 사용된 후 남은 에너지를 에너지가 필요한 다른 빌딩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남은과 당신의 긴물은 일종의 가상의 빌전소가 되는 것 입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시카고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건축적 그리고 경제적인 유산을 본다. 하지만 몇 년 후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소를 보게 될 것이다. ■

출판도시가 스물두 해 전에 던졌던 ‘부탁의 말’

‘The earnest message’ that Publishing City issuing 22 years ago

이기웅 : Yi, Ki-ung
열화당 대표

약력
· 성균관대학교 졸업
· 현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함부로 글쓰지 않는다 | 함부로 책내지 않는다 | 함부로 짐짓지 않는다

만약에 위의 말처럼 절제심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함부로 생각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구제역 시대’라 할 오늘의 현실에 다시금 화두로 삼을 일입니다. 구제역이라는 짐승병이 끝모를 인간 탐욕의 결과로 나타난 재앙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샌다이-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 해안을 온통 훌뜨려 놓은 엄청난 쓰나미 재난의 뉴스를 들으며 이 글을 씁니다. 아름답던 조그마한 도시들, 포근하던 갯마을 취락(聚落)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인간이 빛나는 문명의 성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옳았습니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양차(兩次)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6년에 쓴 글을 다시 기억에 떠올려 봅니다. 17세기는 ‘수학의 시대’요, 18세기는 ‘물리학의 시대’요,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 명명했습니다. 수학(數學)과 물리학(物理學)과 생물학(生物學)과, 그리고 그 밖에도 화려한 과학기술 문명을 꽂피운 많은 분야들이 인간의 지혜로운 머리에 의해 삶을 윤색하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카뮈의 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20세기를 가리켜 ‘공포(恐怖)의 시대’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나 못된 존재인지, 저 바극의 일차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차대전을 벌이는 파렴치한 존재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知能)이 간교함으로 치닫기 시작하여, 이제는 갈 폐까지 간 듯한 뿡경을 도처에서 연출합니다. 그들이 힘들여 이룩한 과학기술 문명이 결국에는 탐욕과 시기와 오만과 편견과 손잡으면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몸부림을 치는 형국을 벌이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공포는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일까요?

일본의 재앙은 늘 예견돼 왔습니다. 온 언론은 ‘일본열도의 침몰’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이 일본으로 국한될 것입니까? 천만에요. 자연재(自然災)든 인재(人災)든 오늘의 삶, 오늘의 도시문명 속에서는 겉잡을 수 없는 재앙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저는 스물세 해째 파주출판도시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를 어느만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단계 추진을 책임 맡고 있는 처지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결부하여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물두 해 전 출판도시를 받의하면서 던졌던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이 있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절제하고(節制, moderation) 균형 있고(均衡, balance) 조화롭고(調和, harmony) 그리고 사랑(愛, love)으로 가득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만이 갖고 있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도시의 지침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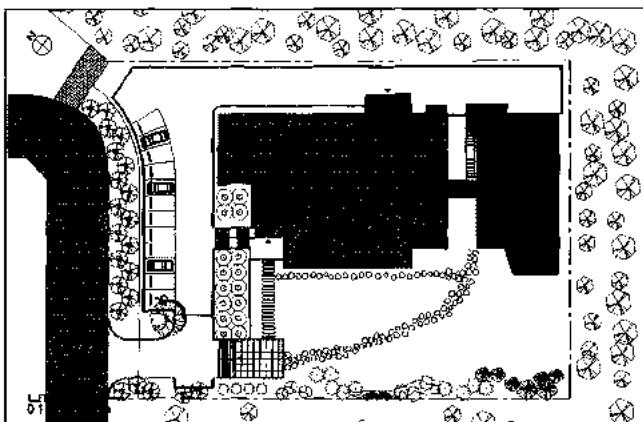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희구합니다.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죽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여, 출판도시는 올해 여름 ‘영성(靈性)의 공간과 기념비성’이라는 주제로 건축기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수도원, 교회, 성당, 묘지, 추념비, 추모기념관 등을 둘러볼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스스로 일컬음은, 어느 생명에 비해 인지능력이 뛰어남만이 아니라 인지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아울러 가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

미야치 코리아 오피스 빌딩

MIYACHI Korea office building

Project team | Kim, Il-young, Lee, Chul-woo
Clinent | MIYACHI KOREA
Location | Gyeonggi-do Hwaseong-si Neung-dong 3860
Site Area | 4,074.50m² Building Area | 1,122.02m²
Gross Floor Area | 2,027.24m²
Building to Land Ratio | 27.54%
Floor Area Ratio | 54.17%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CITY STRUCTURE ENGINEERING
HVAC Engineer | SEOIN/SPACE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 COREMSYS
Building Scope | 3F
Finishing Materials | THK24 Low-E pair-glass, TERRACOTA-TILE
ZINC-PANNEL, METAL-PANNEL
Photographer | Yeom, Seung-hun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건축아이디 — 협동건축 (KA) - 설계구조마석 사건
 Architects – Park, You-jin, KIRA



건축을 만드는 과정에 고려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지의 성격과 주변상황, 사람들로 활동이나 자연에 대한 고려 등 많은 요소가 있다. 이 건물도 호사사체가 가시는 성격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MIYACHI KOREA는 정밀저항융접기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글로벌기업으로 MIYACHI KOREA는 경기도 화성시 풍탄에 새로이 조성된 도시자원 용지에 사용 겸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시설은 본관동과 별관동으로 구성되며, 본관동의 1층은 시务工 및 연구, 휴게실 등, 2층과 3층은 풍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통로를 통해 별관동과 연계하여 1층에 직원을 위한 식당으로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성격상 대우 세밀하고 청탁한 기능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풍선 또한 기공공간의 전개에 따라 단순하게 구성하고 물밀요한 부분은 최소화 하였다.

각 기능의 공간과 동선은 최내한 간결하고 퀄리티하게 구성하였으며 사람에 대한 후성기능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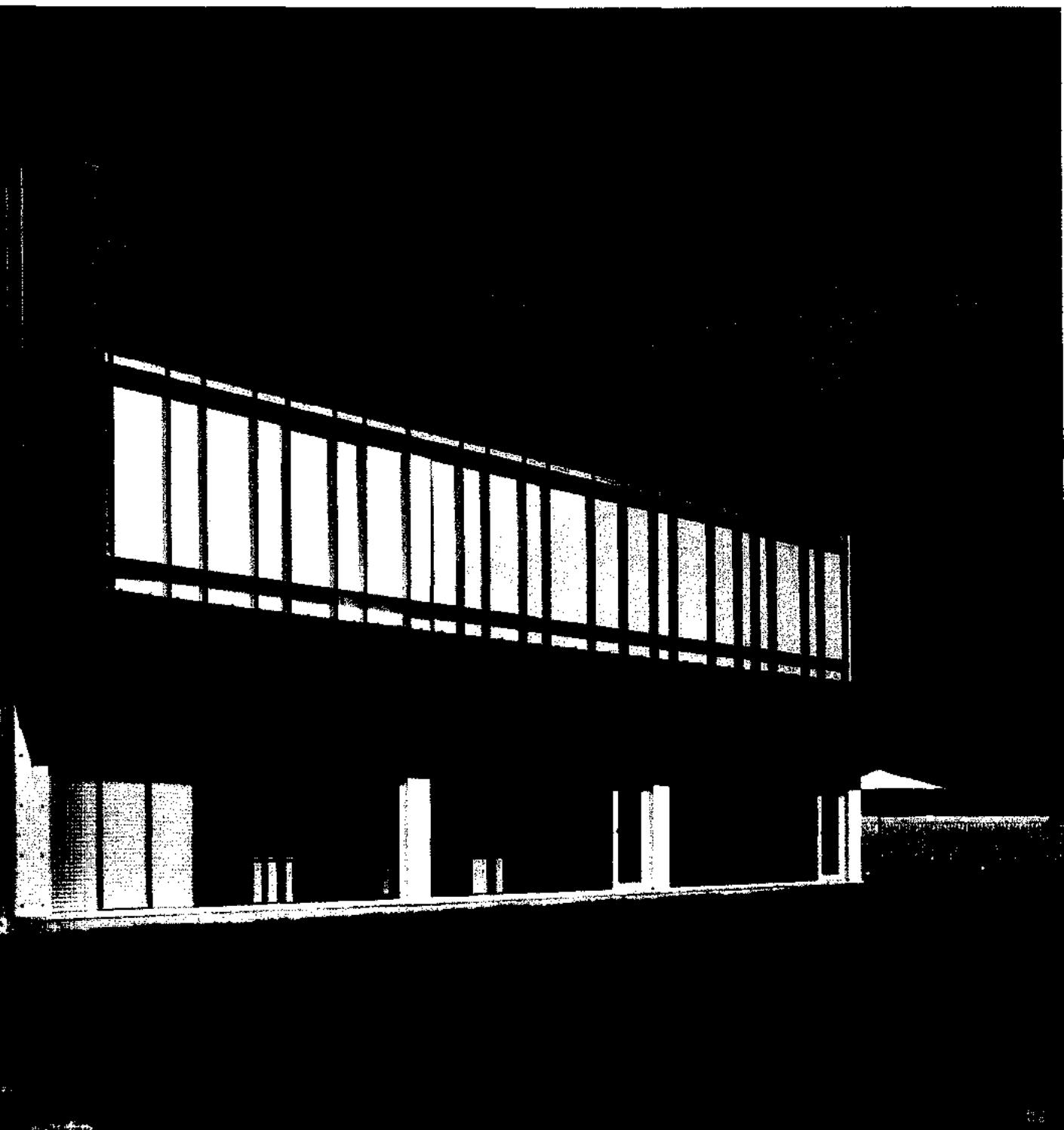
사무공간은 친연창을 주어 잔디마당과 일체화 시키고 휴식공간, 회의공간을 사무실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배려하였다.

건물의 머스는 사무와 공장, 보조시설과 유통공간 등으로 나누는데 각 대수의 세로를 구분하여 기능의 특성을 주면서 서로 아울러도록 조합하였다. 공장과 사무, 시务工를 위한 휴게기능도, 도여 기업을 상징하는 간판을 주변의 자연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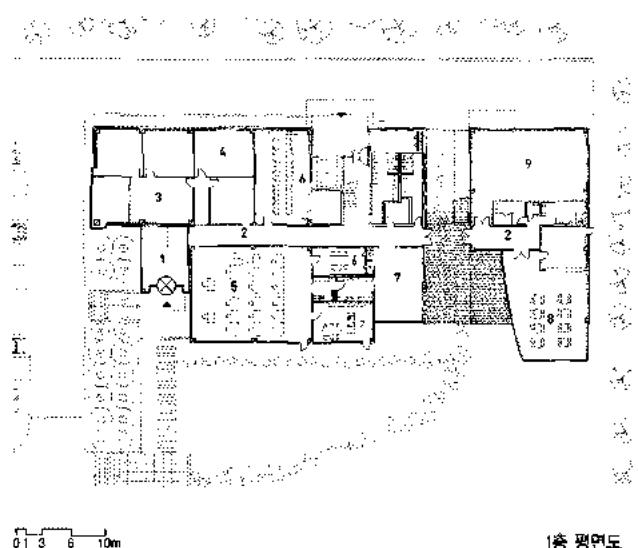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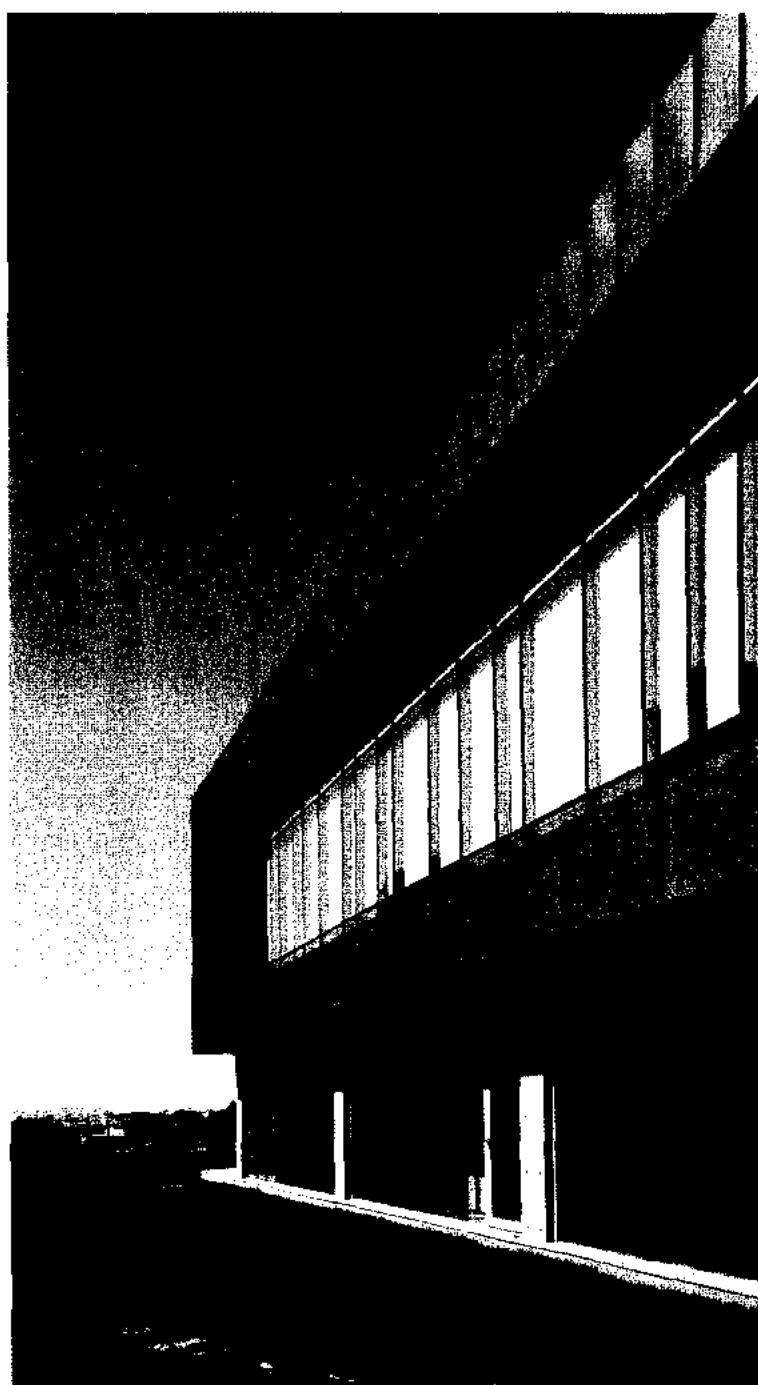
In the process of making architecture, there are several matters are being considered.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earth, human activities or natural, and many other factors are considered for.

The building itself is kind of a company that was the main character to follow. MIYACHI KOREA is in the precision resistance welding machine 1 in the world as a global company is a sub-diary of Japan in the new composition of Dongtan, Hwaseong City. Main and the annex building is composed of a layer of main office and research, lounge, etc., 2nd and 3rd floor consists of factories, and through connections Annex, a floor staff As for the restaurant was planned. Very closely related to the nature of IT companies and accordingly the exact function was required to accurately predict the space need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space was. Flow of human traffic also features simple configuration, depending on the deployment of space and were able to eliminate unnecessary parts. For each feature space, and flow of human traffic were the most simple and compact configuration for those who had spent much of the welfare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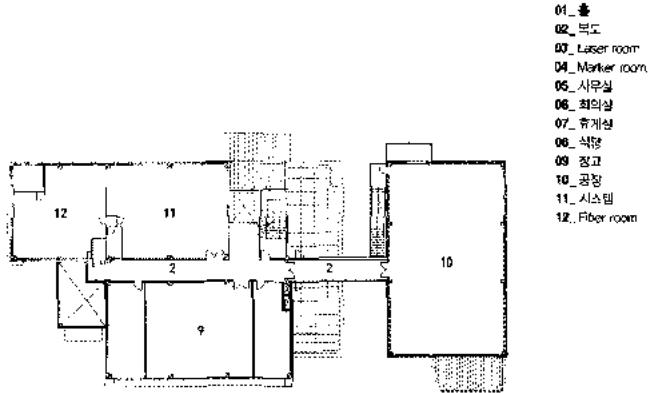
Office space to the front window, and given the grassy knoll and the integrated rest area, meeting space, offices and care that was actively used in conjunction. The office and factory building mass, support facilities and res. areas, etc. to separate the mess of each material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atures were combined to complement one another while. Factory and off co. people gathered for the relaxation function to symbolize the corporate natur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with plans to ensure that residents were recognized as a good space ■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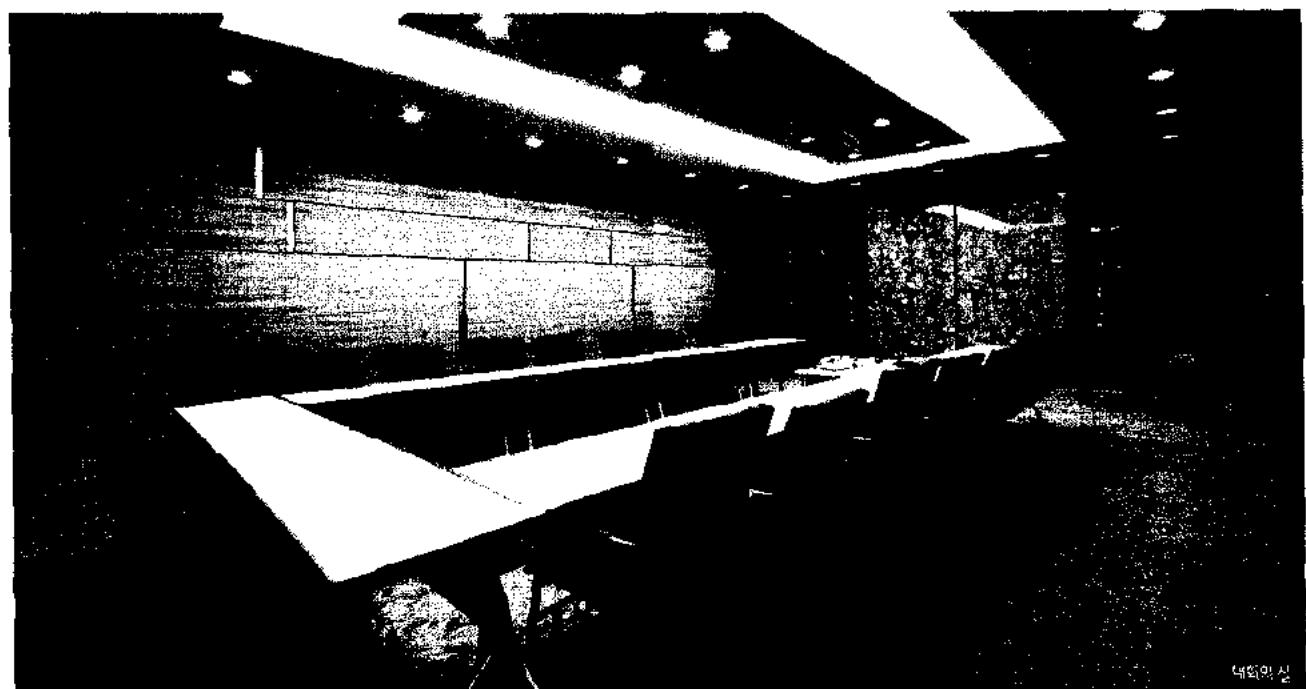




61 3 6 10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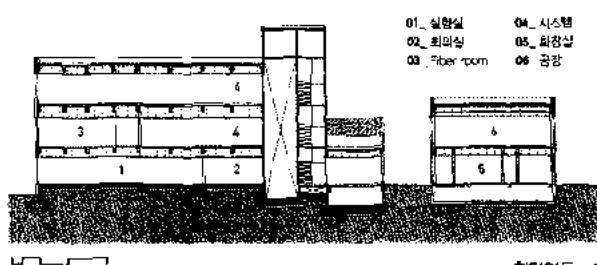
배면도



대학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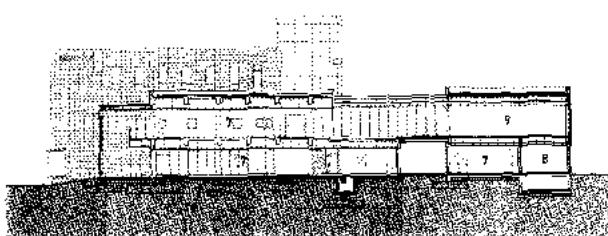
교체



61 3 6 10m

- | | | |
|----------------|---------|--------|
| 01_ 실험실 | 04_ 시스템 | 07_ 복도 |
| 02_ 회의실 | 05_ 회장실 | 08_ 주방 |
| 03_ Fiber room | 06_ 공강 | 09_ 창고 |

횡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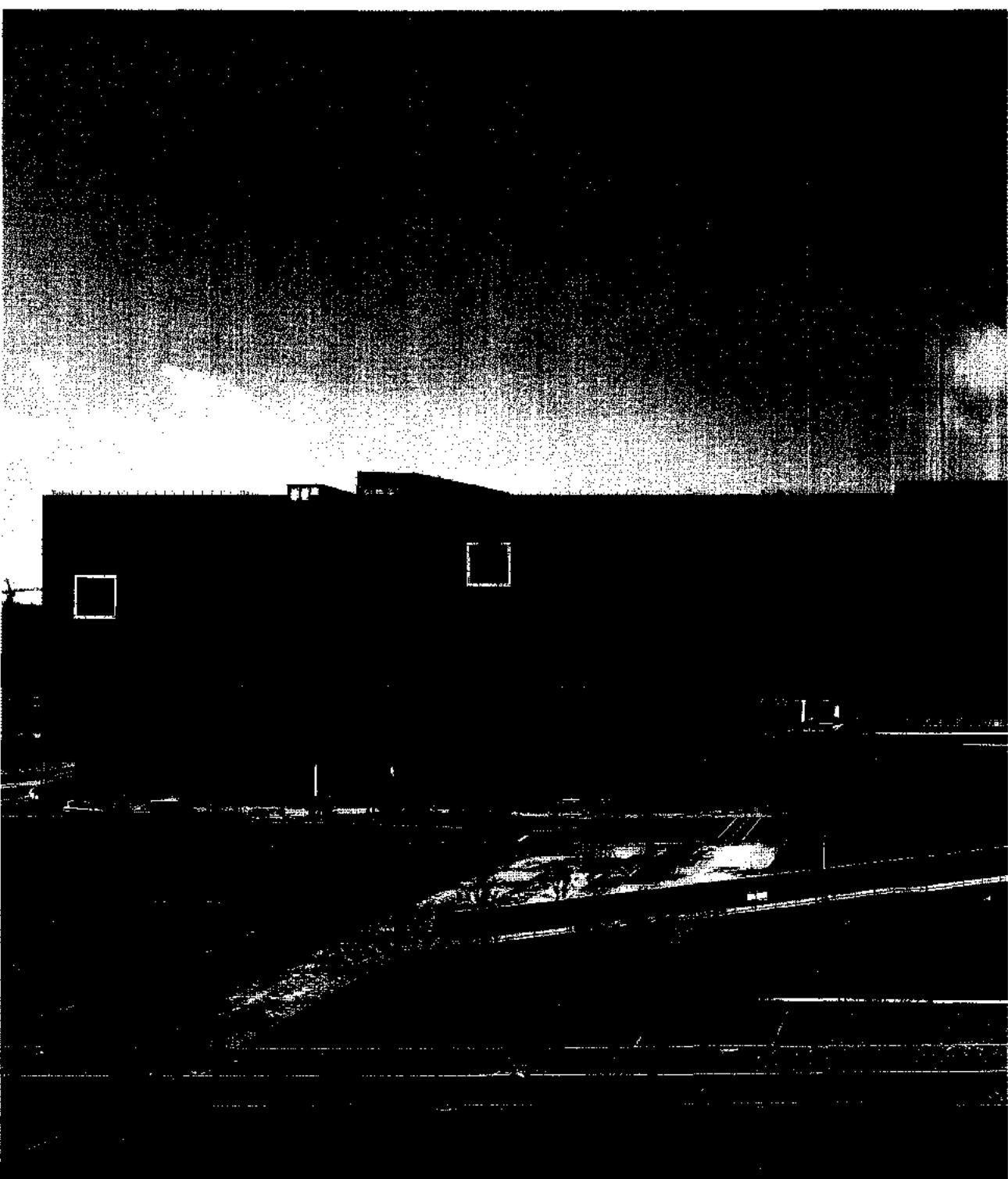


횡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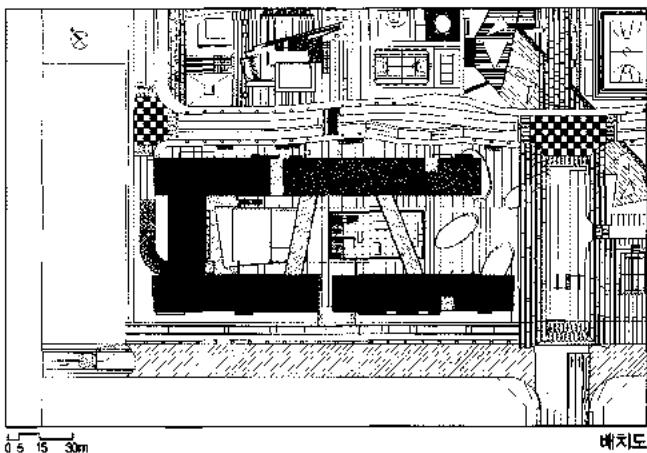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제1기숙사

YONSEI International Campus Residence Hall #1

이기창 · 이현석 · 이민 — 원아람(李)건축설计
Architects – Yi, Kun-chang, Yi, Kwan-pyo, Lee, Min, KIRA



Project team | Huh, Sung-wook; Lee, Jung-il; Yang, Seung-tae;
Lee, In-sim; Choi, Eun-young; Jung, Ju-yeon
Clinent | Songdo Global Complex Development Co. Ltd (SGCD)
Location | Incheon Yeonsu-gu Songdo-dong 162-1
Site Area | 614,654.9m² Building Area | 7,525.32m²
Gross Floor Area | 57,771.63m²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MOA Sung Yeong Oh
HVAC Engineer | Hankook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
General Contractor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Hyundai E&C)
Building Scope | B1, 10F
Finishing Materials | THK 24 Double Glazing Panels, Ceramic Bricks,
THK30 Flamed Granite Stones, THK 3.0 Aluminum Sheets
Photographer | Park, Young-chae.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는 입지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Residential College로 기획되었다. Residential College의 개념은 더하상황의 목표를 학습에만 두지 않고 기숙사에 학생과 교수가 함께 거주하며 멘토링을 통해 성장지도까지 하는 전인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 우리의 성균관과 서원에서도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타워에 의한 근대화로 과거와 단절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수차례에 걸친 해외 대학 당시와 실제 경험자들의 체험을 통한 간접경험을 토대로 Residential College의 핵심시설인 기숙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었다.

5층의 저층형 기숙사로 슬시설계가 완료되고 파일 풍사를 바우라할 쯤 기숙사 수용인원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2배 불리다라는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다.

서로운 양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 설계안의 큰 블록을 유지하며 변경된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2배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커지고 높아진 매스의 중립각을 원회시키기 위해 매스를 분절하고 시도를 관입시켰고 층수도 변화를 있게 구성했다. 솔리드와 보이드의 대비와 매스 들출을 통해 적벽돌 건물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현대적 감각을 실으려 했다.

중정 부분 지하의 1층 사이에 위치한 식당은 활동이 없는 내공간으로 만들고 시하층과 1층 연결 부문을 객선형터로 처리해 식사뿐이 아니라 공연과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애매지 송도의 단조로운 지형에 변화를 주고 싶어 식당의 상부는 인체적으로 처리해 레벨 변화 있는 인공시형을 만들었다.

또한 각 동을 연결하는 2개의 브릿지는 동간 연결 기능뿐만 아니라 세대 동문이나 클럽 등과 공동시설이 배지너 학생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 그리고 브릿지의 Mass는 중정의 장소성과 공간감을 강화시키는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정 중심에 위치한 선문은 지하 부대사 셀어 차연체광고 환기를 제공할 뿐더러 새롭게 구성되는 지형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Based on the feature of its location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 Yonsei University, Songdo Campus has been planned as a Residential College. The concept of a Residential College focuses its goal of college life on a mentoring system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where guidance counseling is part of the educational system. This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past on our Sung Kyun Kwan, but due to unexpected modernization which has detached us from the past, this concept has become unfamiliar to us.

With the numerous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colleges overseas and the experiences of the associated people, we were able to create the hardware and software for the dormitory which is the core of the Residential College.

When the five story low-rise dormitory building's execution drawing was finished and the piling was about to be completed, a change in design was requested so that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ccommodated would increase from 1,000 to 2,000.

To plan out a new design was hard, but we realized that maintaining the main outline while accepting the change program was even more diffic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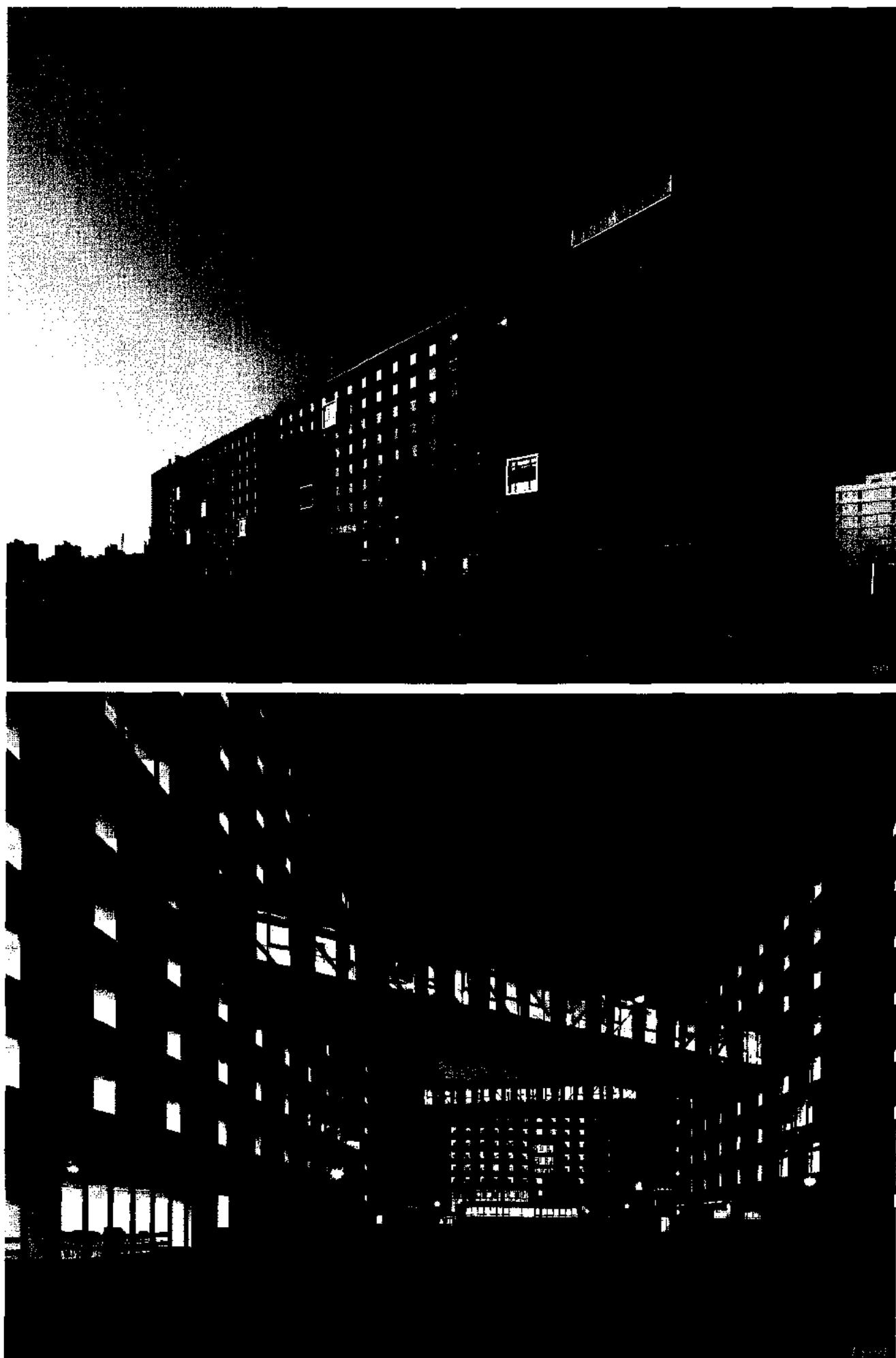
To ease the oppression of the expanded size of mass due to the increase of amount of accommodated people, the mass was segmented and each part was interpenetrated. The number of stories was also constructed considerably. By using the contrast of solids and voids along with the projected masses, the monotonous 'feeling' of the red-bricked building was overcome, and a modern 'feeling' was appl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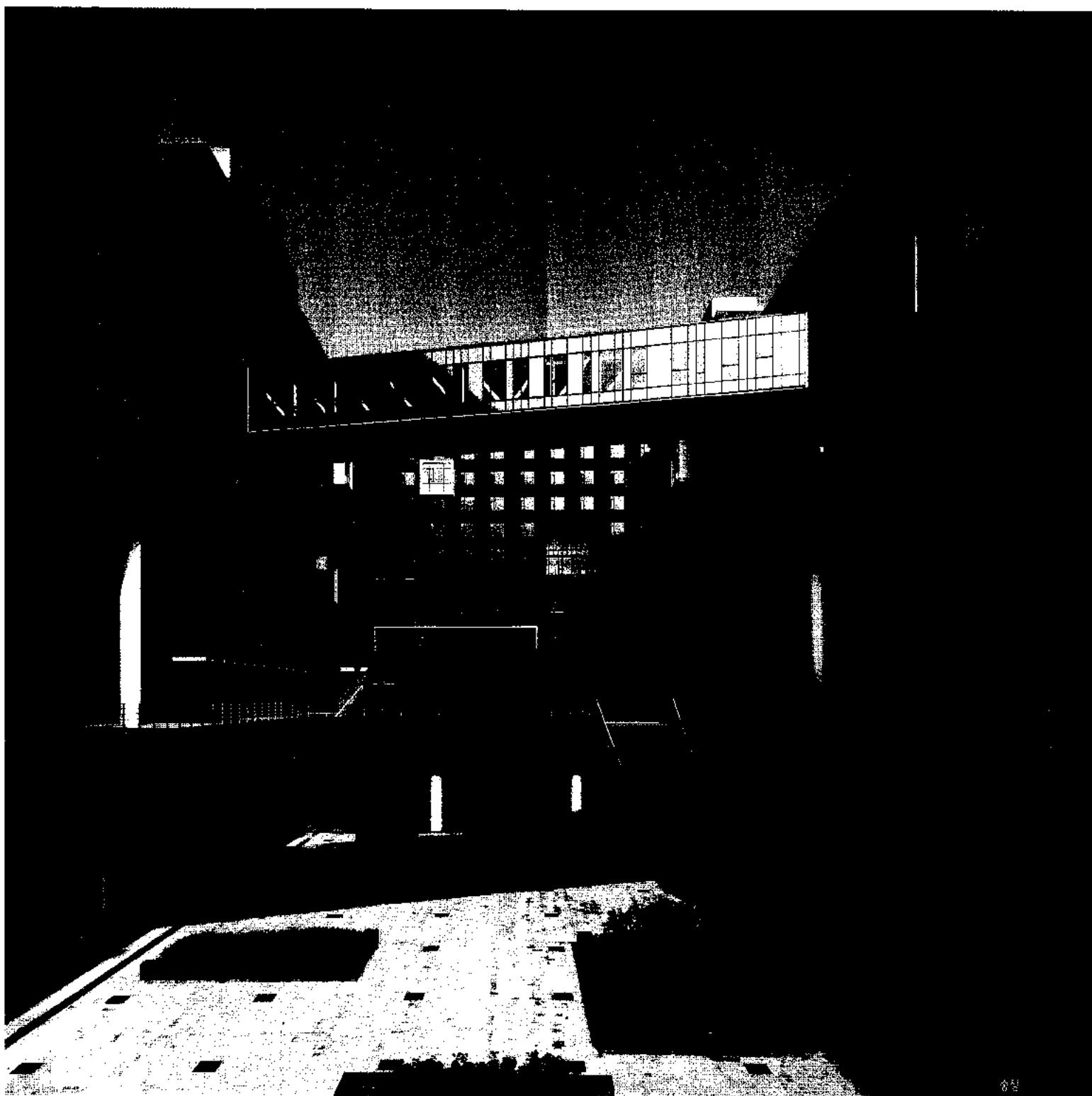
The cafeteria located in the courtyard between the basement and the first floor was planned as a large area without columns, and this area was arranged into an auditorium form so that it would not only be a place for eating, but could also be used as a place for performances of various activities. Change was sought to be applied to the reclaimed grounds of Songdo, thus the upper area of the cafeteria was made into a solid artificial topography.

Also, the two bridges connecting each of the complexes hold a public area which may be used as a seminar room or an extracurricular activity area. This area may be used by the students to interchange with each other, and the mass of the bridge will reinforce the space impression and the location of the courtyard.

The sunken which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ourtyard will not only provide the subsidiary facilities with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but will also make the newly constructed area more sol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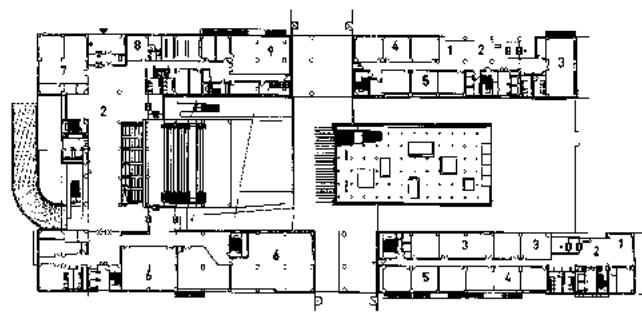
Although many hardships were faced on the way to completion, this project, which was built on determination and insistence, will hopefully become of assistance to the enjoyable and sound college life of the students who attend Yonsei University, Songdo Camp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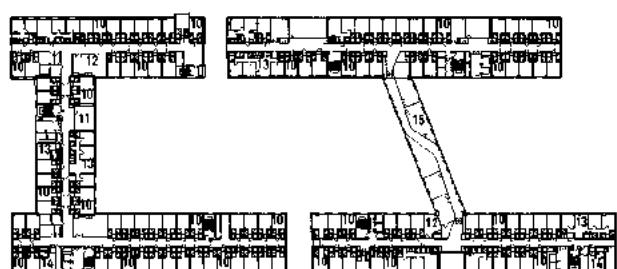


주식

- | | | | |
|----------|--------------|------------|--------------|
| 01_ 라운지 | 05_ 취미실 | 09_ 행정/관리 | 13_ 6인실 |
| 02_ 로비 | 06_ 열람실 | 10_ 2인실 | 14_ 전시회 기숙사실 |
| 03_ 세미나룸 | 07_ 열대미디어실 | 11_ 휴게 발코니 | 15_ 스터디룸 |
| 04_ 금관총 | 08_ 경비/안전사무실 | 12_ 커뮤니티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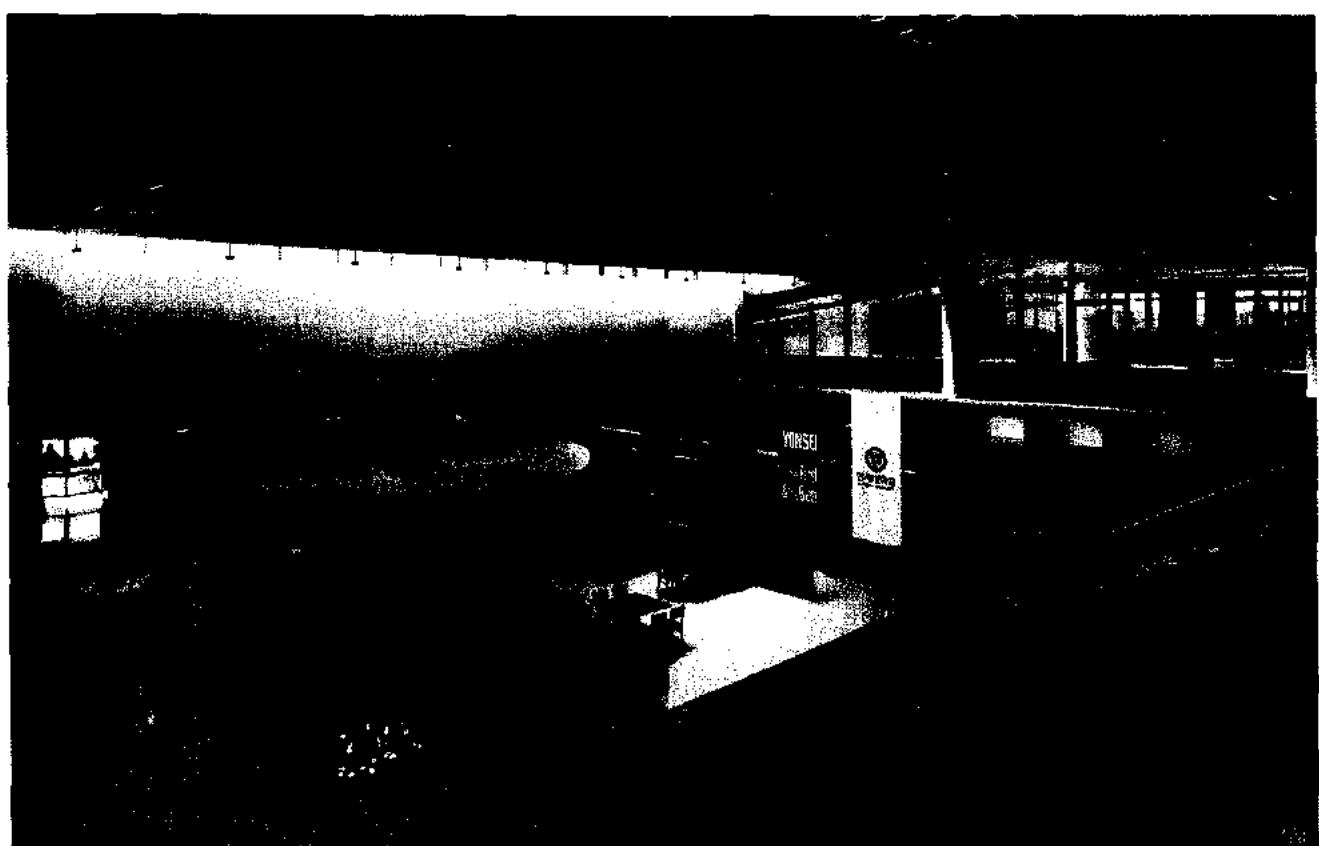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정면부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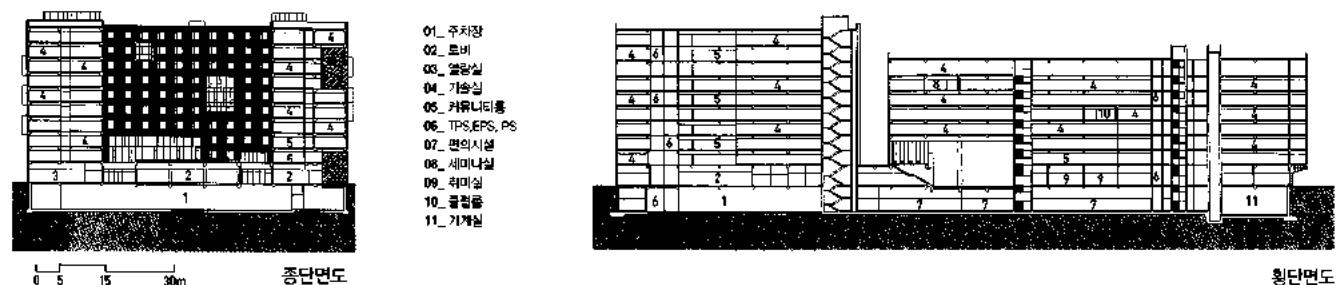


정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Project Team | Yoo, Jong-wook-Kim, Jeong-sun-Sim, Sang-bo-Yang,
Haeng-yong-Jang, In-hwan-Jang, Nam-su-Yoon, Sul-yoon-Park, Seung-
Jin-Lee, Won-kyu-Kim, Hae-jin

Client | KAVO

Location | Jeollanam-do Yeongam-gun Samho-eup Sampo-ri

Site Area | 1,411,000m² Building Area | 77,187.56m²

Gross Floor Area | 69,996.75m² Building to Land Ratio | 5.47%

Floor Area Ratio | 4.96% Structure | R.C, 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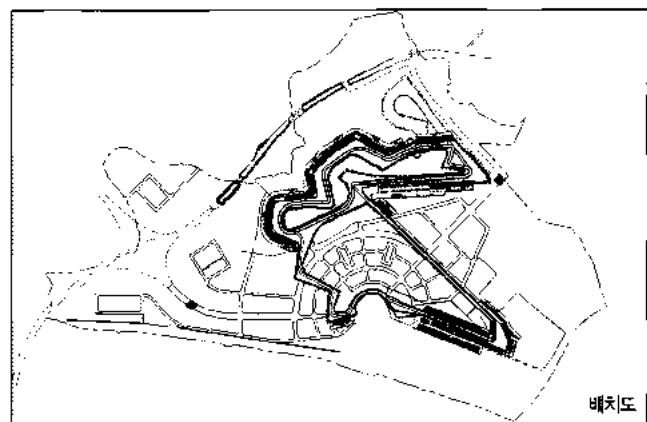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Cross + Archill Structural Consultant

HVAC Engineer | Jung Do ENG Building Scope | 1F, 4F

Electrical Engineer | Yoo won ENC

Finishing Materials | Zinc, Split block, Exterior Insulation system, Wood panel, Corrugated Steel Plate, Granite stone, PIR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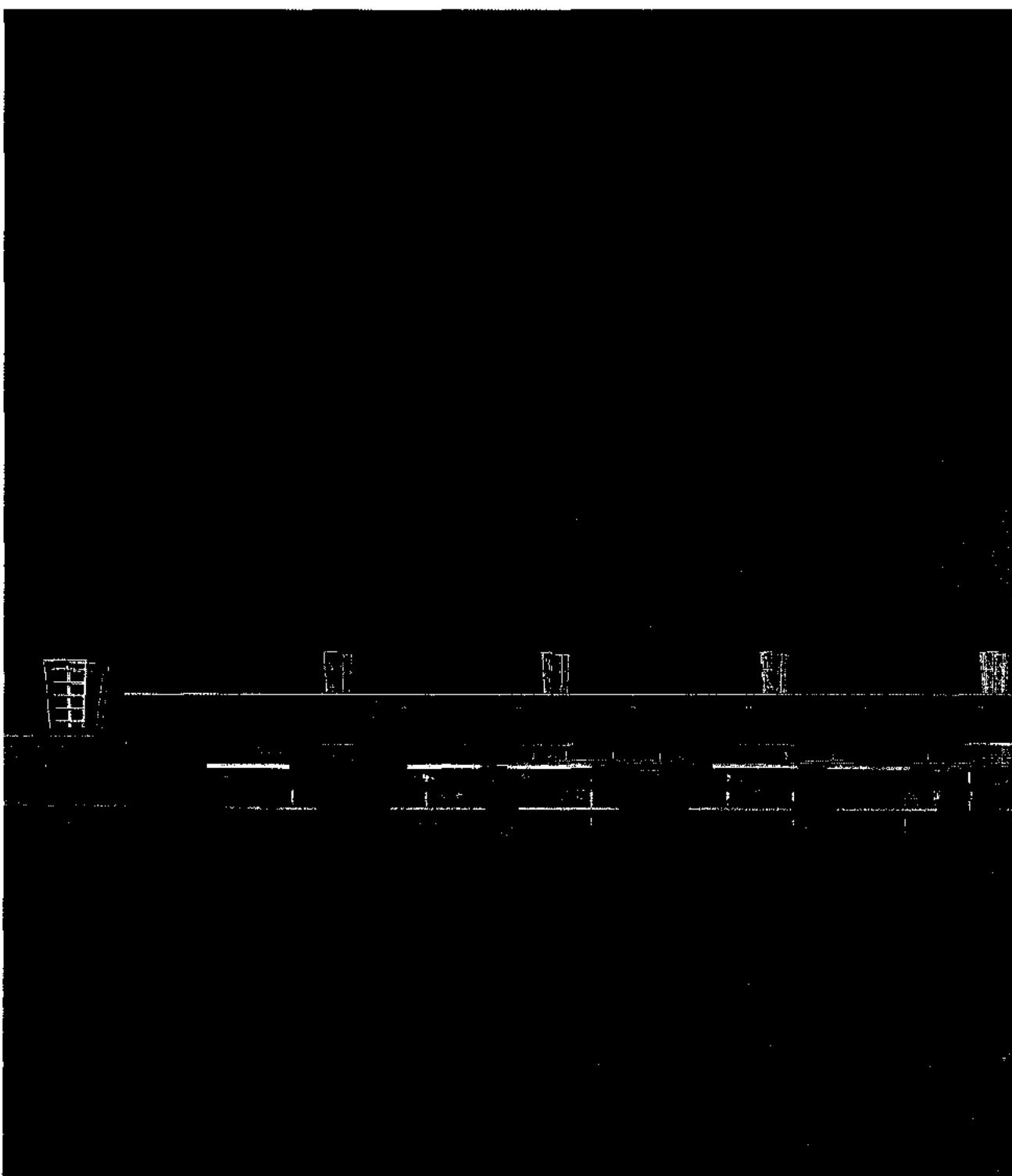
Photographer | Nam, Kung-seon Cost | not disclosed



포뮬러 원 국제 경주 трек

Formula 1 Korea International Circuit

한국건축 · 남도건축 · 디자인 (주) KOREAN ARCHITECTS
Architects—Lee, Pil-hoon-Kim, Ki-han, KIRA



F1 자동차대회는 지상 최고의 자동차들이 속도를 경합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이며, 자동차 기술의 최고점이다. 영암 고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F1 자동차대회를 위하여 고리아 인터내셔널 서킷과 함께, 면적 39,000.5ha의 건물로 개축되었다.

건축물들로 주된 의장지는 알루미늄 시스템 지붕과 아온도강판 칼라·복층유리 커튼월, 스플릿볼 력, 롤러카バー, PIR판 등으로 개축하여 국가의 대표적인 시동차경주장의 이미지를 형성화 하였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OREA INTERNATIONAL CIRCUIT, KIC)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세계방향으로 드는 대부분의 서 경기장에 비해 시계 방향으로 경기장이 진행된다. 시계 반대 방향 주행은 자동차 레이싱에 있어서 새로운 즐거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약 1.2km의 주선주로를 포함하고 있어 최고속도 320km 주행이 가능 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느낄 수 있다. 1.2km의 최장 직선구간을 지나면서 마주하는 각선 주로는 영암호의 자연지형과 어우러져 평소의 주행과 대비되는 다양한 코너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고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연중 행사 개최되는 국내경기를 위한 상설 서킷과 1주에 3일 개최되는 F1 자동차대회를 위한 시각으로 마련화하였으며, 이렇게 마련화된 서킷은 다양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랜드스탠드

주 관중용인 그랜드스탠드는 높이 340m, 높이 39m, 층수 4층, 관람석 16,000석으로 이루어진 관람석으로 면밀 관람석 기능을 한다. 한국 전통건축의 상징성을 독특한 조형 어휘로 해석하여 디자인함으로써 한국적인 F1 자동차 경주장의 이미덴티티와 F1 자동차 레이싱이 지닌 에너지를 표출하고, F1 자동차경기에 흥미를 고양시키고자 계획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성과 현대성이 잘 조화하는 현대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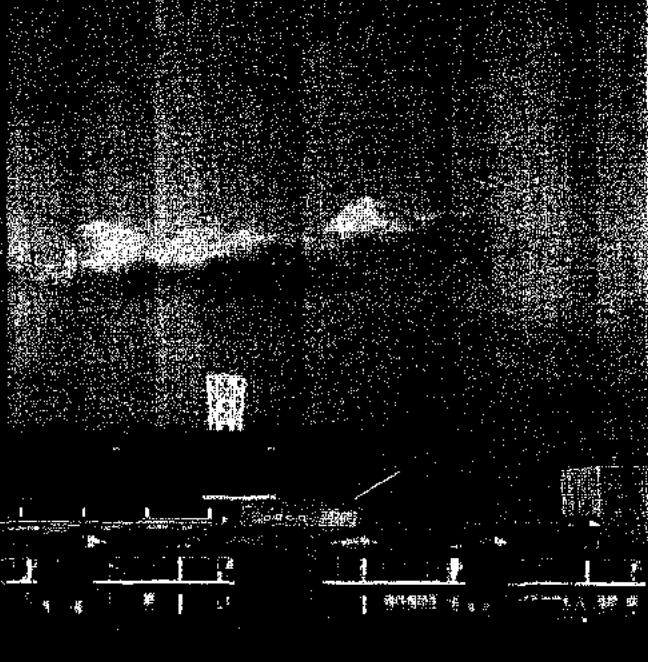
F1 Paddock

F1 피트볼링, 레이스컨트롤빌딩, 미니어처센터, 힐링홀, 양토린스 날당 등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F1 Paddock이라고 부른다.

경기의 시작과 끝, 우승자의 세리모니, 시마신의 피트워크, 각고 기자들의 취재 및 방송, 패거리, BMW, 르노, 맥라렌 등 14개��을 위한 공간, 자동차 레이싱의 전시와 홍보 등 F1 자동차경기의 주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영암호를 바라보는 그랜드스탠드의 배치와 물결을 읽은 텁팅공의 지붕기자인 청문고객 및 VIP, 카레이서, 스템, 기자 등 다양한 둘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 닝 학으로써 회전의 기능을 확보하였다. F1 피트볼링은 VIP를 위한 공간과 F1 자동차팀의 경기자원 공간을 제공하는 F1 피트빌딩은 길이 300m, 층수 3층 규모로 계획했다.



영암호가 있는 F1 피트볼링과 그랜드스탠드 구조



영암호가 있는 F1 피트볼링과 그랜드스탠드 구조

F1 Grand Prix is an international sports game where the world-best motors compete with one another in speed, and is the peak of the automotive technology. Korea International Circuit is designed with 51 buildings for Korea International Circuit and the building with gross area of 69,996.75m² for F1 Grand Prix.

As the main exterior materials of buildings, there are an aluminum system's roof material, zinc alloy steel, colored insulated glass's curtain wall, split block, Polycarbonate, and PIR panel. They are the figuration of the country's representative motor racecourse image.

KOREA INTERNATIONAL CIRCUIT(KIC)

KOREA INTERNATIONAL CIRCUIT will offer the car racing in an anticlockwise direction unlike most racecourses of the clockwise direction. The counterclockwise racecourse is expected to give new enjoyment in the motor racing. Also, since it contains the world-longest 1.2km direct-line race track, car racers will have the highest speed of 320km and will enjoy the world-fastest speed. After the longest direct-line race track of 1.2km, the curved race track mixes well with a natural topography of Yeongam Lake. Racers will enjoy the excellent cornering contrasted with the speedy drive.

KOREA INTERNATIONAL CIRCUIT is also divided into a regular circuit for a year-round domestic games, and the circuit for F1 Grand Prix to be held for 3 days a year. Such the divided circuit can attract the diversity of games and improves the management effici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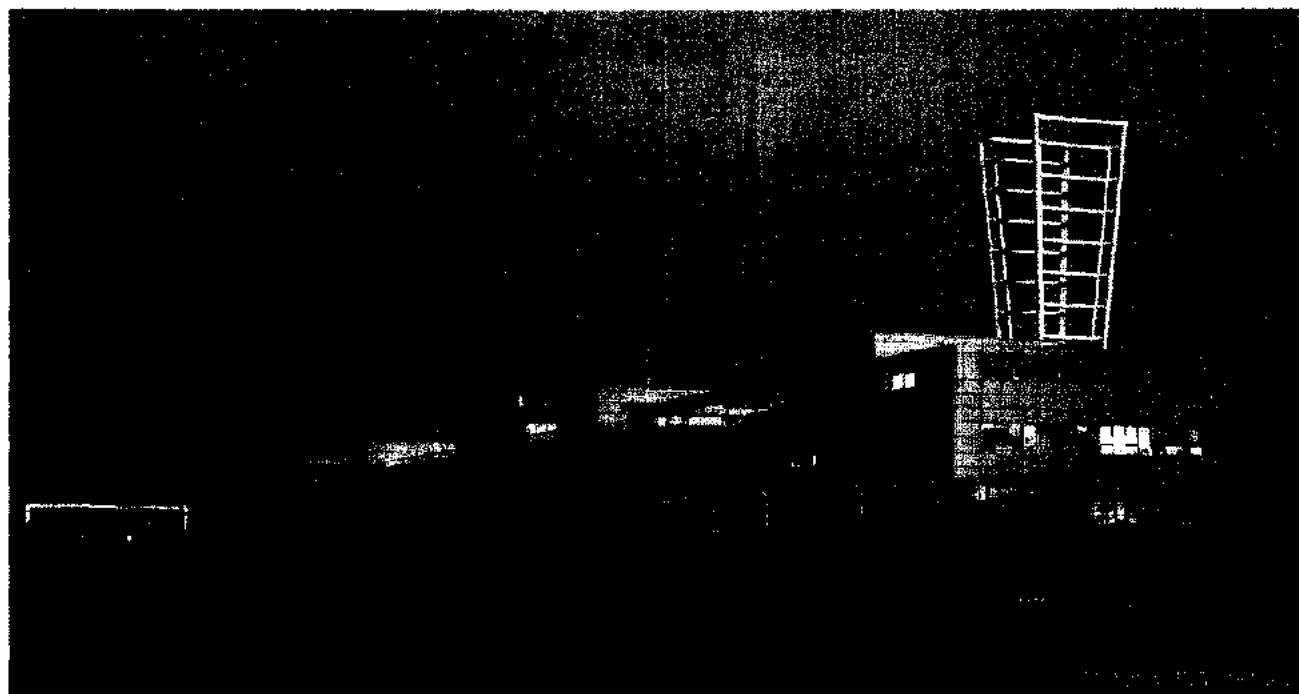
Grand St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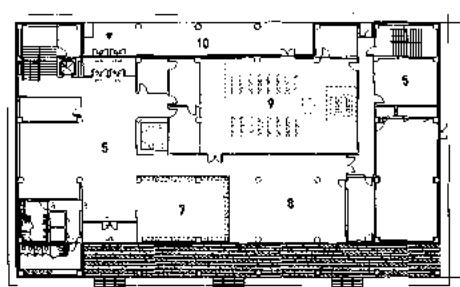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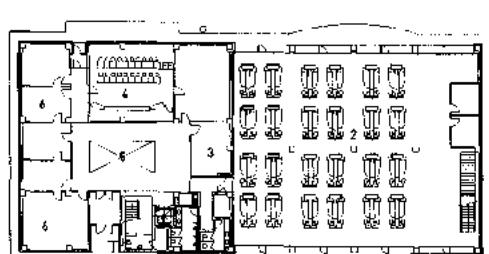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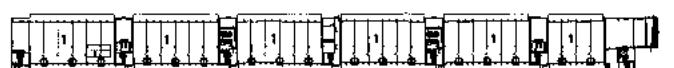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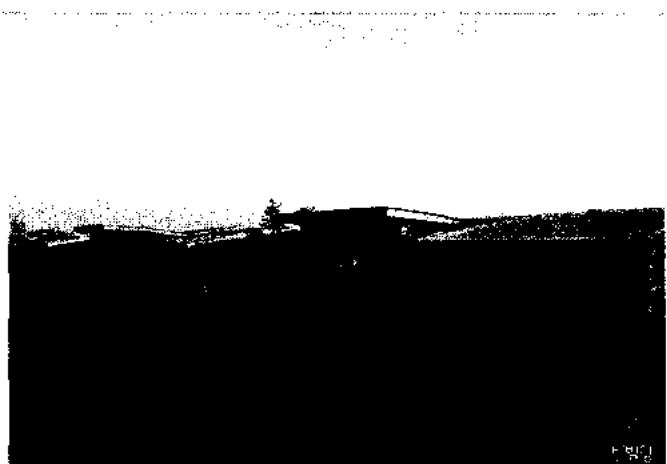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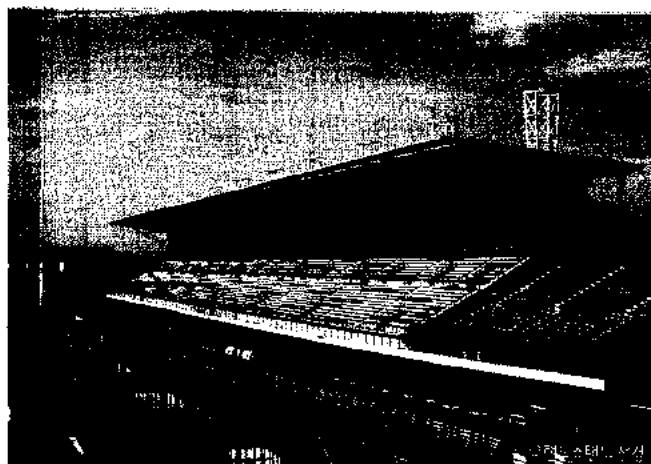
Grand Stand is the main building of 340m in length, 38m in height, 4 stories, and 16,096 seats, and serves as the grandstand. It is designed by interpreting a symbolism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an unique formative element, and is planned to express the Korean styled F1 motor racecourse's identity and F1 motor racing's energy, and to boost interest in F1 Grand Prix. Then, it is intended to tell the Korean tradition and an incredibly-developing modernity to the world.

F1 Padd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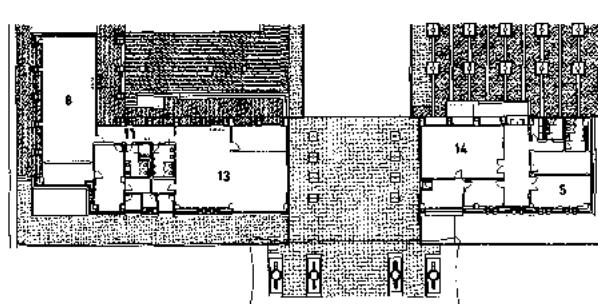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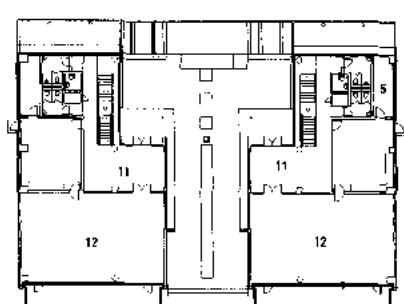
The area consisting of F1 Pit Building, race control building, media center, team building, and entrance building is called F1 Paddock.

F1 Paddock has the area for the start and finish of the game, winner's ceremony, F1 Machine's pitwork, worldwide reporters' interview and broadcast and 14 race teams including Ferrari, BMW, Renault and McLaren, and the space for the major programs of F1 Grand Prix such as the motor racing's exhibition and PR. It has the comfortable function by the Grand Stand's layout overlooking Yeongam Lake, and the wave-formed roof design of Team Building, and dividing and zoning for the guests & VIP, car racers, staff and reporters. F1 Pit Building offers the space for VIP and the space for the F1 teams support. F1 Pit Building is designed with 300m in length and 3 stories. ■





- 01_FIT
- 02_경작실
- 03_선수동복실
- 04_등재실
- 05_로비
- 06_사무실
- 07_학기홀
- 08_카페테리아
- 09_기자회견장
- 10_데크
- 11_홀
- 12_케이터링
- 13_전시실
- 14_방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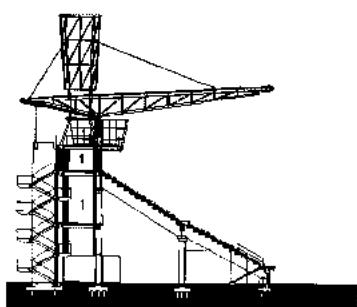
트랙 위에서 화면에 드디어 이름이 표시되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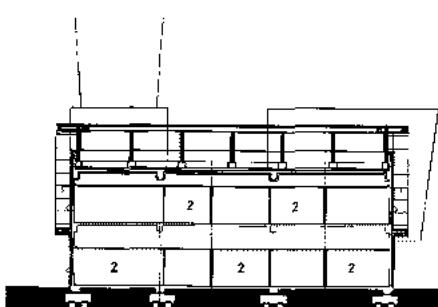
트랙 위에서 화면에 드디어 이름이 표시되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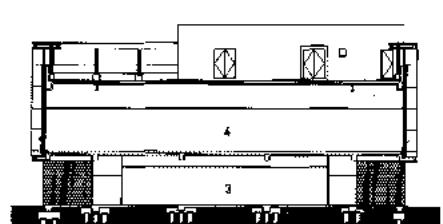
트랙 위에서 화면에 드디어 이름이 표시되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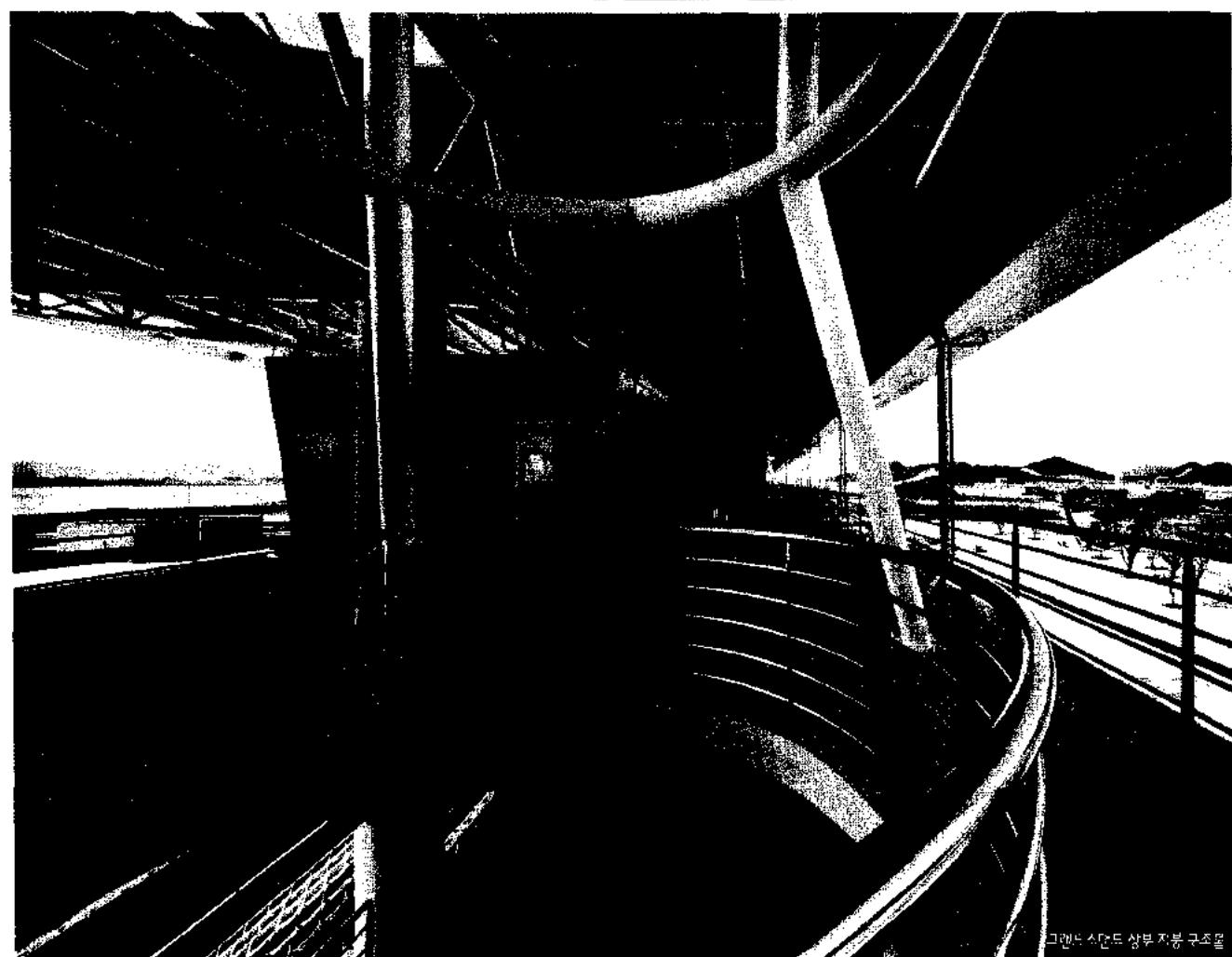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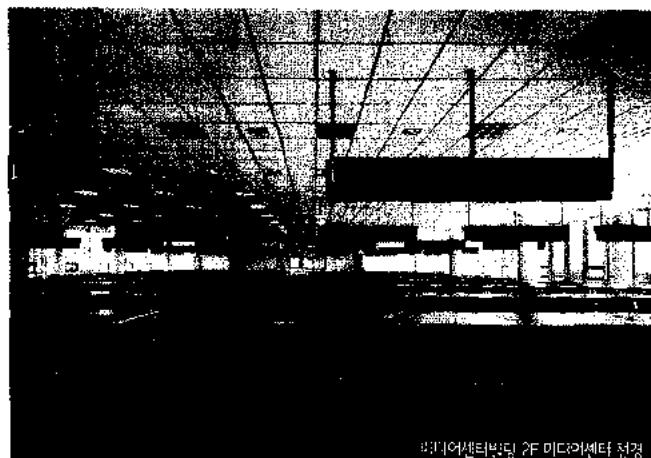
그랜드스탠드 단면도



F1 레이스컨트롤파킹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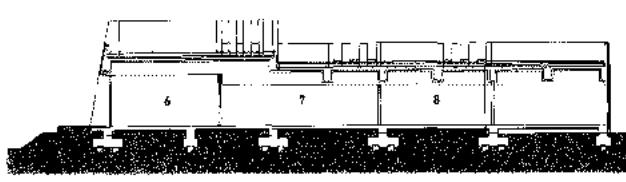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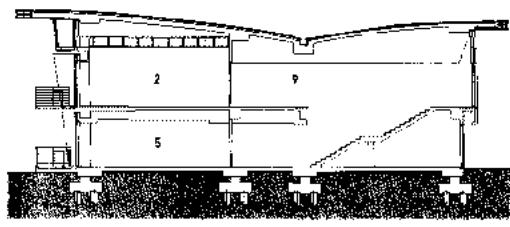


F1 미디어센터 단면도



피트빌딩 단면도

- 01_홀도
- 02_사무실
- 03_로비
- 04_미디어센터
- 05_케이터링
- 06_카페테리아
- 07_음
- 08_전시실
- 09_라운지
- 10_증비실
- 11_VRF리온제
- 12_PT
- 13_무전기실
- 14_회장실
- 15_클링크실



METAPOLIS

메타폴리스 Metropolis

Project team | Choi, Jong-gil · Lee, Kyung-an · Choi, Hong-suk · Lim, Hyo-suk · Kim, Sin-woo · Lee, Cho-sung · Jung, Seung-gyu · Yeon, Deok-gyu · Son, Hak-sik · Ken Min Sun-geun

Client | Metapolis

Location | Gyeonggi-do Hwaseong-si Bansong-dong 96-98

Site Area | 50,948m² **Building Area |** 34,900m²

Gross Floor Area | 462,812m² **Floor Area Ratio |** 68.5%

Building Coverage Ratio | 510%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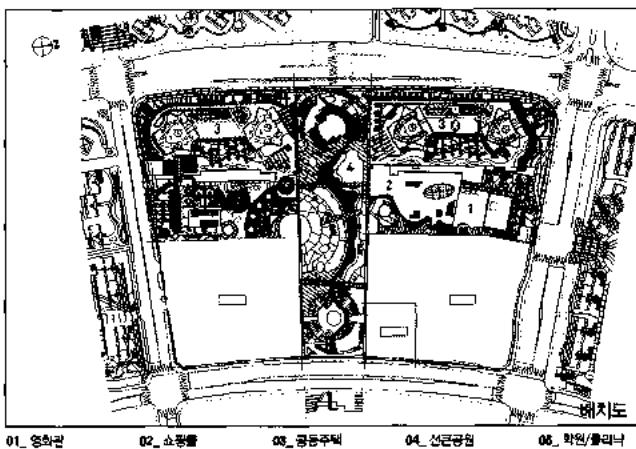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DAEIL E&C

General Contractor | POSCO E&C, SHIN DONGAH E&C

Building Scope | B5, 66F

Finishing Materials | AL, Sheet 3.0mm

Photographer | AILE **Cost |** not disclosed



김호준 · 이상인 (KL-KIRA) 설계
Architects — Kim, Hoi-hoon · Lee, Sang-in, KIRA





메타폴리스는 신도시 런던아크 개발 및 신가념의 드림센터 조성을 목표로 아스타플랜에 의한 종합상업용지의 일관된 녹합단지 개발을 전제로 한다. 메타폴리스는 도시의 역동적인 기능, 활동 및 정보를 디자일시대의 디자인적 드라마트릭을 보여주며, 기존의 단순한 물리적, 지리적 표시물 같은 벗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가념의 거주·생산·서비스 기능의 혼연연계를 기sans.

메타폴리스를 구현하기 위한 개발목표는 복합화, 활성화, 차별화이다.

첫째 차별화, 자생적 노사기반을 의한 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안의 도시City with in City 개발방법에 따라 복합기능의 유기적 연계체계로 주거, 업무, 숙박, 판매 기능은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복합화된다. 또한 신도시구조에 대응하는 Multiple Anchor System을 도입하여 Shopping Mall Street를 중심으로 Mall Anchor와 Urban Anchor를 이승적으로 조합한다.

둘째 신도시의 명소 창출로 활성화해야 한다.

신도시 0.0 지마이킹을 만드는 초고층 타워는 Master Anchor시설로서 신도시 성장의 축 역할과 Urban Seed의 역할을 제공한다. 그리고 활력있는 브랜드 단지 개발전략으로 2 Gates + 4 Plazas + 4 Nodes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활기찬 Main Street와 Festival City를 구현한다.

셋째 차별화된 신개념 도시공간 조성이다.

차별화된 녹합단지 기능으로 교육·문화·언터테인먼트·스포츠·헬스 등의 복합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M+계획을 수립하여 선근광원과의 연계개발로 폐쇄적 노사환경을 향유하며 아이스링크, 야외공연장, 음악분수, Sky Bridge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자연을 조화시키는 신개념 도시공간을 완성한다.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Metropolis is to construct a new landmark and city center based on the idea of consistently developing Central Commercial District to a mixed-use complex. It shows multi-dimensional spectrum of the city including dynamic functions, activities and information. Each function such as residence, production and service is connected to one another evolving from the existing geological function of the city.

The aim of the development to realize Metropolis is mixed-use, vit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First, mixed-use development is necessary for the self-sufficient city.

In order to the performance of mixed-use complex, one-stop service for residence, office, accommodation and retail is available according to the concept of "City within city". In addition, adopting the multiple anchor system to response the new structure of the city, the mall anchor and the urban anchor are combined ideally along the shopping mall street.

Secondly, urban landmark of the new city should be activated.

The axis of city growth and urban seed are provided by the high-rise building as a master anchor in order to create the image of the city. Moreover, "2 Gates + 4 Plazas + 4 Nodes" system as one of the strategies for mixed-use development realizes a vibrant main street and festival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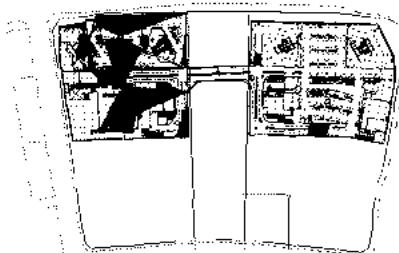
Finally, a new concept of development differentiates the Metropolis.

Integrated M+ plan promotes the city amenity through synergy effect of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and sports along with development of sunken park. In addition, facilities such as ice rink, outdoor theater, music fountain and sky bridge help to make harmony between city and na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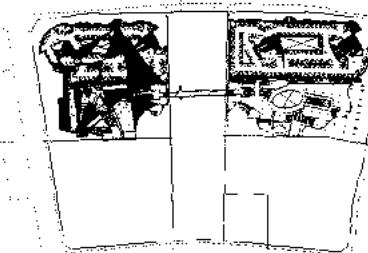


01_길인점 02_주거주차장 03_상업주차장 04_자체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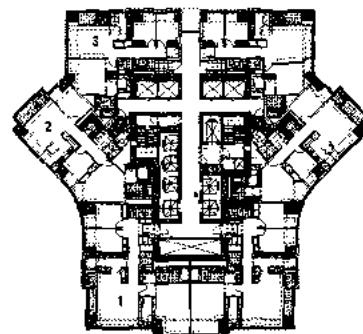
01_54A 평형 02_46A 평형 03_4D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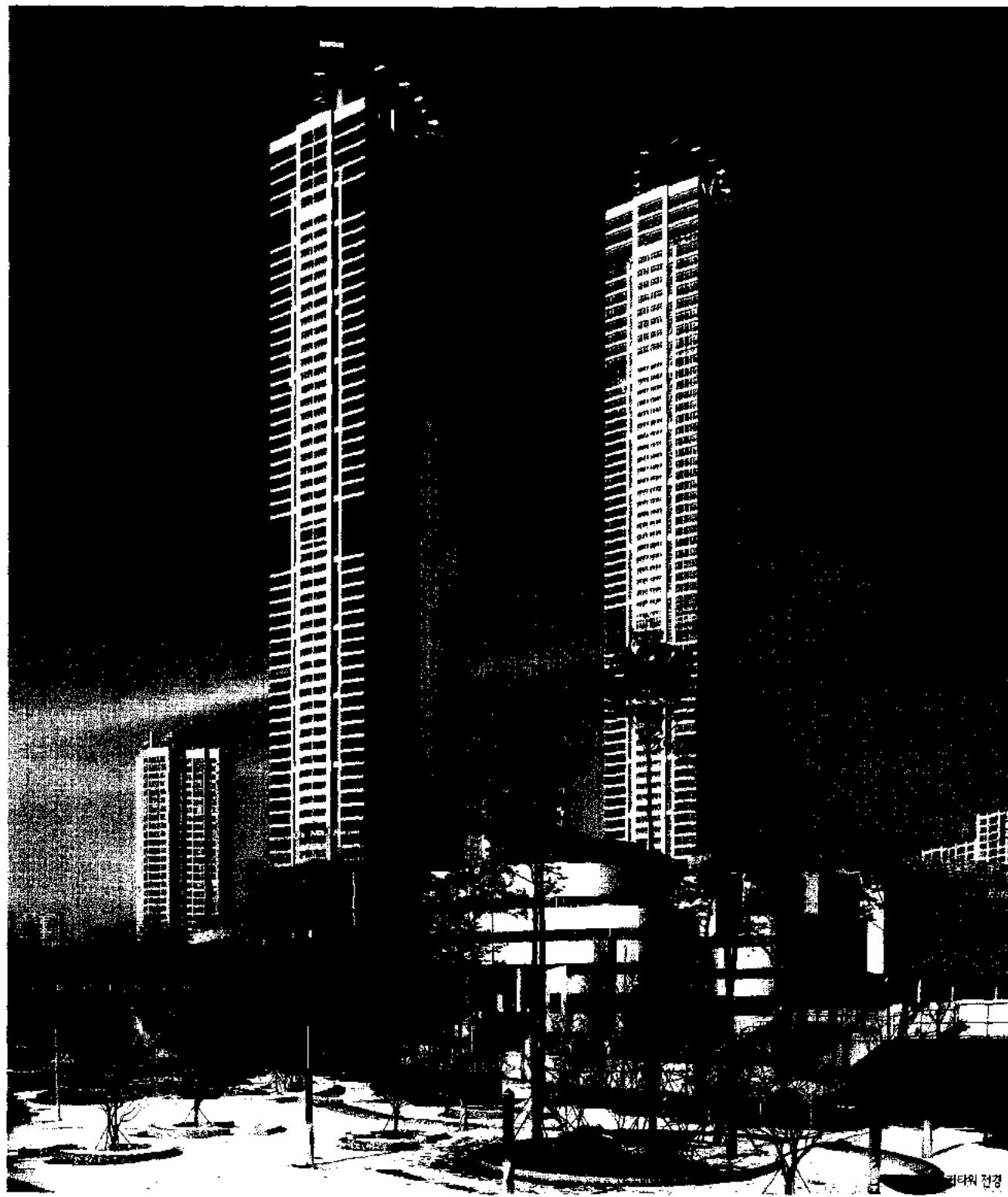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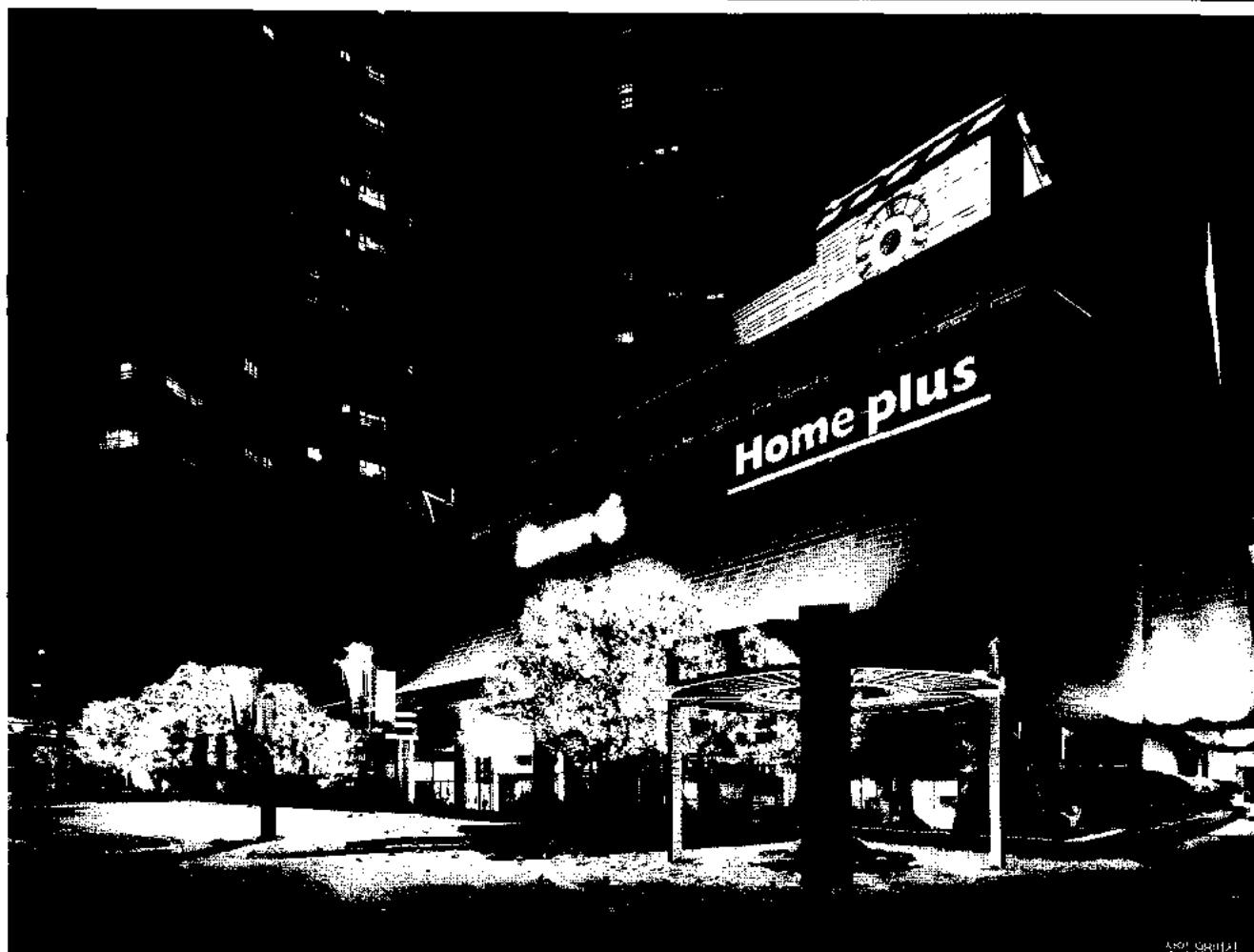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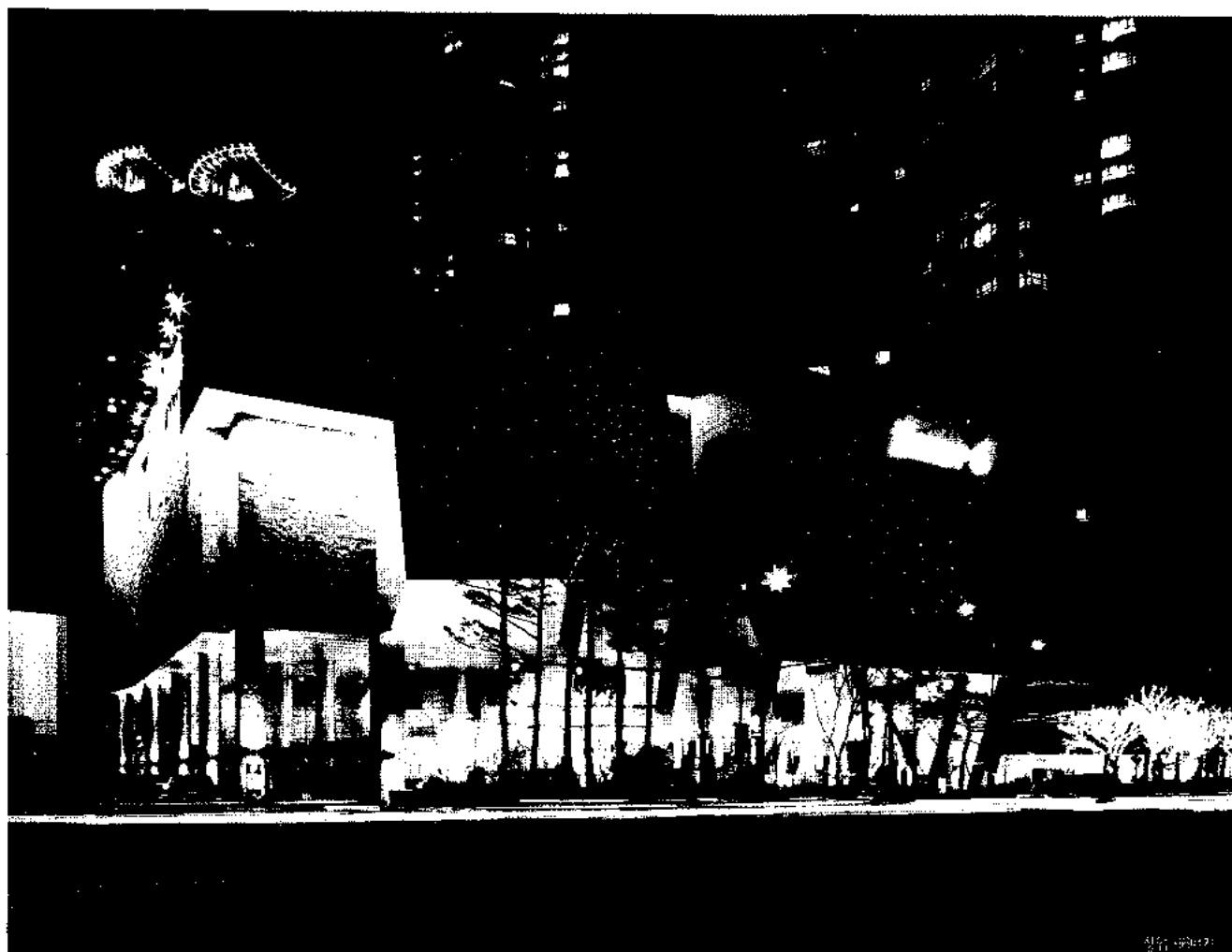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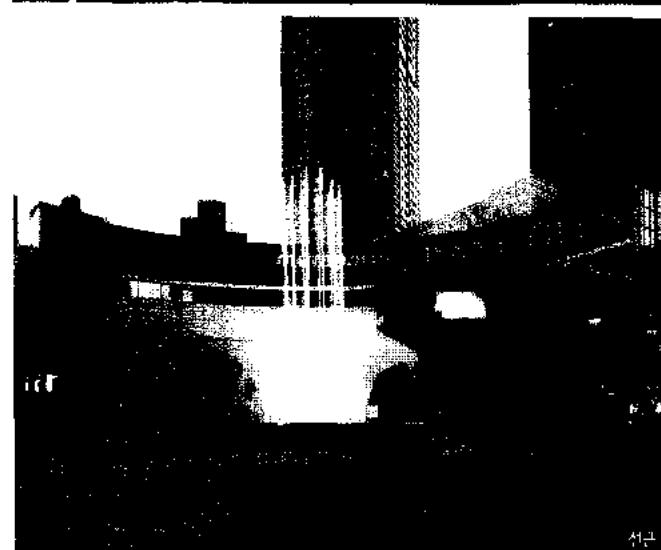
주동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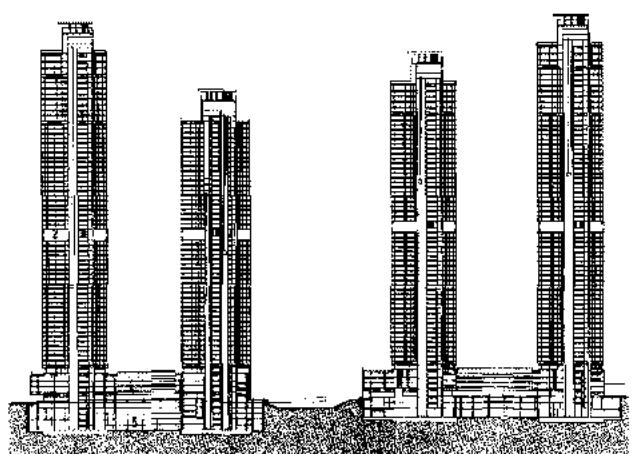
리타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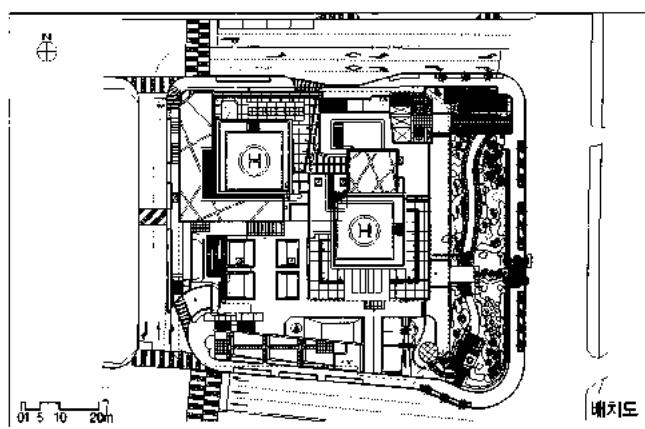
01_공동주택
02_공중정원
03_보더복커시스템
04_주거지상주차장
05_주거지하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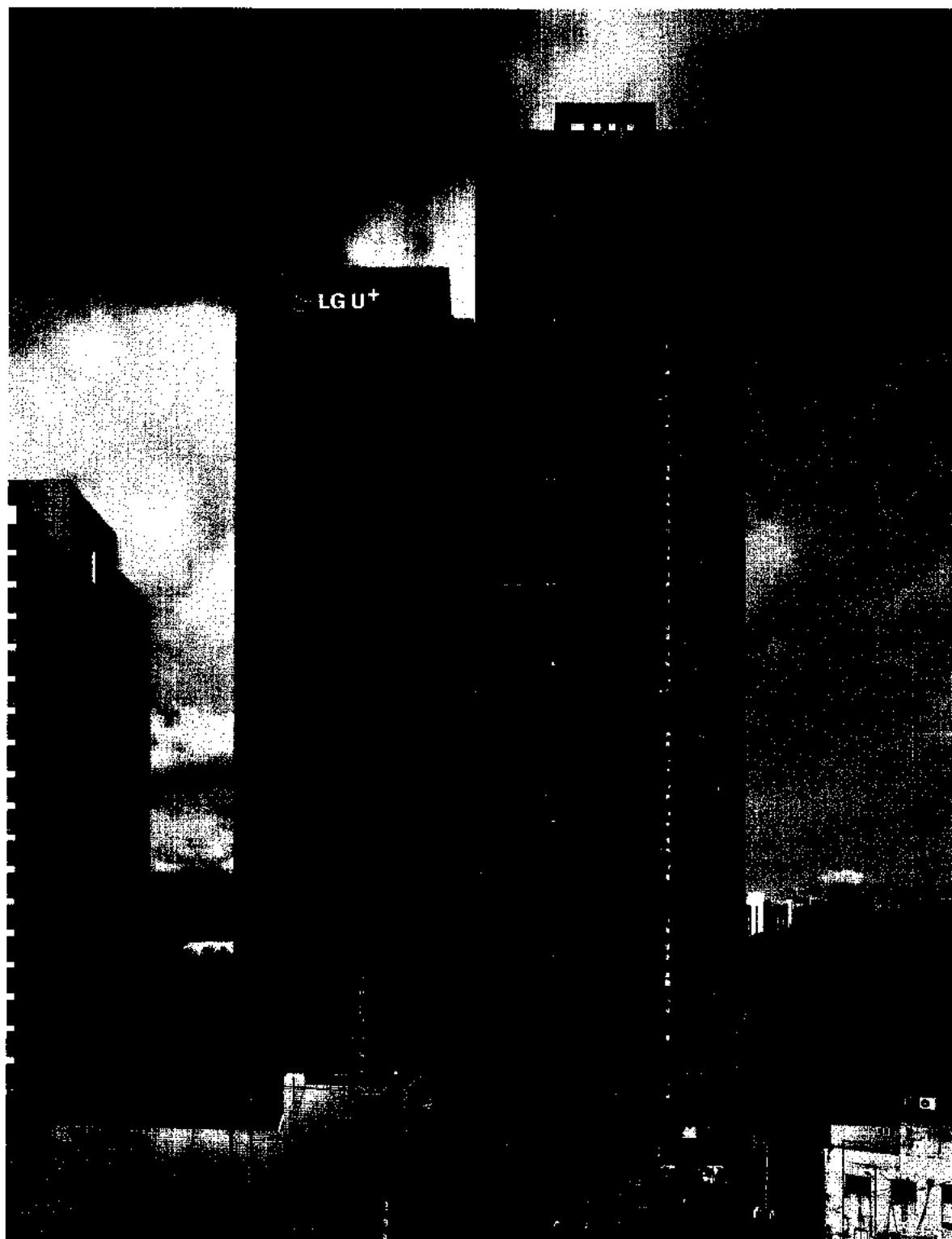
Namasan Tra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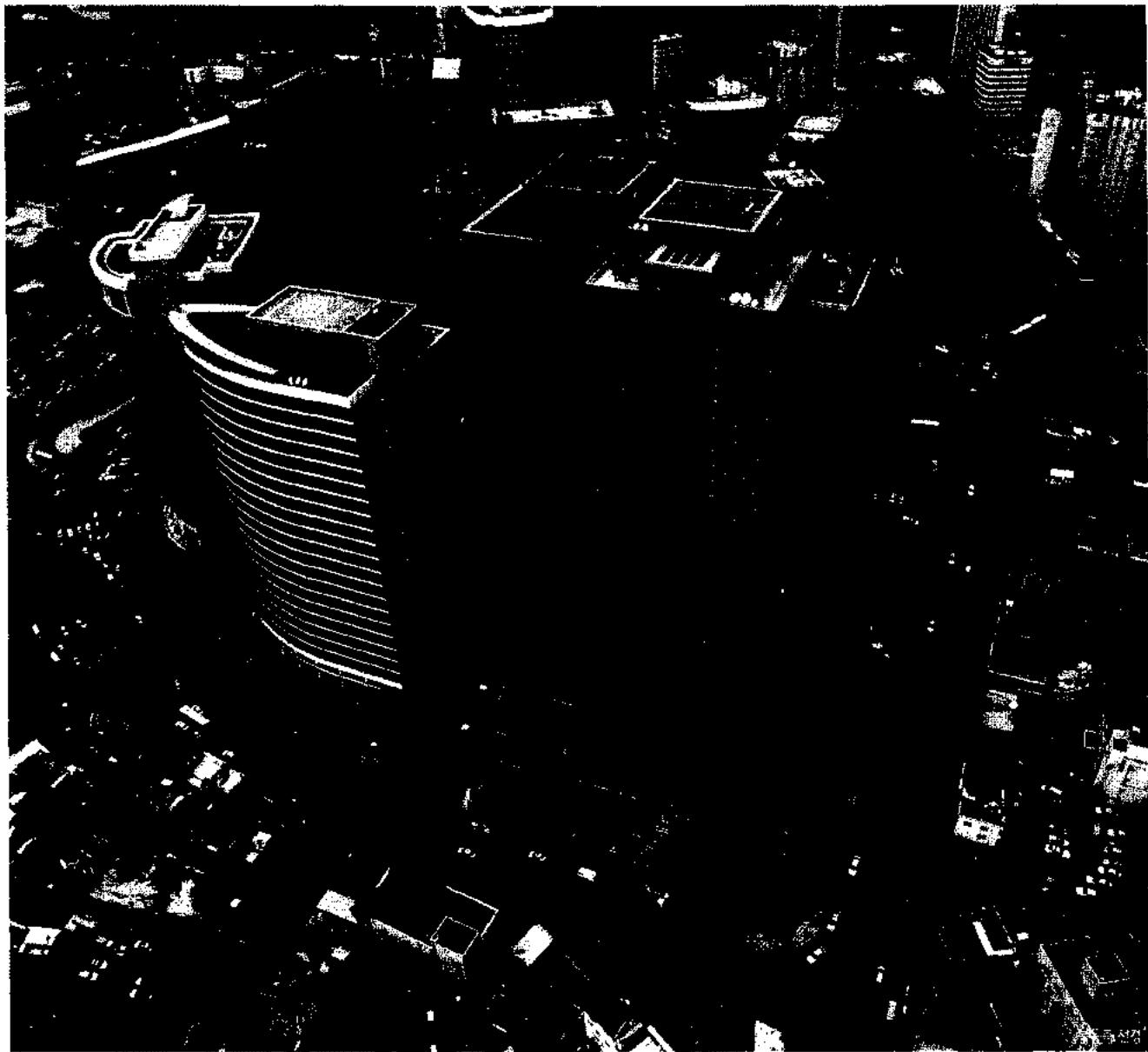
남산트랩플라자

Project Team | Kim, Kyung-won; Kim, Hui-dong; Jang, Ho-cheon
Mun, Min-ho; Lee, Ha-young; Lee, Choung-hyun
Client | KCH Industry
Location | Seoul, Jung-gu, Namdaemun-ro, 5ga, 716
Site Area | 5,346.5m² Building Area | 2,550.15m²
Gross Floor Area | 79,442.23m² Floor Area Ratio | 998.93%
Building to Land Ratio | 47.70% Structure | R.C + S.R.C.
General Contractor | SamSung Enc. Building Scope | B6, 37F
HVAC Engineer | You one ENC
Electrical Engineer | Keon-il Eng.
Structure Engineer | Dong Yang Eng. Co., Ltd.
Finishing Materials | Unit Curtain System, Project Window
Photographer | Nam, Goong-sun
Cost | 1,2000 m KRW



제작자 — 설계자 (K) 김경원 (K) 김희동 (K) 장호천
 Architects — Sull, Young-chan, KIA
 사진작 — 남공선





충돌과 원충

주상복합기숙은 상충되는 용도를 하나로 다지어 수용하게 되므로 각용도의 기능을 융합하 수행하면서도 상충될 수밖에 없는 두분이 최소화 되도록 스쳤다는 특인성이 있다.

업무와 주거

업무와 주거를 수평적인 별동으로 병치하였다. 건물이 별동이 모로 출입구 등 모든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었고 다만 두 용건은 시선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빛과 배치하였다. STX 사옥과 CJ 사옥사이에 칸 모퉁이 대지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동이 두 시내에 오전하게 하고 주거를 모퉁이에 조밀집이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또한 주거는 업무 모두 남진과 통상공용으로 전망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차량과 보행

차량은 도로라벨에서 스팽진입하여 업무와 주거이용 차량 모두 별도의 Drop off zone 을 기친 후 서로 다른 별도의 럼프를 이용토록 하여 신호 차량간의 상충이 없도록 하였고, 보행자의 진출입은 차량의 진출입 보다 높은 레벨에 두어 보차분리를 유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하였다.

수직과 수평

비슷한 사이즈의 드개동이 각 기능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열무동은 커튼월 우주의 외침에 바로 옆에 위치한 STX 사옥의 수평성을 연장하였고, 주거동은 주거성의 향상을 위하여 개구부를 작게함으로써 수직성을 강조하여 동일한 Mass 속에서도 외형만으로 각 동의 기능이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Soothing Conflict

Most important thing to design multi-purpose building is reducing the problem, which is caused from the existence of opposite characteristic programs in one site.

Office and Dwelling

We placed office and residence in horizontal juxtaposition. With providing building's program like separated entrance in each masses, we can embody the definite division of function. And putting on two different masses as oblique position simultaneously, it also solve the sight-conflict which can be occur by juxtaposition. As our buildings rise in the corner of site, between STX building and CJ building, we placed office building to be close to neighborhood office buildings (STX&CJ) and set the residence building at the corner of site to keep resident's privacy. Moreover We planned to secure the great view of Mt Nam and Yang San Park for both users of buildings.

Pedestrians and Veh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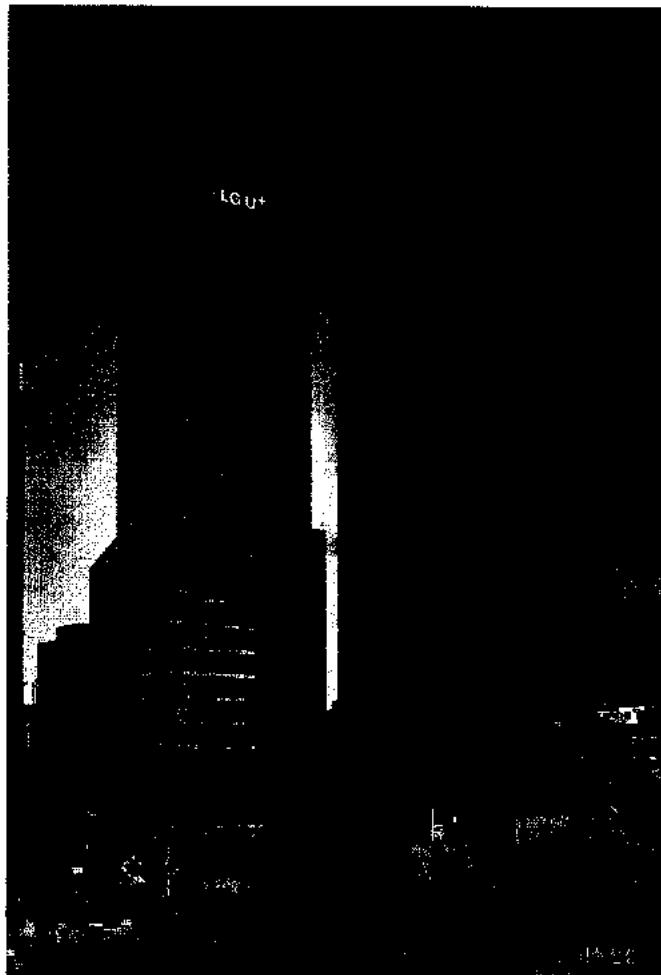
All kinds of vehicle user for office and residence enter to the parking area at the same level of road. And also they have their own drop-off zones and ramps to prevent car contradiction. And pedestrian's entrance level to the building is upper than car's. So our buildings could have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for safety of pedestrian.

The horizon and the vert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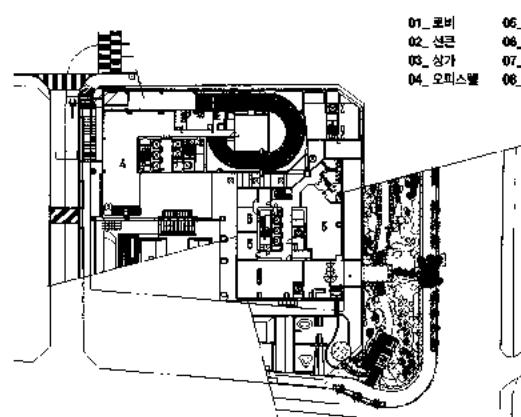
To express function of each similar size of buildings. We made horizontal lines which come from the STX-building to the office building covered with curtain-wall. While we diminished the size of residence's windows to emphasize vertical lines of residence building and to improve the dwelling performance. Through this process, people can recognize each building's program just with its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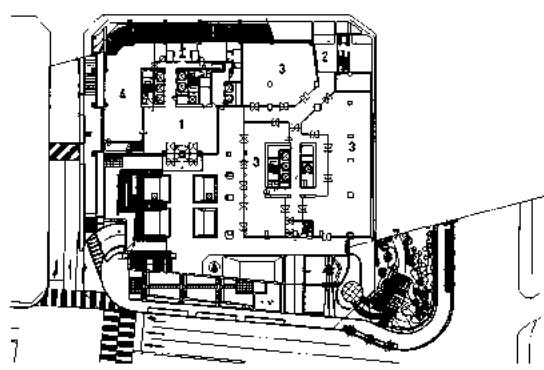
인테리어 사진



LG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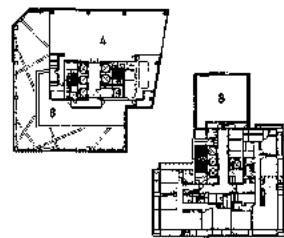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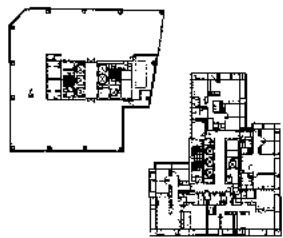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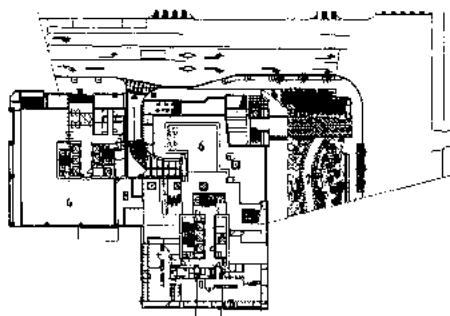
0 2 5 10 20m



최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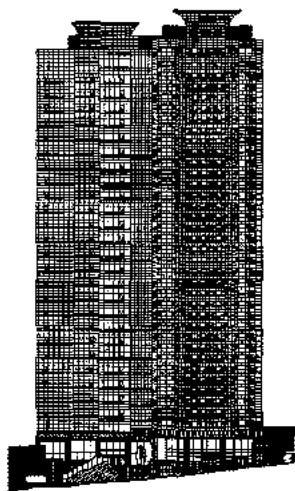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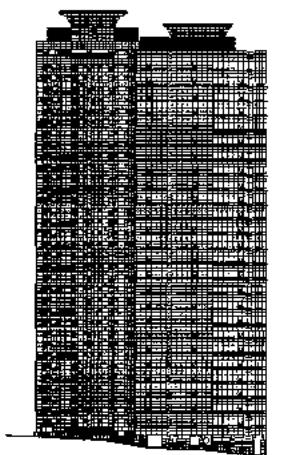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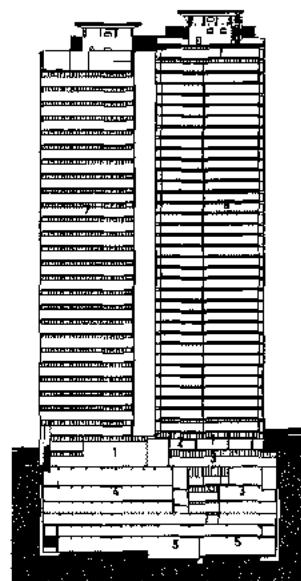


02 5 10 20m

정면도



배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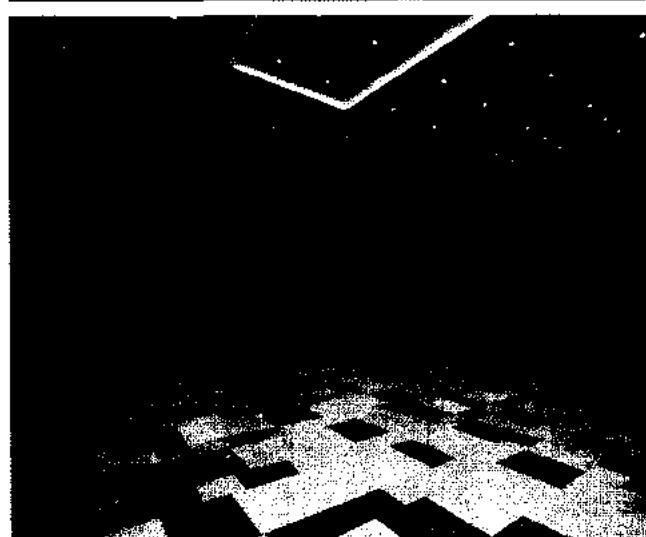
- 01_로비
- 02_주민공동시설
- 03_근린생활시설
- 04_주차장
- 05_기계실
- 06_전기실
- 07_업무시설
- 08_공동주택



임무동 로비 가난



임무동 로비



임무동 로비



임무동

서울지하철 9호선 926(차병원사거리) 정거장

Seoul Subway Line-9, 926(Cha-Hospital) Station



김성민 | Kim, Sung Min, KIRA
(주)한섬 건축사사무소
Hanssum Architects & Associates, Inc.

• **약력**

Location | Seoul Gangnam-gu Nonhyeon-dong 651-2

Site Area | N/A

Building Area | N/A

Gross Floor Area | 110,608 m²

Structure EBC

Structure | R.C

Building to Land Ratio

면천계으

총 층 | 2437㎡ 관점 흐리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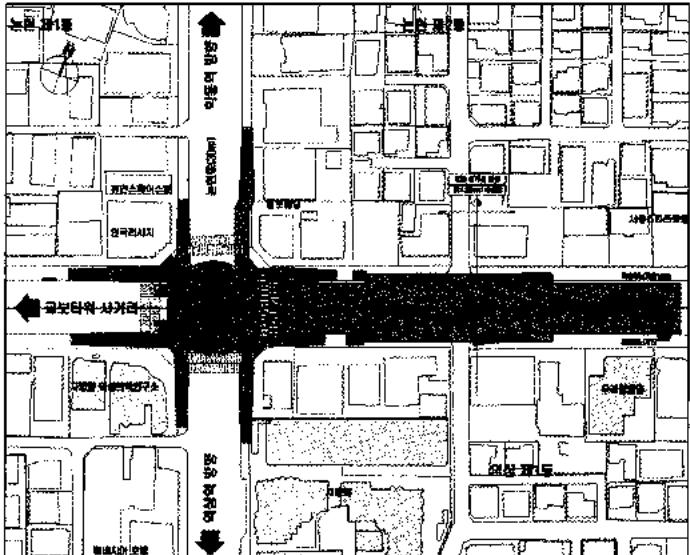
제11조(부록) 부록 제1호

이전화 | 031-848-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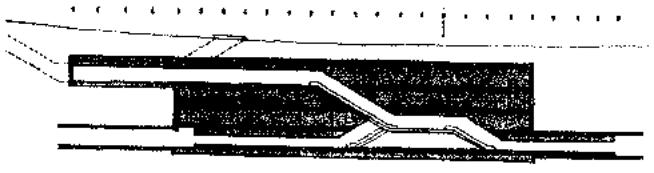
자하2종 2011년 기능설

지하3층 1950m² 연결통로 기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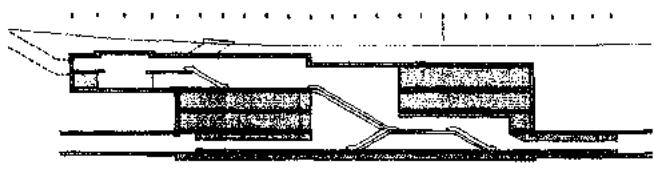
지하4층 | 2,319㎡



鳴天道



초기안 단면 스케치



발전안 단면 스케치

비교적 일찍 개업을 하다 보니 벌써 20년 가까이 설계사무소를 지켜오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이 필자의 주변을 거쳐 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중에 더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기 마련이다. 너무 과분하고 황당했던 것 보다는 오히려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 너무 과욕을 부린 것 보다는 조금만 욕심을 부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다.

돈 많은 회장님의 개인 프로젝트도 나름대로 재미있지만 하루에 20만 명이 사용하는 정거장을 설계할 때의 괴감에 중독이 되어 남들이 잘 모르는 교통 시설을 꾸준히 설계해 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6호선 현상설계에 당선이 되어 개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대구, 광주, 부산, 인천의 지하철에 관여하였고 9호선 민자사업에도 참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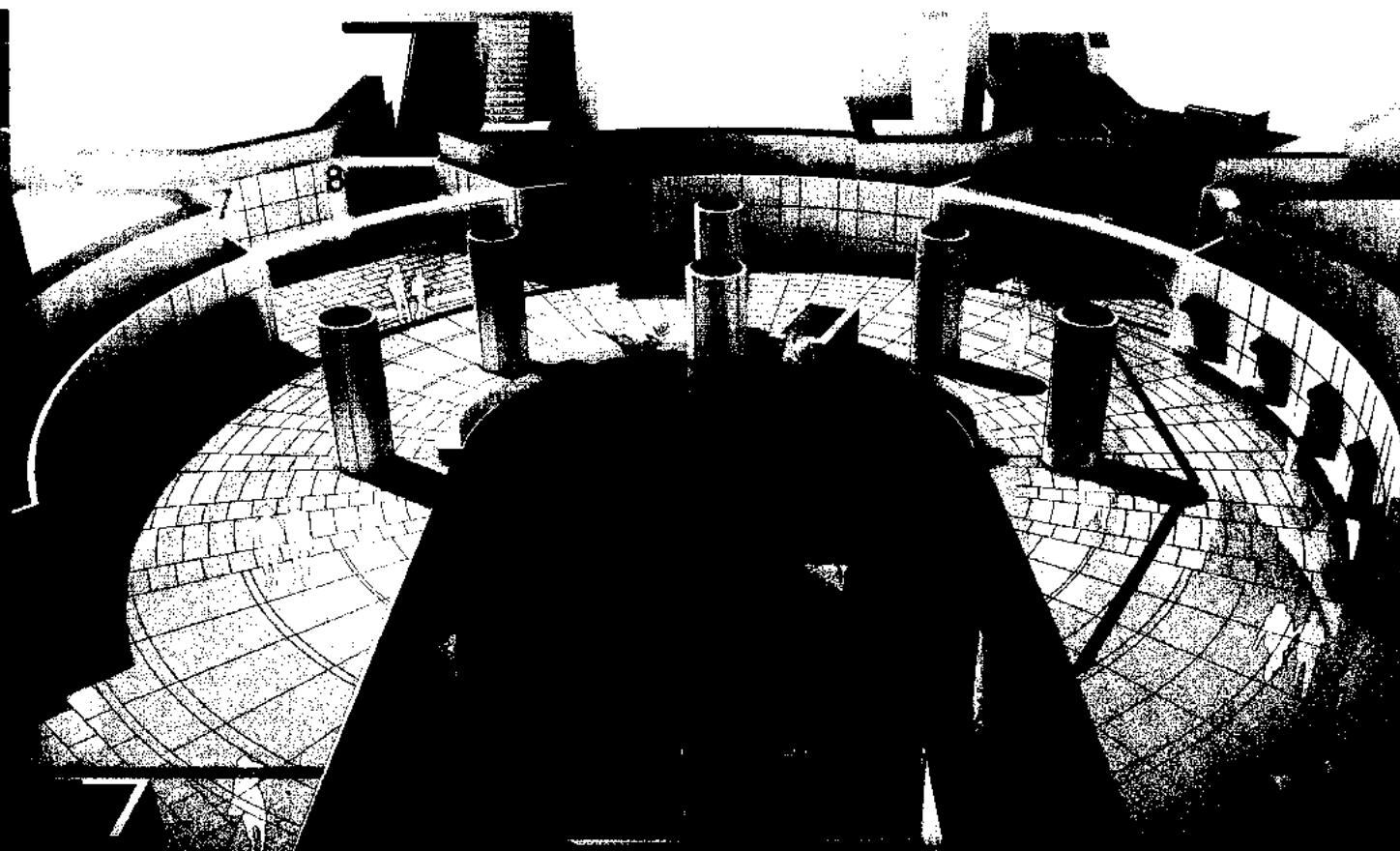
일반적인 건축설계 보다 지하철 설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토목엔지니어가 전체를 리드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텐키로 수행하게 되면 건설회사의 입장에 좌우되어 건축설계의 개념은 중간에 흐지부지되기가 일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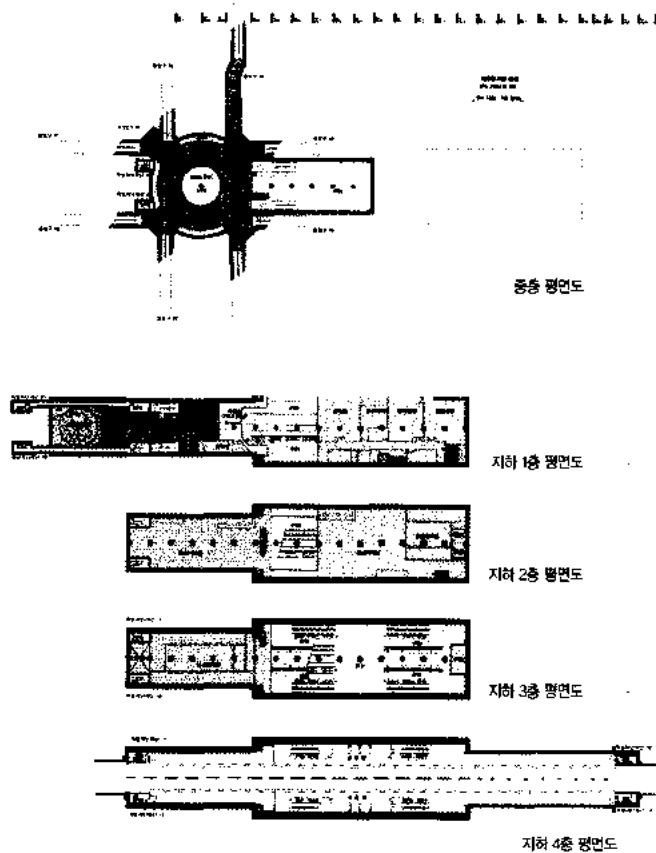
여기에서 소개하는 926정거장도 9호선 2단계로서 텐키로 발주되었던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이번 926정거장에서는 전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건설회사와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비교적 건축적인 개념이 상당부분 유지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하철 정거장을 설계하면서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들을 하나씩 고집 어내어서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가 구석구석에 숨어있다.

강남의 중심인 차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외부출입구에서 대합실 까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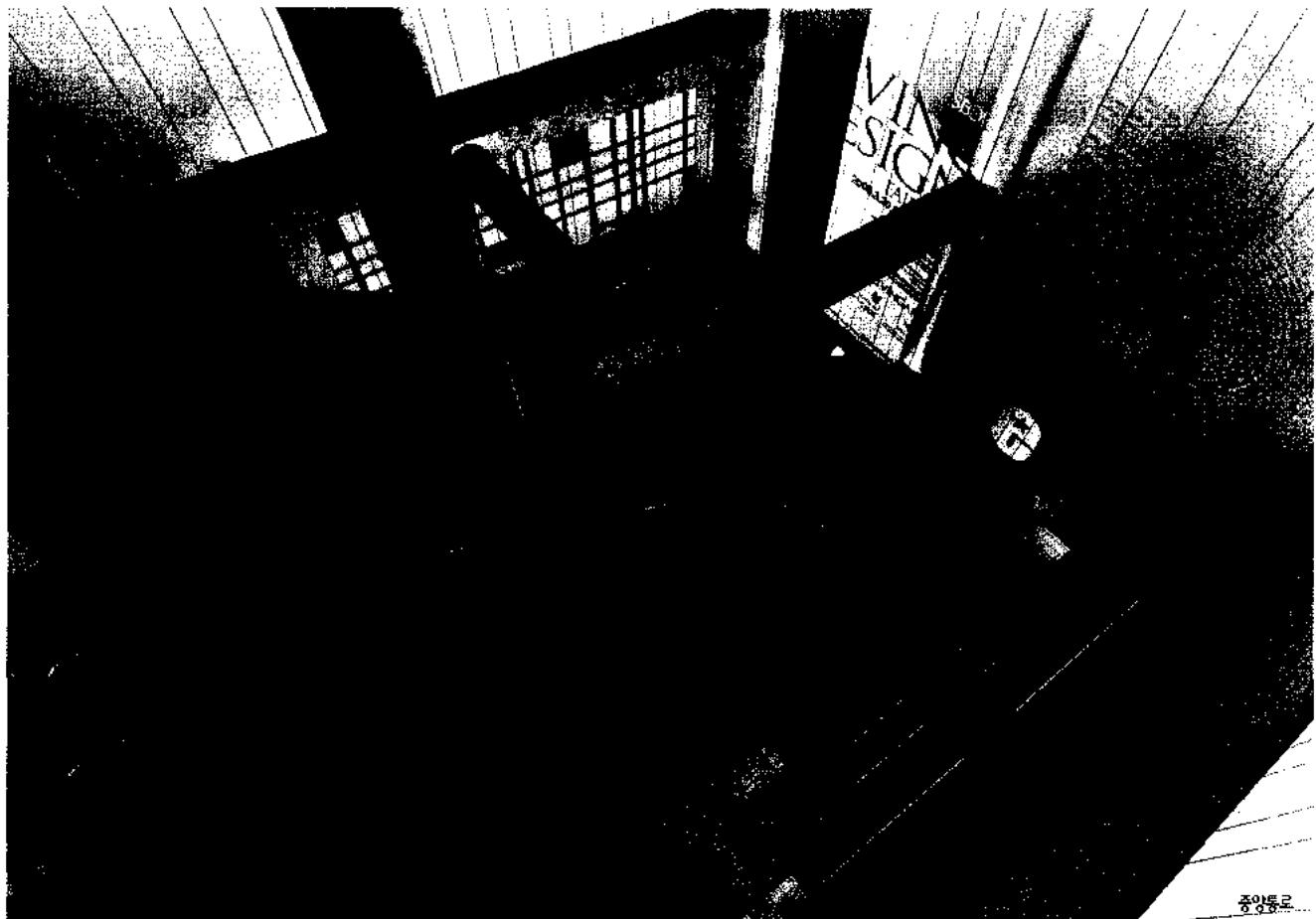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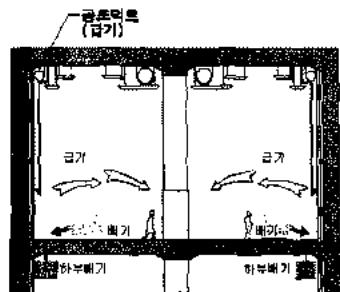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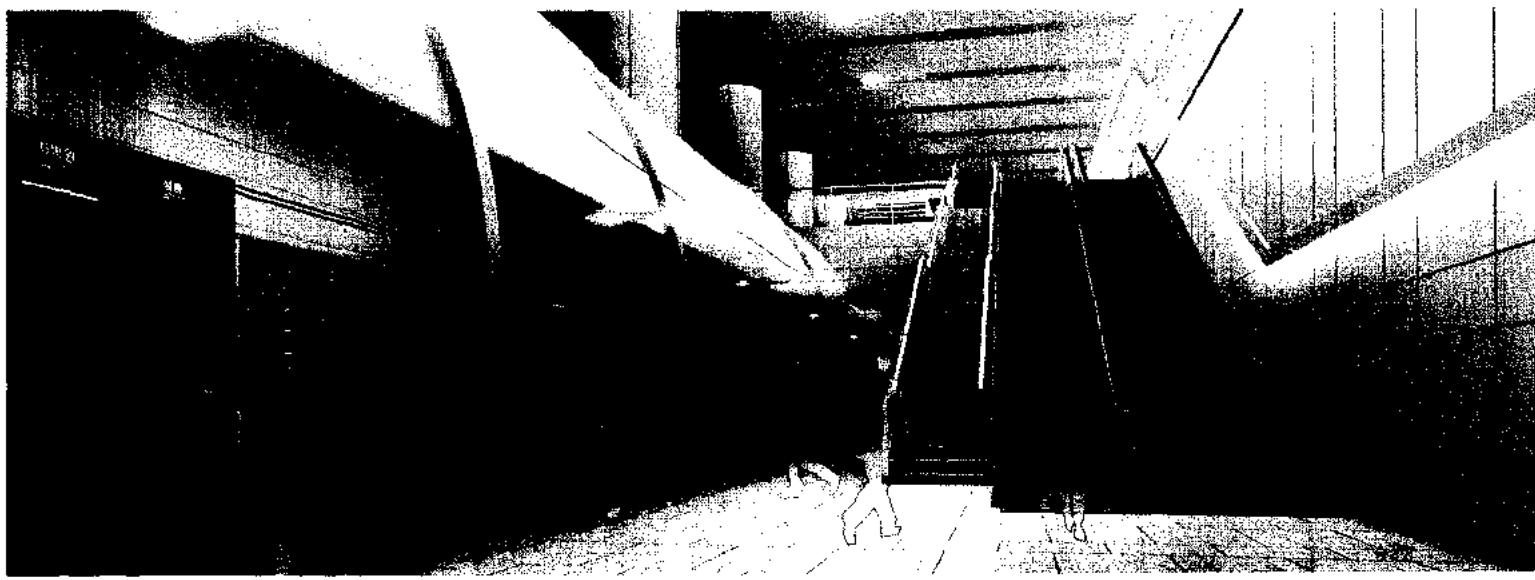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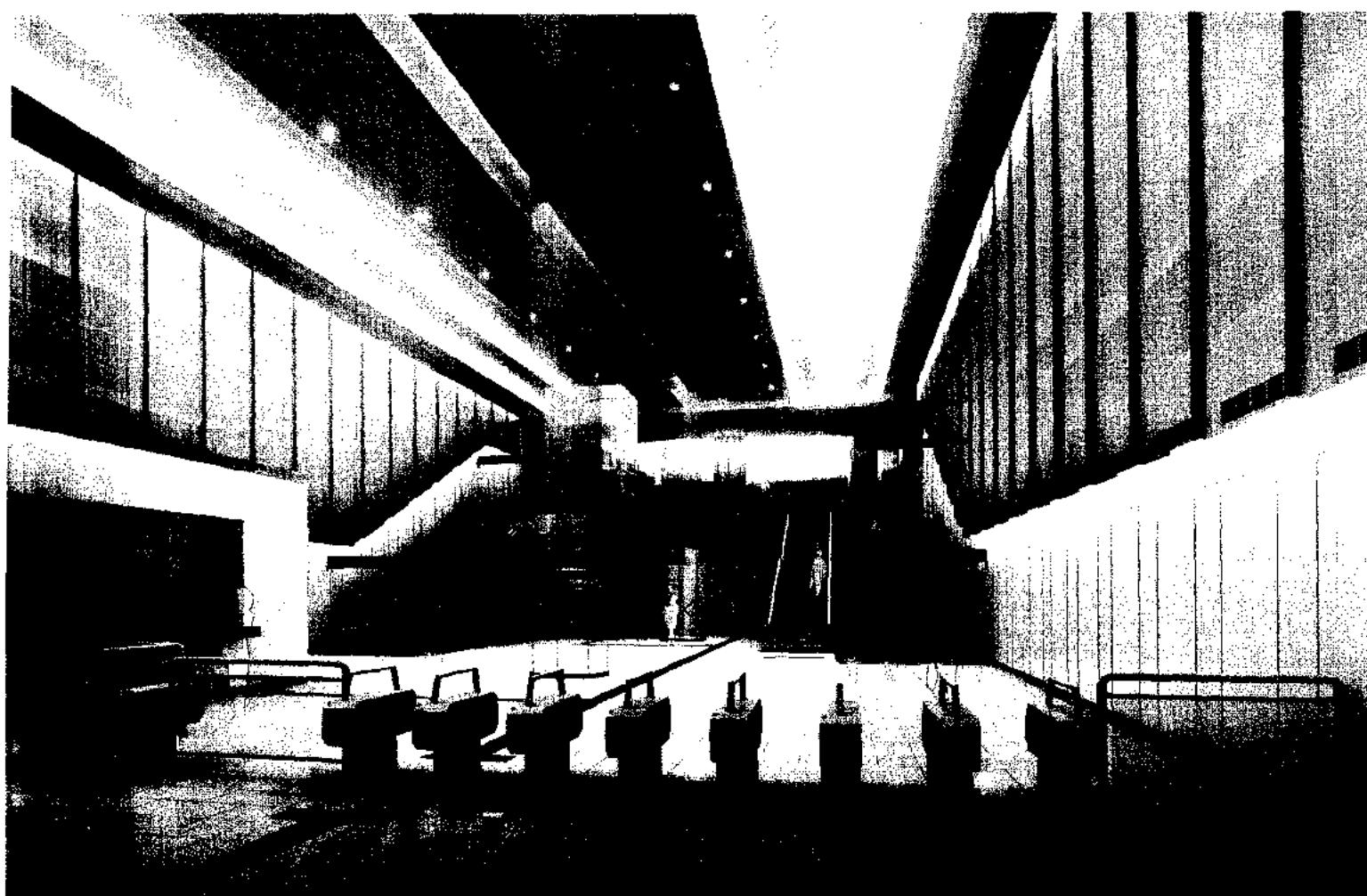


한 짧게 내려오기 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의 결과로 원형 광장의 중층(Mezzanine)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거장에 들어갔을 때 시원한 물소리와 숲이 보이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원형 광장의 중앙에 선큰 가든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지하철 회장실은 좁은 통로 속에 있는 답답한 공간이지만 여기서는 회장실이 정거장 내부에 위치하면서 회장실에서 숲과 폭포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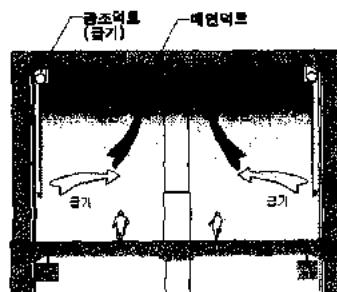
특히 지하공간의 최대의 적은 폐쇄감이므로 지하1층의 대합실은 10m의 천정고를 유지하게 하였고(설계기준은 3m), 지하층 대합실에서 20m 아래의 지하4층 승강장이 내려다보이도록 수직적인 오픈공간을 만들고 이 속을 에스컬레이터가 관통하는 다이나믹한 경험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부 공간의 큰 기적(ar plenum)은 화재시 연기를 가두어 피난에 유리하고, 승강단 단부 4곳에 모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 막다른 통로가 없도록 하는 등 국내 방재기준은 물론 대표적인 국제기준인 미국화재안전기준(NFPA)도 만족하는 정거장이 되도록 하였다. 대합실의 천정은 노출콘크리트로 하고 건축마감된 공조덕트의 하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강조하였고, 상부급기+하부배기로 미세먼지의 부유를 막도록 설계하였다. 이런 우리의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인지 설계점수에서 월등히 앞섰지만 덤팡 공사비를 제시한 상태에게 가격점수에서 밀려서 결국 2등에 만족해야 했다. 현재 공사 중인 차병원 사가리를 지날 때면 아직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





공조시스템 - 대합실(평상시)

- 상부급기 하부측면배기로 먼지 부유를 방지
- 이용자 거주 위치에서 공조를 하는 휴먼스케일 공조



공조시스템 - 대합실(화재시)

- 상부 급기 최상부 배기
- 상부로 모이는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연
- 피난동선에 신선한 공기 공급

을지로 119안전센터

Eulji-ro 119 Fire Station



류재은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인터뷰 일자 2011년 3월 4일
장 소 시건축 회의실
참석자 류재은 건축사, 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류재은 건축사는 지난 1월에 만날 예정이었다. 일정상 미루어졌고 이제야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는 바쁜 분으로 국내에 드물다 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중규모 사무소를 착실히 운영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이었다.

시건축(始建築)의 이름으로 개업한지 19년이란 시간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건축사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도법, 그리고 기준이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싶다고 하였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박인수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터뷰를 못하게 놓여 아쉬웠는데… 이제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유정훈 :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류재은 : 지난번에는 개인적인 사정이어서 쇠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반에 휴가를 계획해서 다녀왔거든요 휴가를 미룰 수가 없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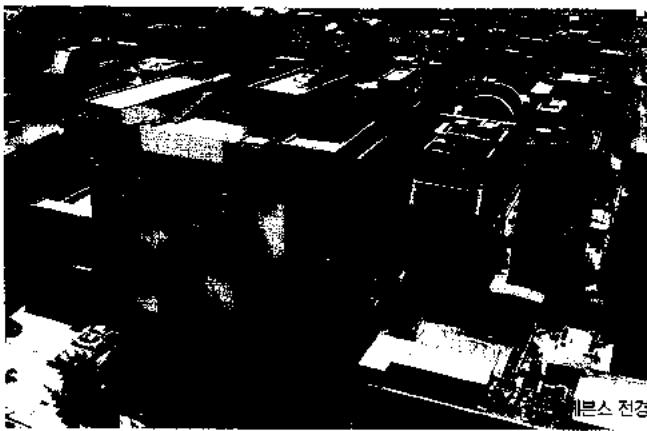
유 : 오늘도 편하신 마음으로 이야기 하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류 : 감사합니다. 요즈음 'H 호텔' 리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라 회의실이 번창한 것 사과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을 잠깐 소개드릴까 합니다.

박 : 좋습니다. 전에 이러한 경우는 없었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류 : 우리 사건축에 직원은 50명이 조금 안되고, 건축사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

니다. 개업한지는 이제 19년이 됩니다. 그간 이러저러한 일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창동에 있는 김종영 미술관, 논현동에 있는 세븐스 헤븐 균린생활시설, 그리고 을지로 119센터들을 대표로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공동주택들을 좀 하고 있지요, 김종영 미술관은 평창동에 단독주택 두 개 필자를 모아서 지은 것입니다. 대지가 매우 복잡해서 건물의 배치가 지그재그하고 계단식으로 여러 레벨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개울이 있어서 그 개울을 따라 건물이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 건축기협회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븐스 헤븐 건물은 균린생활시설인데 건축주께서 은퇴하시면서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서 참 많은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도시적 상황도 생각하였고, 균린생활시설로 또 어떤 가능성 이 있을까요 고민 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이 난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작은 균생(近生, 균린생활시설의 줄임말)들을 총총이 쌓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여 이러한 건물을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박스가 병원, 사무실, 가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70%정도 지어졌을 때, 모 기업에서 건물을 통째로 빌려버리더군요. 그래서 처음의 의도와는 달라졌지만 그 임대한 기업에서 각 박스들을 나름대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븐스 전경

유 : 각 다른 업종끼리 크고 작은 공간을 맞추어 사용한다는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임대에 우려가 있을 법도 했는데 건축주에게는 차라리 질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류 : 네. 그 기업이 10년 계약으로 빌려서 임대에 대한 고민은 없어졌지요. 사실 저희도 하나의 빙스를 임대해서 쓸 계획을 하였는데, 그 덕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축주 본인만큼은 작은 박스를 하나 확보해서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작지만 총고가 한 5m 되는 방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실은 임대한 기업에서 전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구, 주방가구, 인테리어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 :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류 : 한 사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 : 이 건물의 배면은 어떠한가요?

류 : 배면은 좀 더 간단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단위가 전면보다 큽니다.

박 : 흥미로운 것이, 사실상 기획할 때만해도 임대용 건물이 어떻게 임대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설계하신 것처럼, 각 박스들이 어떠한 업종에 임대가 될 것이라고 결정하고 진행하긴 좀 어렵지 않았으셨나요? 각 상자들이 크기도 다르고, 또 연계도 쉽지 않고…

유 : 하지만 결국에는 지어진 것을 보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난 몇 평정도면 되니까 그에 맞는 것을 달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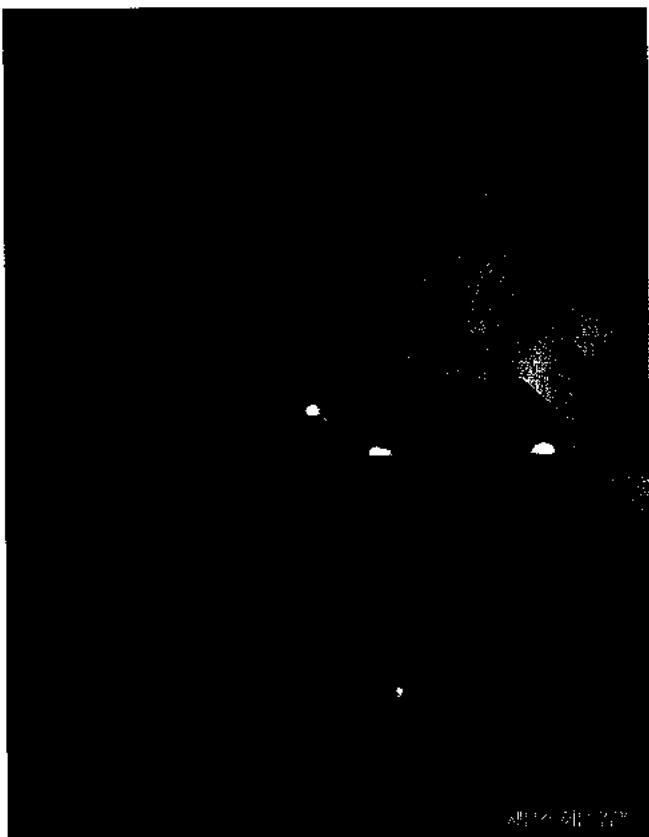
류 : 당시에는 지어지면 임대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줄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감안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건축주께서 각각 임대하는 것 보다 단번에 임대하는 게 훨씬 편할 것으로 판단하시고, 한 기업에 전부 임대를 하였습니다. 아마 금전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셨겠지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이 건물의 평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단위로 임대가 될 수 있고, 한 중에서도 나누어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대의 조건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코어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게 하였어요.

유 :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건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한 층의 면적 0. 어느 정도 됩니까?

류 : 한 200평정도 됩니다. 오히려 저의 걱정거리는 임대 문제 보다는 공사비였어요. 평당 330만 원 정도로 지어야 했지요. 8개의 시공사가 입찰을 했습니다. 건축주께서 세 곳을, 그리고 제가 다섯 곳의 시공사를 추천 했는데, 건축주께서 데려온 시공사는 모두가 응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소개한 다섯 군데가 응찰해서 제일 짠 곳을 뽑지 않고, 최저가에서 두 번째인 4위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주변의 공사비 시세는 평당 300만 원 정도였는데, 건축주께서 10% 더 쓰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승낙해 주셔서 평당 330만원에 시공하였습니다. 총마다 평면이, 다르고 발코니가 다 있어서 입주자들이 지상층 같은 느낌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 : 이름이 세븐스 해븐인데, 무슨 뜻인가요?

류 : 세븐스 해븐은 건축주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유대인과 중동의 이슬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곱 개의 천국 중에서도 최상의 천국이 일곱 번째 천국입니다. 신들만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또 오래전에 미국에서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건물 이름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건축사 분들은 멋있는 이름도 생각하고 하시는데…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읍지로 119센터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음을 때부터, 이 119센터(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 디자인 파크가 건설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죠. 전체 부지에서 땅을 조금 잘라내서 소방서에 땅을 준 것인데 보시다시피 4분의 1원의 노력을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에서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건물에서 일할 소방관이었습니다. 외국에 보면 소방관들이 참 멋있잖아요. 영웅이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이 건물의 주인공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소방차를 보면 매우 기능적이고, 성능이 우선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도 좀 기능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건물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에서 중요한 랜드 마크가 될 동대문 디



세븐스 해븐

자인 파크 옆에 지어지는 건물이니, 좀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옆 건물을 의식하는 것 보다는 소방서 기능의 본질적인 것을 우선 만족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지가 삼각형으로 생겨있어서 두 개의 방향성이 생각되었고, 또 경사지이었기에 지형에서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낮은 곳에는 주차를, 높은 곳에는 사무실과 숙소를 두는 것으로 하였죠.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소방차를 주차하는 곳을 바라보는 높은 곳에 통제실이 있고, 여기에서는 내부 전체를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곳이 더욱 좋은 것은 상부에 천장을 마련 할 수 있어서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지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로서 하부에서 사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지요. 또 소방호스를 널어 말리는 공간도 마련되었어요.

유 : '소방서' 하면 연상되듯이 소방관들이 파이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나요?

류 :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파이프 시설이 필요한지를. 그랬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취침하다가 간급 출동할 때, 밤이 빠는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소방관이 "소방관은 절대 뛰면 안 된다. 언제나 천천히 다니라"고 했답니다. 소방관이 성급히 뛰어다니다 보면, 위급상황에 제대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이 통제실에 대하여 더 말씀 드리자면 이곳이 비행장 관제탑처럼 적은 인원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층부가 소방관의 숙소인데, 대지에서 떠 있는 모습입니다. 디자인 파크 쪽에서 보면 숙소 부분이 주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파크와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소방서는 소방서답게 처리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 : 사진으로 보니, 동대문 디자인 파크에 벌써 완성된 곳이 있군요.

류 : 네.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해서 복원한 부분과 또 박물관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방서도 완성되었고요.

유 : 그 일부가 이미 일반에게 공개 되었나요?

류 : 작년 10월경부터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건물 쪽을 공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소방서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후 바로 댓글이 불더라고요. "이렇게 돈들이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소방서다" 뭐 이런 글도 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건축은 예산이 늘 정착합니다. 소방서에 들어가는 장비와 규모 등이 표준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건물도 일반소방서와 같은 비용으로 지어졌습니다.

박 : 그게 얼마정도 인가요?

류 :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공공건물들의 단가는 일반 건물보다는 높습니다. 이 건물이 소방서다 보니, 소방관련시설, 숙소, 화장실 등의 시설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좀 높죠. 하지만 서울 시내의 어느 소방서든 비용 기준은 모두 같습니다. 이 건물이 작년에건축문화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흥온동에 재개발 하는 건물인데요. 기존에 조합에서 생각한 안은 '그자 형태의 배치에 비자저고리 모양의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이었지요. 부지 주변에 흥제천과 북한산 등이 있어 이러한 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대지 내의 고저차가 약 40m정도 납니다. 대단한 경사죠. 당초의 계획인이 심의에서 부결되어 저희에게 다시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안을 수정해달라는 것이었죠. 사실 좀 살펴보니 조감도와 배치도가 서로 달랐어요. 조감도는 건물들을 매우 쉽게 그려 공간들이 넉넉하게 보이지만, 배치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통경족이 살아나도록 선형 배치를 했고 판상형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북한산 통경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 : 그런데 요즈음에는 판상형이 좀 지탄받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류 :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은 케이스 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상형이 다 나쁘지만도 또 좋지만도 않죠. 경우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지는 판상형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 : 판상형으로도 다양한 연출을 하셨군요.

류 : 공원과 연계하고, 래밸을 좀 다채롭게 하고 건물도 오철을 두어 공간을 만들어 내었죠. 주 가로와도 대응하도록 가로변 매스의 저층 두개 층은 상가로 구성했어요. 이 건물은 가로변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 길지요. 보통 심의에서는 유닛을 5개 이상 성도 이어서 불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매스에서는 유닛이 20여 개나 붙어 있습니다.

유 : 심의를 통과 하였나요?

류 : 네.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 유럽의 도시형 주택을 보면 그렇게 긴 것들이 많이 보이죠.

유 : 그럼 이 안을 사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것 일까요?

류 : 그럴 것입니다. 이 안이 그러한 최초 안이니까요. 대신에 저희는 건물의 중간부분을 좀 뚫었습니다. 구멍을 통해 저 면 쪽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죠. 이 단지의 스케일로 보아 이 아파트가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드는 산자락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 : 지금 이 안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류 : 사업승인 준비단계입니다.

박 : 건물의 디자인을 보면 유닛마다 둘쑥날쑥한 형태로 다양한데요. 이런 것을 디자인 하시는데 면적 등의 문제는 없었나요?

류 : 사실 입주민 입장에선 '염집은 벌코니가 있는데 나는 왜 없나?' 뭐 이런식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만큼 비용으로 싸게 해서 공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차별성 등이 있어야 디자인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를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 : 만일 오철부가 벌코니, 즉 서비스 면적으로 만들어 내신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격 차이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비스 면적이란 개념이 입주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현행 제도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A'직업인 경우, 하나는 서비스면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면적이 없을 때 전용면적이나 분양면적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가격 차이를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렵게 되죠. 어쨌든 이제 시업승인 단계이니, 실현될 수 있겠네요.

류 : 네. 이 건물은 시작할 때부터 시공사가 성해져 있어서 시업승인 후 바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후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과 청담동 주상복합을 더 보여 주었으나, 본지 편집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박 :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를 시작한 취지 및 동기는 건물을 통해서 그 건물을 만든 사람과 그의 사무실 조작을 함께 보면 좋겠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삽지들에 실리는 좋은 인터뷰들이 많이 있지만, 대개 간篙론에 치우치거나, 인물론에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니 건축을 너무 어렵게 만든 경향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건축의 상황은 간과하게 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뷰는 적절한 선에서 수위조절을 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류 : 이 시리즈를 이제 끝내려 합니다. 류 건축사님께서 미마를 장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삽지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사라면 거의 잡지를 받아 보시기 때문이죠. 특히 저희 인터뷰가 흥미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성장 과정상에 겪었던 노하우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는다고나 할까요? 오늘도 닮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박 :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 50명의 직원과 7명의 건축사. 그리고 19년의 업무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든 과정을 여러 차례 겪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류 :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수학 후, 7년 정도 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아카풀코에서 2년 근무를 하고, 동입을 제외 받아 개업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카풀코의 직원 몇 명이 저와 함께 퇴사를 하여 같이 팀을 이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정도 동업을 하다가 개업을 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 :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유학을 가지고, 일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러시는데 류 건축사님은 어떤 계기를 있으셨나요?

류 : 저는 대학교를 77년도에 졸업하였고 광봉대 입대해서 3년 근무하고, 제대하고 1년 정도 김 원 선생이 운영하시는 '광장' 건축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 유학을 2년간 하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일반적인 설계사무실에서 7년 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더 이상 있자면, 미국 사람이 되거나 한국 사람이 되거나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관련 문제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워낙에 들어 올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89년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끝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박 : 개인 사무실을 차리신 보다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개인적인 동기보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또 한 가지는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사무실을 갖고 싶어하는데, 막상 실현시키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류 건축사님은 어떠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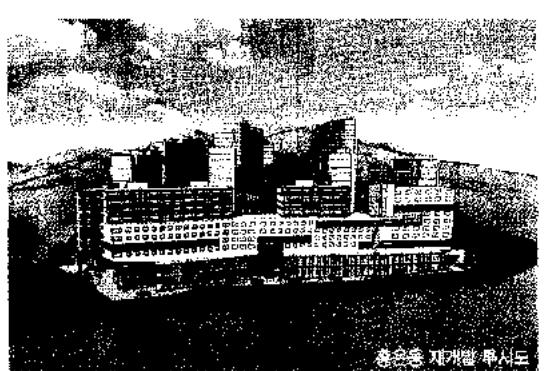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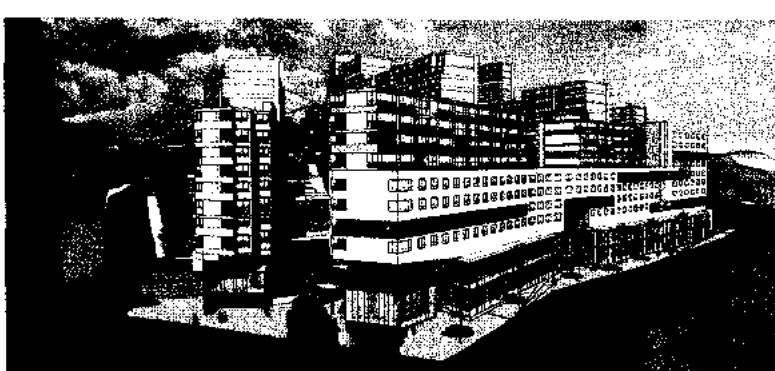
류 : 하지만 반대로 쉽게 치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저의 학교 동기들은 모두 개업을 했더군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 급히 개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성숙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마침 동업을 세워 받았고, 굳이 거절하기도 어려워 어느 정도 둘째아 시작한 것입니다. 동업을 제안하신 분은 이미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시던 분이어서 비교적 용이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희 직원들이, 어느덧 거의 모두가 20년 정도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 : 그간 시장 동향을 하시다가 왜 또 새로이 개업을 하셨나요?

류 : 동업을 하다 보니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인데, 사실 제가 너무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장피한 이야기긴 한데, 제가 나왔다기보다는 훗계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별로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단히 화가 나셨지요. 그리고는 제가 나오게 되었죠. 또 마상 나간다고 하니 잡기도 하셨는데…

박 : 엄질려진 물이었군요. 그렇게 나오실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인데, 결정이 쉽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류 : 네. 당시, 그 사무실에는 제가 데리고 들어간 직원과 원래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나뉘게 된



총운동 재개발 무시도

것입니다. 마치 분사(分社)같은 거죠, 저희는 한 7명 정도 되었습니다.

박 : 7명.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인원일 텐데요.

류 : 네. 그래도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하나 설계를 하고 자으면, 또 다른 분들이 찾아주시곤 했죠.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넉넉지는 않았지만, 운영을 할 수는 있었어요.

유 : 오늘 보여주신 것이 대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인데, 개업부터 2000년대 충반까지, 즉 김종영 미술관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류 : 주택관련 프로젝트들을 꾀 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한 70개 정도 하였습니다. 자금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개인적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더 고생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건축주의 관심이 좀 덜하지만 주택은 달라요. 같은 건축주의 주택과 사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옥은 설명 드리고 다 지어지면, “뭐, 잘했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시는데 비해 개인주택의 경우는 매우 꼼꼼하게 쟁기시더군요. 자는데 냉장고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매우 세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세한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좀 차이가 커요. 열심히 해서 단독주택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 건축주께 좋은 일했다고 생각되고 또 자부심도 생기기도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의미가 훨씬 크지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 훨씬 보람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박 : 혹시 류 건축사님께서는 원기 선호하거나 특기가 되는 유형의 건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던가…

류 : 제 특기는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골치 아픈 건물을 하는 것이 특기인 것 같습니다.(웃음) 그러나 신경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껏 계속해서 매년 두세 채 이상 씩 하고 있으니 가장 많이 설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박 : 사무실이 19년 동안 지내 오면서 굴곡도 있고, 성장도 하고 했을 텐데요,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을까요?

유 : 예를 들면 IMF외환위기 같은 것도 있고요.

류 : 비교적 꾸준히 성장한 편이에요. 물론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근 20년 동안 저와 같이 일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있어서 함께 실력이 차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저의 20년 전은 실력이나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었죠. 그러나 함께 자라왔다고 할 수 있지요. 규모는 저뿐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만큼 그들 주변으로 팀 인원을 더 필요로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인지 뭐 특별히 인원을 늘리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스튜디오 타입 사무실을 하려면, 15명이상은 안된다고 인원수를 한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나쁜 아니라 간부들도 그대로 있어야 하고, 결국 모든 게 정지되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박 :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변곡점이 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류 : 세븐스 해븐 건물이 저희에게 일종의 변곡점을 이를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개를 통하여 저희가 알려지는 편인데요. 세븐스 해븐 건물을 통해 외부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일들도 좀 생기게 되었죠.

박 : 혹시 IMF 외환위기 때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류 : 당시는 제가 세종대에서 교수직을 할 때입니다. 제가 97년에 세종대 건축학과를 창과하고, 학과장을 했었죠. 그런데 몇 년 해보니, 학교를 더 못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가장 미안했어요. 간혹 수업 중에도 전화를 받아야하고 또 수업 끝나고도 학생들과 길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참 미안하였지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직을 맡으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 : 19년간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어떤 경우셨을까요?

류 : 사실 뭐 항상 어렵죠. 돈 문제는 늘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적금 부었던 거 찾는 달에 바로 그 적금으로 월급을 주게 된다던지… 참 아슬아슬 합니다. 그려면서도 이 정도 성장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박 : 시간축의 직원 선발 기준이 있나요? 만일 기준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그간 뽑을 때 주로 보신 건 어떤 면인가요?

류 : 올해에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뽑았어요.

유 :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류 : 포트폴리오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자기표현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저희는 공채처럼 공고하고 서류전형하고, 포트폴리오 보고 인터뷰하면서 지원자가 스스로 많이 이야기 하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윗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기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정체되면 안 되거든요.

박 :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뽑아오셨나요?

류 : 아닙니다. 금년부터 그런 것이고, 그 전까지는 소위 '잘한다'는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게 훨씬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 :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검증하고 있는 중이시군요.

류 : 그렇습니다. 지금은 간부직원만 열심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기여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는 전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유 : 신문에서 보았는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다른 분야는 다 진화하는데, 왜 교사(教師)는 진화하지 않느냐?”고 하였답니다. 같은 이야기로 “건축은 왜 진화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류 : 네. 진화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변화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 : 사무실 직원들은 들어오면 계속 잘 남아 있나요?

류 : 좋은 직원들을 뽑으니 자꾸 유학을 가서 또 결원이 생기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 : 유학 갔나가 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류 : 네.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유 : 19년이 되었다는데 오래 일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떤가요? 파트너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가요?

류 : 작년부터 파트너 제도의 첫 단계를 시작하였으며, 단계를 거치며 계속 합리적인 무리를 찾으려 합니다. 잘 되리라 봅니다. 작품은 공동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급이 저까지 6명이 있는데 각자의 담당 프로젝트를 책임 있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 각자의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개인이 수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류 : 그런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들어온 일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 : 주신 명함에서 소장으로 직책을 쓰셨는데, 시건축에 소장은 류 건축사님 혼자 계신가요?

류 : 소장은 지하고 한철수 소장, 둘이 있고, 부소장이, 네 명 있는데 부소장 네 명은 다음 달에 소장으로 승진합니다.

유 : 혹시 대표나 사장으로 불리시고 싶진 않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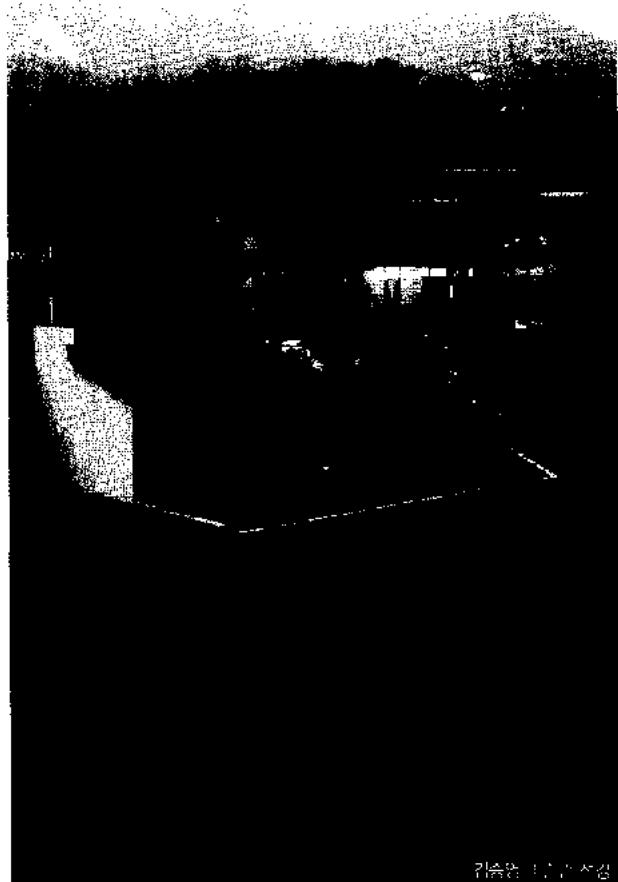
류 :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박 : 명함에 한국건축사라는 글이 없는데요?

류 : 미국 면허도 있고 한국 면허도 있습니다. 영향이 너무 길어 질까봐 영향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건축사 자격은 세 번 시험 봐서 붙었습니다.

유 : 80년대 말에 귀국하셔서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류 : 전 그런 건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고, 교포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지 않았어야 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축사시험을 세 번 만에 붙었는데, 당시 주변에서 “간단한 문제집 한 번만 보고 시험 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책 대충보고 가서 시험을 쳤는데, 법규 문제가 너무 어려웠지요. 문제가 막 꼬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알기 어려



김승연 (1951~) 건축

웠어요. 그래서 느꼈죠. 대단히 영리해야 살 수 있었구나… 제가 영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 : 아키플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류 : 아키플랜은 당시 김우성 시장님이 계셨고, 네 개의 소기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1소장을 하고 있었죠. 당시 박훈 소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해운대 현상설계하고, 가양지구 아파트 현상 설계 등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한 세 개 정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박 : 지금까지 일하면서 은인이리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류 : 사실 제게 일을 주신 모든 분들이 은인이시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일 주신 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 이었는데요. 좀 넓은 빌라였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건축주 분의 형님, 지인들이 일을 계속 연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종영미술관의 건축주 분도 매우 감사한 분이죠. 제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븐스 헤븐 건축주 분도 거의 ‘NO’를 안 하셨어요. 그 분은 저희가 계속 안을 발진시키고 있을 때, “다 좋으니까 이제 그만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박 : 류 건축사님은 주로 민간 시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공공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계약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좀 어려운 문제는 없으셨나요?

류 : 네. 민간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당선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 시장에서 처음에는 경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현상설계 참여를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는 것들을 유심히 봤죠. 투시도는 어디서, 어떻게 그리는지, 패널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당시가 가장 비효율적인 운운을 할 때입니다. 당선율이 참 낮았어요. 심의위원들의 미음도 못 읽어 내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는 것이 결국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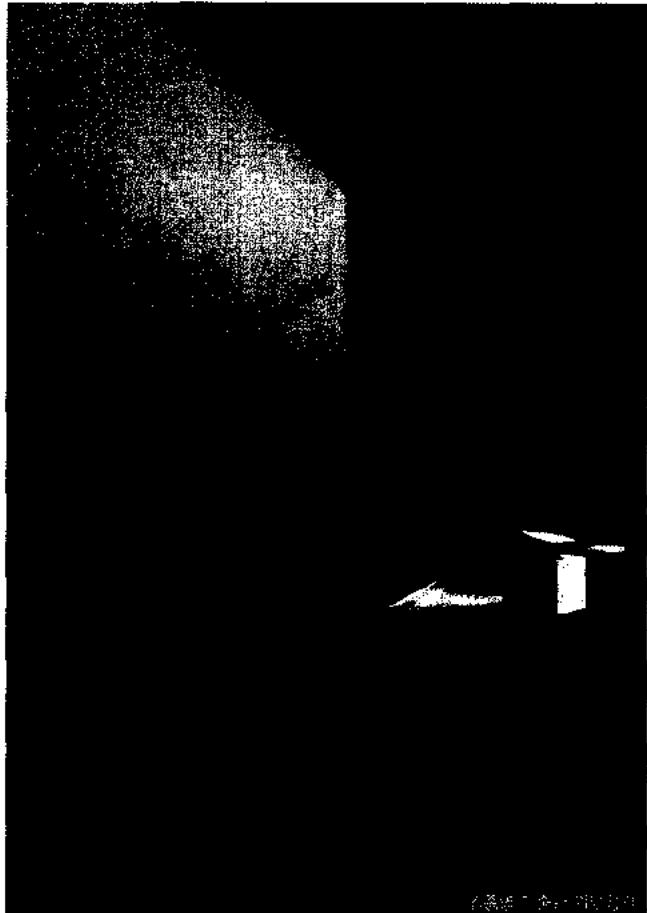
박 : 그래서 결국 지금은 공공 현상에서도 형식적인 부분에서 밀리지는 않게 되신 거죠?

류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무슨 현상을 참여 할까를 좀 나누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 그런데 제가 좀 문제시 하고 싶은 것이, 국내의 공공 현상이 제출물의 턱니와 형식으로 달라지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듯해서요.

류 : 사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보니, 설계한 사람이 설명할 기회도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현상 프로젝트의 용역비가 5억 원인데, 5개 회사가 1억 정도씩을 투입해서 현상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참 난센스죠.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제출물을 간소화 하던지, 설계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던지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 그럼 말 나온 김에, 현업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 : 고치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까요.

류 : 최근에 공동주택을 많이 하다 보니, 공동주택 관련 법규는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박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추실 수 있나요?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류 :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220% 인팎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240%, 250%씩 주어야 하고, 역세권은 400%, 500%씩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거가 결국 아파트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300, 400, 500%씩 용적률을 주다 보면, 궁극적으로 40층, 50층까지 층수가 올라가야 해요. 서울시에서 그런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면, 인동간격, 남향선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또 형식도 연도형 등의 다양한 아파트가 개발되어야 하죠. 아무튼 공동주택을 지금 상황으로 끌고 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의 같은 곳에 가보면, 심의위원분들도 좀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축계에서 아파트를 보는 시각이 좀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 :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작 시민 사회에서 큰 용적이나 남향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경제논리가 앞서고, 나는 이익을 추구할 터이니 남들은 비르게 하길 바란다든지…

류 : 물론 그렇죠. 하지만 사회에서 남향을 선호할 때 건축계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대향방향 이격 거리 등도 안 치켜도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조차도 다양한 신 개념의 배치를 요구하면서도 모든 세대가 100% 남향이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건축계의 공통적인 문제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용적률과 건축의 형태 등 모든 것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지혜롭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 :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를 법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선분양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만일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면, 즉, 후분양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합니다. 잘못 만들면 안 팔릴 테니까요. 그런데 선분양을 하니, 즉,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팔다보니,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키기 힘든 것은 아닐까 하는데, 류 건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류 : 네. 그것도 반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건축계의 문제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실행하기 비교적 쉬우니까요. 그리고 일반에서 보면 주택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많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몇 층을 했다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서민들은 고급 주상복합을 비난하면서도, 내심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박 : 건축사들의 문제는 없을까요? 건축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류 : 건축사들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골목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건축사들이 오래된 골목길에 향수를 갖고 친양 합니다만 어기에 머물러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다면 충분히 봐줄 수 있어요. 50층 올라가지 않고도 환경과 사업성이 충족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



김충양 미술관 전시실

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해야죠. 사실 차량, 도시 스케일 등 많은 것이 바꿔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는 그런 길들이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뿐이 아니고, 새로이 재편되는 도시나 주거 단지에서는 “골목길” 가치를 간직한 현 시대의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현적인 대안을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가 일부 생각이 앞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잘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 시장 정책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럴 때 건축계에서 좀 더 질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고충이 좋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좀 더 복합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직 까지는 공급 우선이라,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잘 해 보고 삼아도 법규라는 매우 단단한 가림막이 있고, 그런 단단한 가림막은 선분양, 즉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하게 만드는 정책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아닌가 하거든요. 저는 사실 주체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류 : 사실 서울시에서는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려 하고 있어요.

유 : 그러니까 류 건축사님 말씀은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국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부여주는 것이 죄송이겠고 따라서 실무하시는 건축사들이 이

일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이제는 생각합니다.

류 : 그런데 사실 대형 건축사무소의 중간 실무 분야 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좀 더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가 싸게 하라고 했다면서 자신의 문제를 넘겨버리고 있다고 본니다. 중간층이 얼마든지 후회를 반기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박 : 이제는 다시 이야기 돌려 사무실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명함에서 보니 시 건축(始建于)인데요, 이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 : 시작(始作)한다는 뜻에서 ‘시’자를 썼습니다. 서자가 좋은 뜻이 많아요. ‘비로소’도 있고… 한자는 다르지만 시간(時)의 뜻도 있지 않습니까?

유 : 영문으로는 ‘SEE’로 쓰고 계신데요.

류 : 본래(原本)는 높도 있기 때문이죠.

박 : 시건축이 회사 소직으로 볼 때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류 : 저희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요. 8명 정도 되며 실내 디자인과 건축과 출신이 반반입니다. 저희가 주력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 인과 밖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 : 인테리어 소품까지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약장등록도 하시면 좋겠어요.

류 : 네. 지금 호텔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사무실 입구에 1:1 mock-up을 만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약장등록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별도로 사서 붙이진 않잖아요. 결국 원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니까요. 주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 : 그렇죠. 잘 지었는데 인테리어의 조그만 부분 때문에 암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 :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것도 그렇죠.

류 : 주택예산 건축주들이 인정 깨끗하게 보시거든요.

박 : 말씀 들어 보니, 인테리어 팀을 갖고 있으신 이유가 결국 민간 마켓에서 주택 등으로 성장해 오신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은 안 밖의 연계 개념이 투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공공 분야에서 성장한 사무실들은 일을 모두 나누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관계로 질려나가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이 건축물의 완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입니다.

류 :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설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개인 입주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문제가 될 곳은 없을까? 를 면밀히 살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와 함께 일해 보면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건설사 인테리어 팀이 오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 크기가 어떻고 워낙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거든요.

박 : 오늘 느낀 것이, 류 건축사님처럼, 민간 시장에서 안 밖의 경계가 없이 일을 하다가 공공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2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일하는 방식이 약간씩이나마 다른 것을 수 있었습니다.

유 : 다시 119센터로 돌아가서 여쭙겠는데요. 이 건물에서도 내부를 전부 일일이 행기셨겠지요? 감리를 하셨나요?

류 : 아닙니다. 몇 가지의 색상들은 우리가 지정했지만, 아쉬움이 많지요. 공공발주라서 감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 이것이 어떻게 발주된 것인가요?

류 : 소방서는 서울시 경관 건축가 중에서 가격입찰을 하여 제가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기준 단기에 근거하여 제출된 입찰 금액 중 평균에 제일 가까운 운이 좋게 낙찰 된 것이죠. 계약 설계비는 4천만 원인데 실행 설계비는 짐작하시겠지만 아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김리는 동대문 디자인 파크를 감리하는 회사에서 했는데, 디테일이나 인테리어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박 : 이 건물을 입찰하는 전후에 나온 지침서 내용 중에 뭔가 좀 기억해 두신 내용이 있었나요? 예컨대, 이런 것이 참 좋았다. 다른 발주에도 쓰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류 : 설계를 위한 지침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 : 그럼 그냥 멋진 소방서를 지어달라는 것이었나요?

박 : 아님 창의적인 소방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나요?

류 :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소방서가 있었고, 동대문 디자인 파크 옆에 새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소방서에서 내용은 소방에 관련된 아주 기술적인 내용만 있었을 뿐 건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 : 그렇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었겠네요.

류 : 공공프로젝트를 잘 아시겠지만, 제출해야 되는 일이 사실 상당해요. 요구하는 도면이 매우 많지요.

유 : 진행과정에서 발주처와는 주로 회의를 통하여 내용들이 정해졌을 텐데요.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나요?

류 :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소방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로 좋았습니다.

유 :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사후 평가를 청취하셨나요?

류 : 네. 소방관들에게는 참 좋은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어느 분은 호텔 같다고도 하시며 좋아합니다. 타 지역 소방서에서는 앞으로 소방서 자을 때 이 건물을 꼭 견학을시키고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 :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류 : 그렇죠.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외치는데, 무언가 기사적인 성과가 필요한 대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란 축면보다는 소방서로 기능도 충족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다른 건축사들도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했습니다. 땅에 맞추어 만들어 낸 것인데, 억지로 조형을 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유 : 이제 인터뷰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건축을 처음 생각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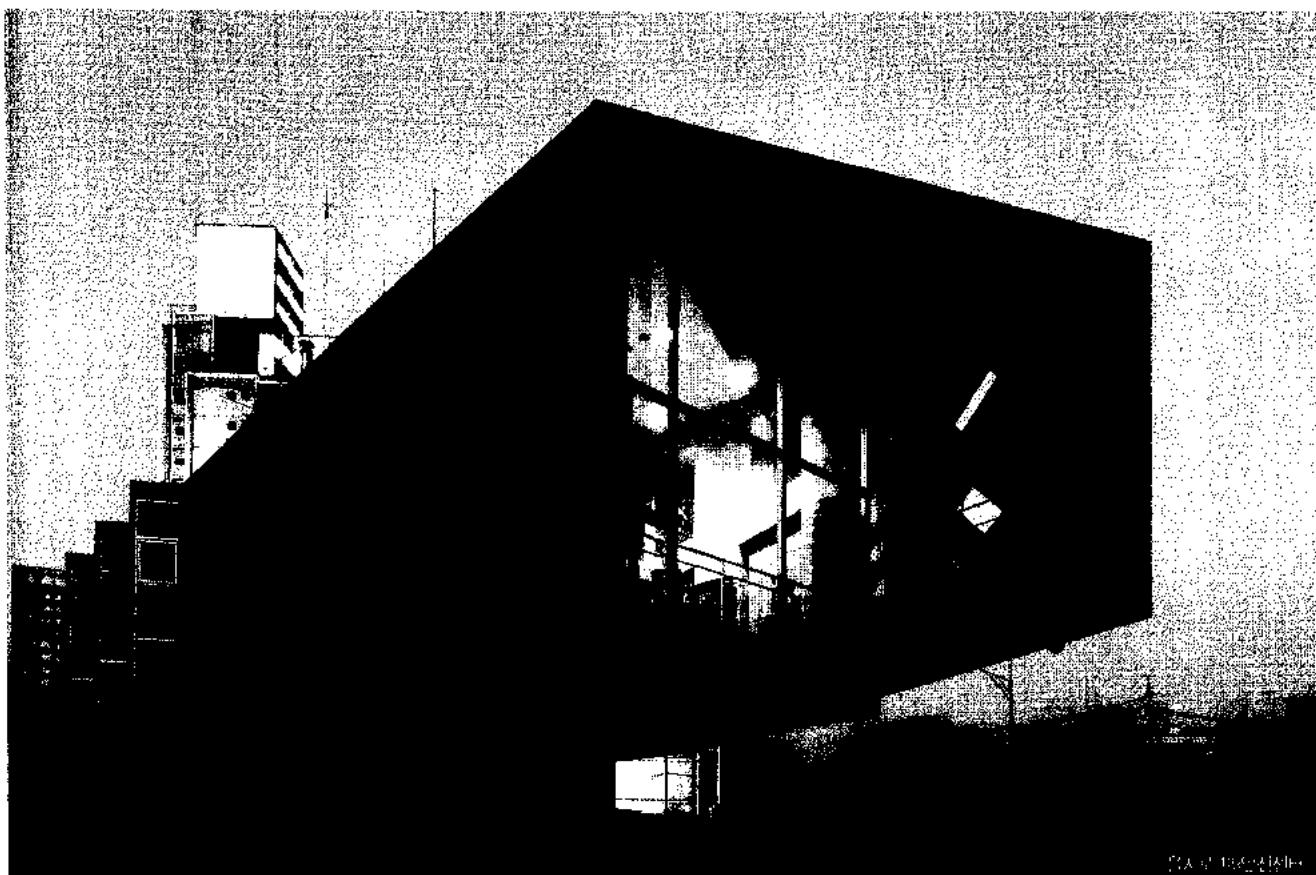
류 :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나 만드는 것을 좋아 했지요. 건축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공학과를 갈까 했었는데, 재수를 하고서 건축학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선보다는 건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배는 여럿이 참여하여 기업 같은 곳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큰 배는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건축은 소규모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수의 건설이 가능하니 훨씬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소방서(서울시)



서울소방서(서울시)



박 : 향후 계획이나, 비전 같은 것을 들이불 수 있을까요?

류 : 저희 사무실이 건축사무실의 일반적 형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건축하는 분들하고 친하기도 하지만, 무슨 그룹이니 하면서 함께 하진 못했거든요. 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건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외국의 어떤 사무실과 비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규모가 국내에서는 드문 중규모 사무소 이라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운영 하나고 종종 물긴 하지만 그러기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 큰 사무실에 밀리지 않고, 작은 사무실처럼 체력이 달리지 않는 좋은 사무실을 만들어 보고 싶지요. 우리 같은 중규모 사무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사무실에게는 자극이 되고, 소형 사무실 보다는 효율이 높지요. 회사가 너무 작으면 생각이 한정되어 건축도 한정되는 것 같습니

다. 외국에는 중규모 사무실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중규모 사무소로서 역할을 잘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박 :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 :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했는데…

유 :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축과 알찬 사무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